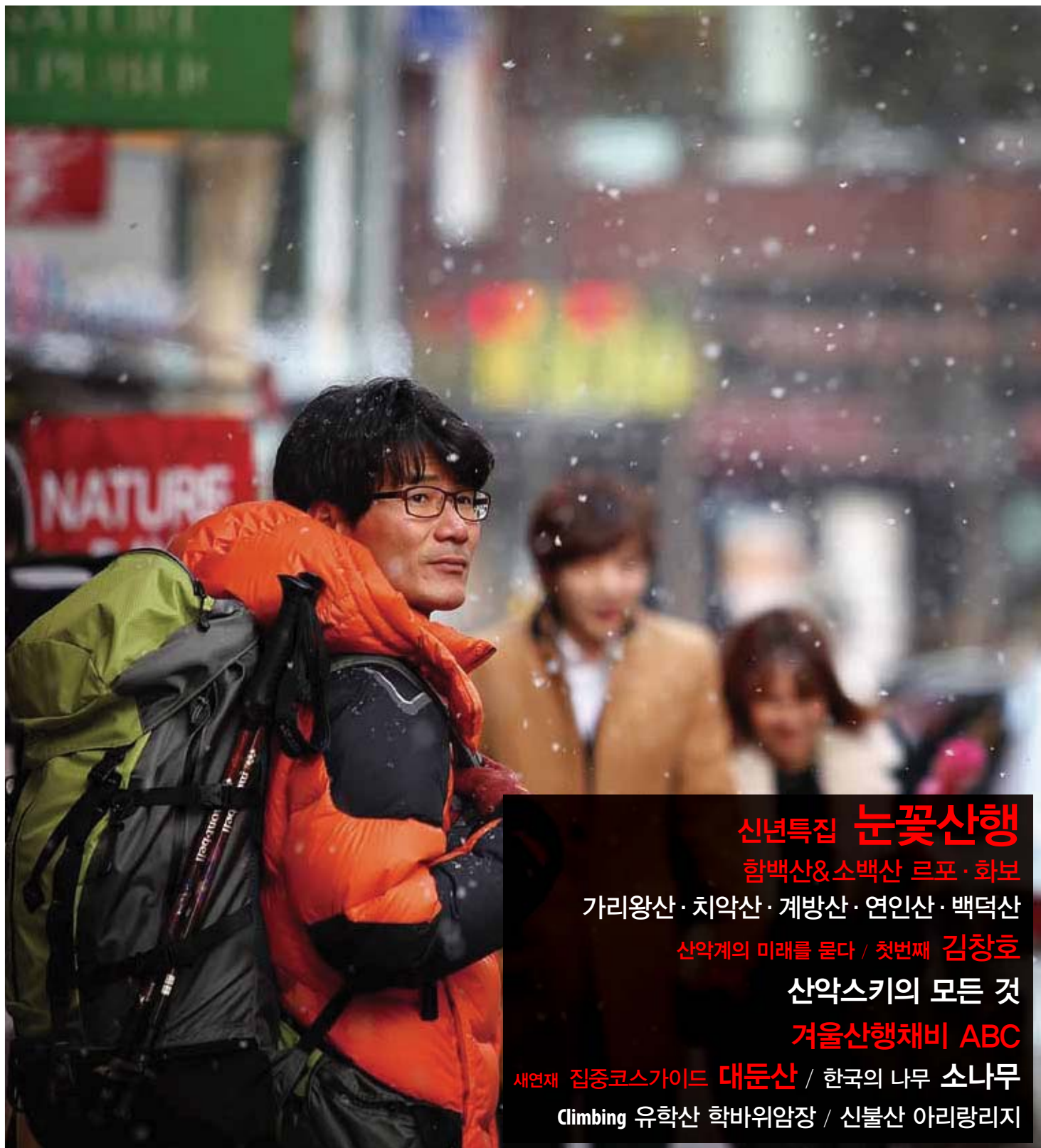




사람과 산 01

VOLUME 279 / 2013 January



신년특집 **눈꽃산행**

함백산&소백산 르포·화보

가리왕산·치악산·계방산·연인산·백덕산

산악계의 미래를 묻다 / 첫번째 **김창호**

산악스키의 모든 것

겨울산행채비 **ABC**

새연재 집중코스가이드 **대둔산** / 한국의 나무 **소나무**

Climbing 유학산 학바위암장 / 신불산 아리랑리지

코오롱스포츠 티타늄 안타티카 리미티드 에디션

Your best way to nature™



당신의 왜 끊임없이 오르려 하는가
당신의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당신의 왜 극복하려 하는가
당신의 왜 포기름 모르는가
당신의 왜 자신과 싸우는가
우리의 답을 찾느 대신
당신을 지지하기로 했다

그것이 콜온스포츠초
40년 혁신의 역사이고 리더의 길이다

리더의 새로운 혁신
티타늄으로 재킷을 만들었다





WARM | EACEPTIONALLY BREATHBLE | COMPRESSIBLE

NANO PUFF® HYBRID JACKET

파타고니아의 베스트-셀링 나노 퍼프 재킷과 상징적인 R2®플리스가 결합하여 체력 소모가 큰 활동시에 과열된 체온을 밖으로 보내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나노 퍼프 하이브리드 재킷



patagonia®

patagonia[®]
footwear

Jeon.Y.J.

**new SNOW DRIFTER 7
WATERPROOF**

눈에 덮힌 길에서 뛰어난 접지력을 제공 하는 슈즈
스노우 드리프터 7 WTPF

MEN'S | 7.5 - 11 | 595g



T10975
ESPRESSO

**RANGER SMITH
WATERPROOF MID**

산길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착용 가능한 츠카 스타일의 부츠
레인저 스미스 WTPF 미드

MEN'S | 7.5 - 10.5 | 992g



T50693
VELVET BROWN

서울 무교점 02.779.1133 삼성점 02.564.1277 종로점[아울렛] 02.2264.7778 인천 주안점 032.423.1629
대구 대봉점 053.257.8839 울산점 052.257.5199 부산 광복점 051.248.8090 동래점 051.553.0349

1544-1876 www.patagonia.co.kr





당신의 구스다운은 등산가용입니까?

날씨변화가 심한 겨울산에선 구스다운도 장비입니다
겨울 등산이라면 등산가용 다운을 준비하십시오
국제다운검사기관(IDFL)으로부터 복원력과 보온성을
인증받은 몽벨 구스다운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입니다

최고의 등산가용 다운
몽벨 '한석규'
헤비구스다운 자켓



퍼포먼스가 강화된
등산가용 다운
몽벨 '한석규' 제로포인트
구스다운 자켓



방풍, 투습력이 탁월한
등산가용 다운
몽벨 '한석규' 테크니컬
구스다운 자켓



mont-bell



몽벨 등산가 김창호 대장, 산악계의 오스카상 '황금피켈상 아시아' 수상!

7,140m 네팔 '힘중' 세계 최초 등정에 성공한 몽벨 김창호 대장이 아시아 최고의 산악인에게 주어지는 '황금피켈상 아시아'를 수상,
몽벨의 기술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세계와 경쟁할 아이젠,
대한민국에는 **라이프스포츠**뿐입니다!

대한민국 NO1. 아이젠 – 라이프스포츠

안전함, 그 이상의 완전함 2012. EISEN

MADE IN KOREA

라이프스포츠 아이젠은 국내 최상의 원자재와
정밀한 열처리 경도 측정 공법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LIFE
CAMPING & SPORTS



스파이크 PRO(밴드&체인)
뛰어난 안정감과 편안함을 자랑하는 스텝 체인아이젠
소비자가 ₩55,000



슬리퍼 PRO(밴드&체인)
뛰어난 안정감과 편안함을 자랑하는 아이젠
소비자가 ₩44,000



10P 보스(투버클)
전체 피크 구성으로 뛰어난 제동력을 자랑하는 아이젠
소비자가 ₩47,000

over the top

LIFE SPORTS

▶▶▶ MORE INFO WWW.LIFESPORTS.CO.KR



6P 골드(투버클)

폭조절 기능으로 착용감이 완벽한 아이젠

소비자가 ₩33,000



6P 파워(투버클)

착용과 탈착이 편리한 견고하고 안전한 아이젠

소비자가 ₩28,000



4P 골드(원버클)

착용과 탈착이 용이한 과학적인 아이젠

소비자가 ₩20,000



4P 배꼽(V밴드)

눈이 절대 들어 붙지 않는 아이젠

소비자가 ₩14,000



4P 원(원밴드+)

중량과 부피를 최소화시킨 간편한 아이젠

소비자가 ₩10,000

라이프스포츠상사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966번지 T 031-987-1308 | F 031-987-9924

라이프스포츠 아이젠은 발명특허 외 실용신안, 의장등록을 모두 획득한 제품입니다. 일부 모방된 자가 제품이나 중국 제품을 취급할 시에는 특허법 침해로 손해 보실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Contents

vol. 279. January.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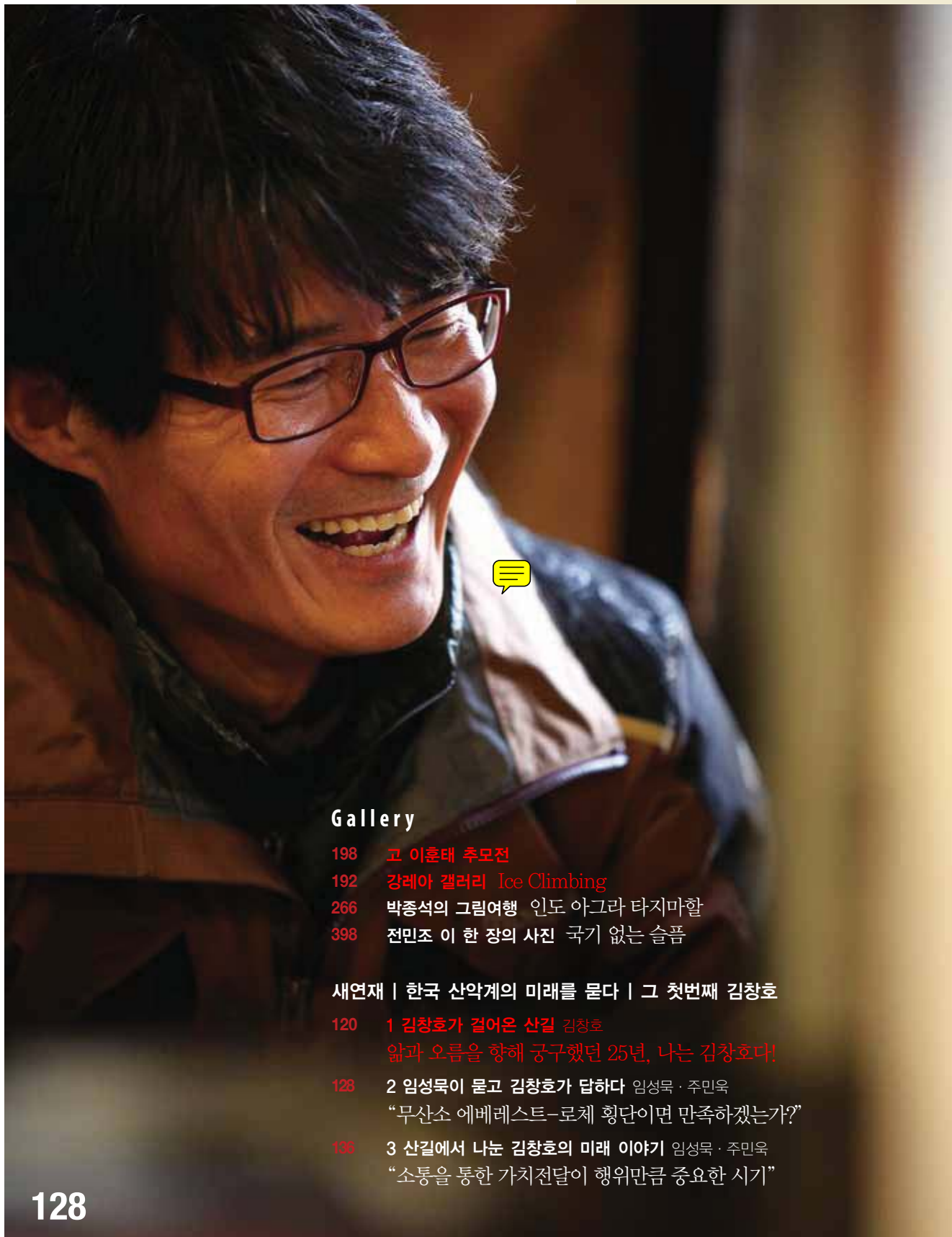
특별부록 대형지도

대둔산

cover

사랑과 평화의 기도문 <책등 그림 박종석>

착잡한 도심의 군중 속, 이 시대 최고의 산악인의 눈길도
시대상을 반영하듯 착잡하다(서울 대학로). <사진 주민욱 기자>



Gallery

- 198 고 이훈태 추모전
- 192 강레아 갤러리 Ice Climbing
- 266 박종석의 그림여행 인도 아그라 타지마할
- 398 전민조 이 한 장의 사진 국기 없는 슬픔

새연재 | 한국 산악계의 미래를 묻다 | 그 첫번째 김창호

- 120 1 김창호가 걸어온 산길 김창호
압과 오름을 향해 궁구했던 25년, 나는 김창호다!
- 128 2 임성묵이 묻고 김창호가 답하다 임성묵 · 주민욱
“무산소 에베레스트-로체 횡단이면 만족하겠는가?”
- 136 3 산길에서 나는 김창호의 미래 이야기 임성묵 · 주민욱
“소통을 통한 가치전달이 행위만큼 중요한 시기”



Contents

vol. 279. January. 2013

신년특집 | 눈꽃산행

- 144 화보 | 지리산 눈꽃 정종원
- 152 르포 | 태백 함백산 윤성중 · 주민욱
세 뺨 하늘이면 어떠랴 흰 노다지가 지천인데!
- 162 르포 | 영주 소백산 장보영 · 정종원
변덕과 변심의 하룻밤
- 172 코스가이드 5선_1 정선 가리왕산
평평한 정상부에서 맘 놓고 즐기는 러셀
- 174 코스가이드 5선_2 원주 치악산
사다리병창길에서 보는 눈꽃 절경
- 176 코스가이드 5선_3 평창 계방산
바람과 눈꽃이 만든 설국
- 178 코스가이드 5선_4 가평 연인산
수도권에서 가깝게 만나는 1,000m 일출 낭만
- 180 코스가이드 5선_5 영월 백덕산
적설량 많은 겨울산행 대명사
- 182 겨울산행채비 ABC 윤성중
지치기 전에 먹고, 추워지기 전에 입고, 땀나기 전에 벗어라!
- 202 익스트림 아웃도어 레포트 | 산악스키 양승주 · 주민욱
눈이 내리면 내 심장이 뛰다
- 210 산악스키 | 국내 산에서 필요한 산악스키의 개요 · 장비 · 기술 가이드 박경이
AT 스키나 텔레마크 스키가 유용



- 220 **고장비 | 스키** 임성묵 · 주민욱
옛 스키에 녹아난 오름 DNA
- 428 **산악문학상 소설(단편) 부문 당선작** 이동천
기억의 저편(하)

People & Issue


- 298 **연중기획 | 사람과 산 · 울산MBC 공동기획 <사람, 산>** 신영철 · 정종원
전판성 & 유영열
- 226 **홍보성 | 부산시산악연맹 신임 회장** 백진국
- 227 **김홍빈 | 엄홍길휴먼재단 도전상 수상** 구현모
- 230 **김자인 | 자랑스러운 고대 체육인상 수상** 양승주
- 232 **고규홍 | '한국의 나무' 새 연재하는 나무 칼럼니스트** 장보영
- 234 **김세중 | 세현통상 차세대 CEO** 구현모
- 236 **조지 컬레리 | 호상사와 손잡은 바스큐 사장** 양승주
- 239 **추모 | 오점량 한국산악회 고문** 신호진
폐허의 조국에 등산 르네상스를 일으킨 장본인
- 276 **산악축제 | International Mountaineering Summit** 이진기
IMS, 축제로 알피니즘을 공유하다
- 284 **Climbing Center | 3주년 맞은 K2 CNF** 임성묵
지속적 투자로 아시아 최고 암장으로 우뚝!
- 282 **국제등산학교 | 임스테파노 돌로미테 등산학교** 양승주
이태리 돌로미테 유일 국제등산학교 개교
- 280 **등산학교 | 6년만에 다시 문 연 광주 선앤문등산학교** 임성묵
알피니즘의 멘탈을 깨워라!





Contents

vol. 279. January, 2013

- 
- 286** Focus | 엄홍길휴먼재단 후원의 밤
도전상에 김홍빈씨, 휴먼상에 서명숙씨 수상
- 287** Issue | 마무트코리아 경영권 분쟁 임성목
이석호 대표 기습 해임...브랜치화하나?

Book in Book_Climbers

- 242** 살레와와 함께하는 The Wall | 칠곡 유학산 학바위암장 임성목 · 주민욱
“그래! 비통의 치유는 웃음이다!”
- 250** 아디다스와 함께하는 클라이머 | 김동수 윤성중 · 강레아
“내가 아닌 나로서 사랑받기보다 나인 나로서 미움 받겠다”
- 258** 마무트와 함께 하는 리지등반 | 신불산 아리랑리지 임성목 · 주민욱
추락, 진지한 산수의 시작?
- 310** 백인섭의 개척시대 | 도봉산 선인봉 표범길 1
또 한 번의 기적, 제1피치 스탠스



Contents

vol. 279. January. 2013

Expedition & Trekking

- 330 네팔히말라야 아마다블람 윤태근
'우리'라는 자일의 정으로 오른 정상
- 336 중국 운남성 옥룡설산 신준식
장쾌한 전망 속에서 옥룡의 꿈틀거림을 느끼다
- 342 우제봉의 일본 100명산 | 남알프스 3 히지리다케
남알프스 최남단에 솟은 3,000m급 주봉
- 350 일본 다이후겐다케 & 핫교우가다케 박순주
구름이 연출한 상고대 속 비경
- 356 박철암 교수의 산과 탐험 | 중국 신장성
허텐, 옥(玉)의 도시를 가다

연재

- 290 자연과 예술 | 논산 산골 호숫가에 사는 작가 박범신 박원식 · 주민욱
내 몸이 자연이다
- 328 배두일의 에세이 산행 | 포천 종자산
길이 사라진 곳에 펼쳐진 비경 '천연의 바위성'
- 306 김규순의 풍수이야기 | 경기 광주 무갑산
평산신씨 무맥의 활화산
- 324 한국의 나무 | 소나무 고규홍
이 땅, 이 민족의 삶을 증거하는 생명체





Contents

vol. 279. January. 2013

- 288 시와 그림 | 오름 앞에서 권경업 · 박윤성
314 산과 우표 이상현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는 우표 휴대용 우표철
224 설문조사 | 세이클럽 등산과 함께한 등산 애호가들의 의식 조사
산에서 맞는 2013년 첫날

Outdoor Sports & Camping

- 374 팔도의 길을 걷다 | 서산 아라메길 장보영 · 신준식
눈 내린 갯가를 보러갔다
380 미스리와 함께하는 솔로캠핑 | 정선 백운산 양승주 · 정종원
눈을 찾아 떠난 겨울캠핑

Theme Mountaineering

- 316 집중! 코스가이드 | 대둔산 구현모
수많은 '소금강(小金剛)' 중 으뜸
386 발칙한 여자들의 국립공원 탐방 | 도봉산 이정순
도심 속 낙원...신선이 노니는 다섯 봉우리
368 알려지지 않은 산 | 경주 금곡산 김은남
원광이 화랑오계 가르침 베푼 산
392 철도산행 | 곡성-순천 봉두산 구현모 · 정종원
섬진강을 흐르는 산





Contents

vol. 279. January. 2013

- 360 경기의 산 | 가평 유명산 이영휴
능선이 부드럽고 계곡 경관 빼어나
- 364 충청의 산 | 금산 진악산 류재호
충남에서 세번째로 높은 산

Topic & News

- 400 이인정 회장 3연임 가나?
일본 <Rock & Snow> 아시아 황금피켈상에 뜨거운 반응
안나푸르나의 전설 모리스 에르조그 타계
암벽여제 김자인 자랑스런 고대 체육인상 수상
김재수, 한국대학산악연맹 올해의 산악인으로 선정
오경아씨, 한국 첫 산악구조대 여성대장
전세계 최장수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
한양고산악회원들 수락산 하강바위서 산타 퍼포먼스
- 404 지역별 뉴스
- 411 해외 뉴스 김동수
- 274 신간안내 장보영
- 412 업계 뉴스 구현모
- 416 신상품 양승주





Contents

vol. 279. January, 2013



Marketing Info

- 272 **마운티아 | 주원 팬사인회** 구현모
- 273 **하그로프스 | 2013 F/W 수주회** 양승주
- 420 **블랙야크 | 40주년 이벤트 40명산 도전단** 양승주
- 421 **넬슨스포츠 | 아크테릭스 페이지 베이스레이어** 장보영
- 422 **앤빌 | 아토판지아 종로점 개점** 구현모
- 423 **파타고니아코리아 | 부산 광복점 오픈** 양승주
- 426 **세현통상 | 에페피 니트 소재 수입** 구현모
- 427 **카시오 | 감성의 신기술 스마트 액세스** 구현모

116 **Letters** 편집자에게

425 **퀴즈**

사고

- 209 **울릉도 산악스키 축제**
- 225 **현대미디어 광고**

회장 이인정 ijlee@mountainkorea.com
 발행인 겸 편집인 조만녀 mncho@mountainkorea.com
 관리이사 허정식 jsheo@mountainkorea.com
 편집주간 신영철 ychshin@mountainkorea.com
 편집주간대우 임덕용 dylim@mountainkorea.com

EDITORIAL 편집부

편집장 Editor In Chief 김승진 sjkim@mountainkorea.com
 차장 Managing Editor 임성묵 smlim@mountainkorea.com
 기자 Editor 윤성중 sjyoon@mountainkorea.com
 장보영 byjang@mountainkorea.com
 구현모 hmkoo@mountainkorea.com
 양승주 sjyang@mountainkorea.com
 객원기자 오희삼 오혜정 전재완 배현영 정희영 윤영기
 전문기자 환경 서재철 아웃도어 오호근 클라이밍 문종국 이진기 박정용 이명희 박희용 김동현

지방주재기자 대구 최원식 부산 백진국 인천 송석우 대전 류진선 광주 김병찬
 포천 정태영 태백 김부래 원주 서강호 동해삼척 김원기 포항 윤석홍
 경주 이장원 문경 김규천 영주 계남두 안동 한철희 울산 김준모
 김해 윤삼준 거창 최정환 청주 김웅식 제천 강석주 천안 류재호
 해남 천기철 제주 오순희

부산지사 지사장 김달오
 해외주재기자 프랑스 샤모니 이진기 네팔 이석우 미국 주영
 편집위원 구경모 박기성 변재훈 남상익 권경업 조석필 송용철 유동훈 배두일 박원식 오영훈
 편집자문위원 김종곤 박재완 배종화 현동욱 홍보성 김갑식 이강오 김병준 주영 윤대표 김정덕

ART & GRAPHIC 미술부

팀장 Art Director 김진희 jhkim@mountainkorea.com
 디자이너 Designer 전명숙 msjeon@mountainkorea.com
 김유희 yhkim@mountainkorea.com

PHOTOGRAPH 사진부

팀장 Photo Director 정종원 jwjung@mountainkorea.com
 기자 Photographer 주민옥 mwjoo@mountainkorea.com
 신준식 jsshin@mountainkorea.com
 강래아 lakang@mountainkorea.com
 사진편집위원 김광근 심병우 이석찬 진명식

PUBLICATION 출판부

부장 강윤성 yskang@mountainkorea.com

AD, MARKETING 광고 · 영업 · 마케팅본부

이사 박재필 parkjp83@mountainkorea.com
 부장 홍범수 bshong@mountainkorea.com

ADMINISTRATION 관리부

재무과장 홍미선 mshong@mountainkorea.com
 독자서비스 김지혜 mountain21@mountainkorea.com

발행처 월간 「사람과 산」

www.mountainkorea.com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05-14 코오롱 디지털타워 애스턴 301호

전화 (02)2082-8833 팩스 (02)2082-8822 이메일 mmnews@chol.com

등록 1989년 6월 22일 등록 인쇄 (주)프린피아 분해 · 출력 삼육칼라 영업관리 (주)성운도서 (031)915-6900

월간 「사람과 산」의 판권은 도서출판 「사람과 산」이 갖는다.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 「사람과 산」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한다.

Letters

독자마당 | 편집자에게

의견이 채택된 독자에게는

애독자 설문카드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들은 더욱 알찬 <사랑과산>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께는 퍼즐상품 중에서 희망하는 상품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상품 희망 순위를 적어주세요!

(주)에이텍에서 협찬하는 줌 포커스 손전등을 받으실 분은 퍼즐 정답자와 함께 발표되어 있습니다. 배달사고가 있을 경우 (02)2082-8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산경표>(박성태 저)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산. 알려지지 않은 산의 해남 가 공산 연재는 신선했습니다. 요즘 유명한 산은 등산객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명산을 보호, 또는 등산객 분산 차원에서 알려지지 않은 산이나 오지의 산을 많이 개발하여 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산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김동욱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강레아 갤러리’ 사진은 음영의 대조가 강렬했습니다. 정상을 향해 솟구치는 능선과 곳곳이 선 나목들의 도열, 살아 숨쉬는 바위들, 이 모든 것들이 제거 겨울 산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불편 속에서 길을 찾았다’는 소산(小山) 박대성의 인생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불편함을 예감하며 고난을 이겨낸 이 분의 삶, 멋진 데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내용은 귀감이 됩니다.

김명애 |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삼성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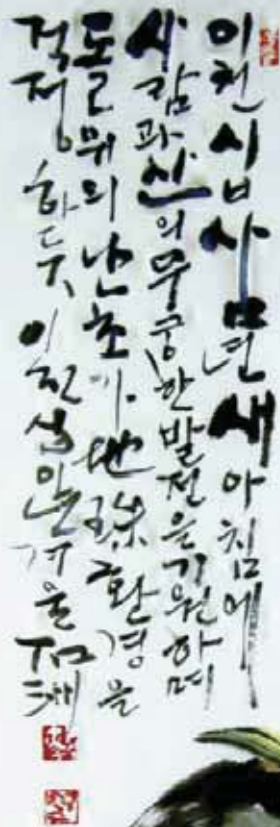
세계 정상급 클라이머를 양성하고자 1974년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등산전문교육기관으로, 진정한 산꾼이 되고자 한다면 한번쯤은 거쳐야만 하는 필수 아카데미 과정을 소개한 ‘한국등산학교 77기 수강기’를 읽으면서 그 옛날 전문지식 없이 패기와 의욕만으로 무모하게 도전하다 참변을 겪었던 우리 선배들의 슬픈 등반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입학도 졸업도 어렵다던 6주간의 생생한 등반 체험기를 통해서 청출어람의 전통을 잇고 있는 선후배 기수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동료애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강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1월호를 구입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호까지 나왔네요. 책장에 꽂혀 있는 12권이 백두산을 완성했습니다. 쳐다보지만 해도 흐뭇합니다. 바야흐로 설산등반의 계절입니다. 겨울산행 시 주의할 점이나 필수장비 등 전문가 입장에서 안내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장갑이나 등산화같은 소품쪽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한 요즘 대세인 카툰도 한두 개쯤 연재해주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용화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 3동



謹賀新年



龍의 해가 가고 새로운해를
맞이합니다.

을 한해 讀者 여러분
모두에게 福 많이 받기를
祈願합니다.

2013년에는 豊富한
山岳情報를 여러분께
傳達하는 雜誌가 되도록
努力하겠습니다.

정지연의 사람과

한국 산악계의 미래를 묻다 그 첫번째 김창호

I. 김창호가 걸어온 산길



앓과 오름을 향해 궁구했던 25년, 나는 김창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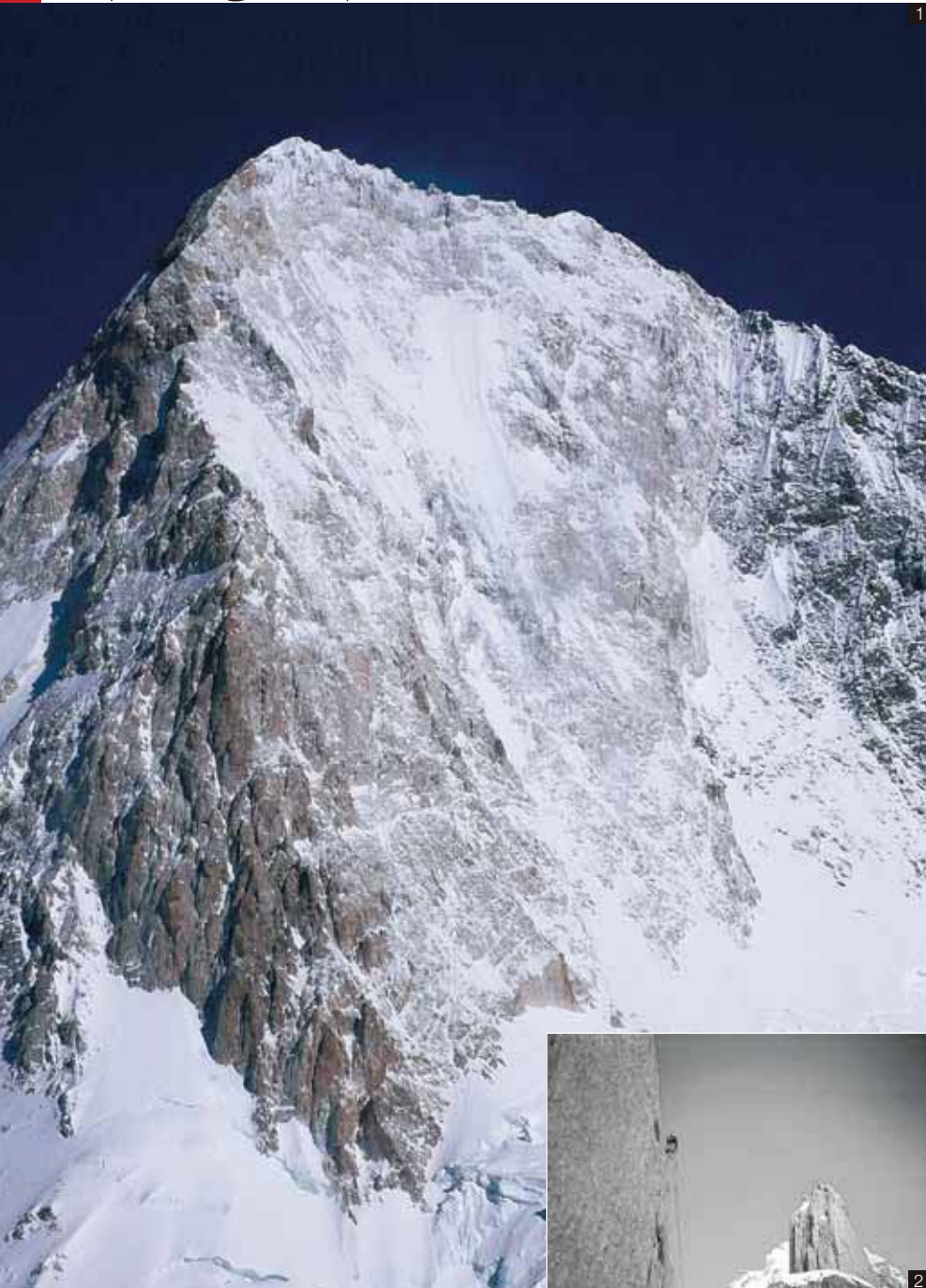
히말라야에 비취본 나의 자화상

글 사진 | 김창호

박마브락 정상에서. 멀리 K2 브로드피크
가서브를 연봉이 펼쳐진다. 이러한 사진
자료는 카라코람 연구에 지조가 됐다.
나는 독일 카라코람 연구 논문 발간에
참여하고 있다.

인류 문명 발전은 앞에 대한 욕망으로 시작됐다. 불확실한 미래 탐험으로 생존 영역 확장을 이뤘으며, 과학적 실증으로 문명을 일궜다. 광폭의 속도로 달려온 인류는 지구상에 더 이상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도전의 명제는 인류 공존과 번영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여전히 살아 있는 현재의 화두다. 이 정신으로 지난 반세기를 달려온 한국 산악계도 폭과 깊이를 더했다. 안타까운 희생과 헌신으로 다진 토양 위에서 우리는 이제 다가올 반세기를 내다볼 시점이 되었다. 이에 본지는 한국 대표 알파인 클라이머와 스포츠 클라이머, 그리고 산악지도자를 통해 현재 한국 산악계의 날 선 문제들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연재를 시작한다. 그 첫번째, 한국 대표 고산거벽등반가 김창호다. <편집자 주>

1993~1996



등반의 시작 그레이트 트랑고타워와 가셔브룸4봉

나의 히말라야 첫 등반은 1993년 서울시립 대학교 산악부 원정대 대원으로 갔던 카라 코람 산맥의 미봉(美峰) 그레이트 트랑고타워(6,284m)였다. 이 암봉은 20대에 청춘을 걸 만한 거벽이었다. 1,500m 대암벽에서 15박 16일 동안 매달려 등반을 완성했다.

나는 중단 설릉을 선등하던 중에 설탐이 무너져 80여m를 추락, 갈비뼈 2개가 부러졌다. 그래도 등반은 계속됐고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몸 상태로 선등도 했다. 첫 번째 히말라야 등반에서 나는 고통과 인내의 끝자락까지 가 보았다.

1996년 두 번째 카라코람 등반을 떠났다. 대상지는 93년 트랑고타워 등반 후 탐사하면서 보았던 7,925m의 가셔브룸4봉 서벽이 아닌 동벽이었다. 서울시립대학교 산악회 재학생 중심으로 꾸려진 원정대는 고난도 신루트를 시도해 7,450m 지점까지 올랐다. 우리 원정대 등반 전에 일본의 야마노이 야스시가 시도한 적이 있었다. 야스시는 7,200m 지점까지 단독 등반하고 돌아섰었다. 우리는 같은 라인을 택했다. 그러나 암벽은 크리스탈 암질로 피톤이 들어가지 않아 확보가 위험했다. 선등했던 나는 결국 후등자 확보 없이 2피치를 더 등반하고 후퇴했다. 확보가 아닌 선등하는 형의 자일을 두 손으로 잡았던 91학번 후배는 귀국 후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산을 떠났다. “형 그렇게까지 등반했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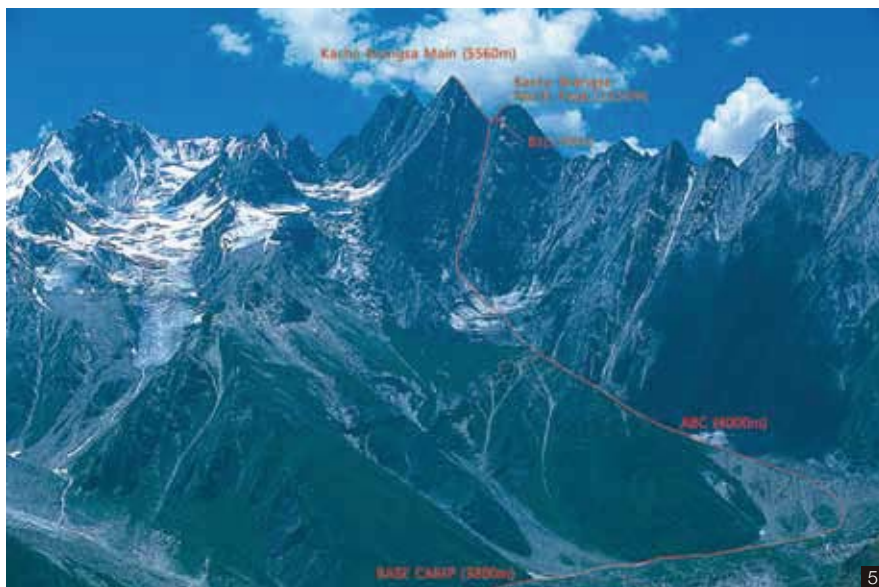


멀티4 원정대와 카라코람 대탐사

나는 히말라야 고봉을 오르는 것도 희망했지만 카라코람 산맥 전체를 탐사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거의 1,800여 일을 파키스탄 현지에서 마무리하며 홀로 탐사를 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너른 힌두쿠시와 힌두라지 산맥, 그리고 파미르 일부도 탐사했다. 카라코람은 고산지벽 등반가나 고난도 등반을 추구하는 등반가에게 파라다이스다. 내가 굳이 카라코람을 탐사 대상 1순위로 삼은 것은, 히말라야 등반 첫 경험을 한 곳이기도 했지만 미래에 좋은 등반은 바로 이곳에서 실행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것은 세계 산악계에 현실화됐다.

2001년 한국 멀티피크 원정대가 구성되었다. 적은 원정비용으로 다양한 등반을 하기 위해 서였다. 멤버는 서기석 대장, 김창호, 임성목, 장기현, 최석문, 이명희, 이병주로 혈기왕성한 야생마들이었다. 대상지는 2000년에 탐사하며 찾은 6,000m 이하 봉우리들로 입산허가 없이 등반할 수 있는 산으로 택했다. 우리는 카라코람과 힌두쿠시를 돌며 5개 봉우리에 등반하여 1개봉은 세계 초등, 3개 봉우리에 새로운 루트를 개척했다. 내 생애 이렇게 자유로움을 만끽할 등반을 또 할 수 있을까!

이후 나의 카라코람에서의 단독 탐사는 계속 이어졌다. 파키스탄 탐사기는 산악저널에 5년간 연재되어 한국 산악계에 카라코람과 힌두쿠시 산맥의 요긴한 정보와 사진이 제공되었다. 이 시기, 바투라2봉의 남서면을 탐사하던 도중 총기강도를 만나 나무에 묶인 채 총알스치는 절명의 소리도 들었다. 크레바스에 빠져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겼다. 무장 강도 사건 이후 한달 반의 법정 재판 후 내 손에 다시 나의 분신인 카메라가 돌아왔다.



1 가셔브롬 4봉의 위용.

나는 7,450m까지 이 벽을 올랐다.
2 나의 첫 원정은 그레이트 트랑고 타워였다. 생사를 가를 정도로 위험했던 80미터 추락 후 입은 부상에도 나는 상단벽을 포기하지 않고 올라 등반을 마무리했다.

3 그악한 크레바스를 건너고 있다. 장대를 든 것은 히든 크레바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카라코람과 그 일원의 산맥 탐사를 위해 7년간 파키스탄을 누볐다.

4 지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희열이었다. 앞에 대한 전진이었으며, 미지애의 종결이었다.

5 2001년 나와 임성목 장기현 최석문이 한 조가 되어 오른 카체브랑사 루트 개념도. 중부 카라코람 깨로롱마 빙하 내원에 위치한 봉우리다.

2001~2003

2005



낭가파르바트 루팔벽

세계 제9위 고봉 낭가파르바트의 남쪽 측벽, 즉 루팔벽(Rupal Face)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벽으로 베이스캠프에서부터 정상까지 4,500m를 올라야한다. 그것도 가파른 암벽과 빙벽이다. 1970년 독일 원정대에 참여한 이탈리아의 라인홀트 메스너와 그의 친동생 귄터 메스너가 처음으로 올랐으나 동생은 하산 도중 눈사태에 사망했다. 그리고 세계의 명망 있는 등반가들이 열두 차례 시도했지만 35년간 재등에 성공하지 못했다. 2005년 고 이현조와 나는 루팔벽을 두 번째로 올랐으며, 하산은 산의 반대쪽인 서벽으로 했다. 우리는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다.

전체 루트의 절반이 1970년 독일대 루트와 달랐지만 당시 원정대 이성원 대장은 고심 끝에 재등이라 발표했다. 변형루트 개척 주장은 당시 한국적 정서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자세한 기록을 원하는 유럽에서는 변형루트(variant route) 개척으로 공인되었다.

원정대원인 김주형 선배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그는 캠프에서 담배가 떨어진 후배에게 자신이 준비한 담배를 주었다. 당시 통상의 원정대들은 금연령이 떨어지기 일주일 시기였다. 등반은 서로 간의 이해와 협력이다.

- 1 2005년 고 이현조와 나는 루팔벽을 두 번째로 올랐으며 하산은 산의 반대쪽인 서벽으로 했다. 정상부 8,000m대를 오르는 필자.
- 2 낭가파르바트 루팔벽 루트 개념도.
- 3 바투라 2봉은 8,000m대에 가까운 해발고도에 더하여 난이도가 높았다.
- 4 2008년 로체 등반중의 모습.
- 5 2010년 낭가파르바트 디아미르 루트 등반중.

8,000m 14개 고봉으로의 정진 · 바투라2봉 초등

나는 전국의 원정대와 동행했다. 이런 나에게 혹자는 죽대 없는 등반가라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내가 전국의 여러 산악인과 교류하고 원정대에 참여한 것은 무엇보다 그들은 왜 산에 오르는가를 듣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답을 들을 수 없었으나 전국 어디를 가나 고통의 순간을 함께 견디며 우정을 나눈 동료들이 있어 함께 한 추억을 안주 삼은 술자리는 웃음이 넘쳐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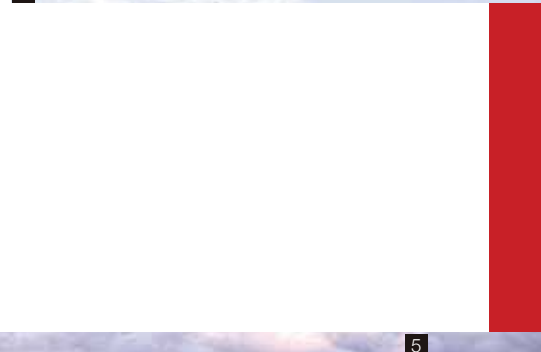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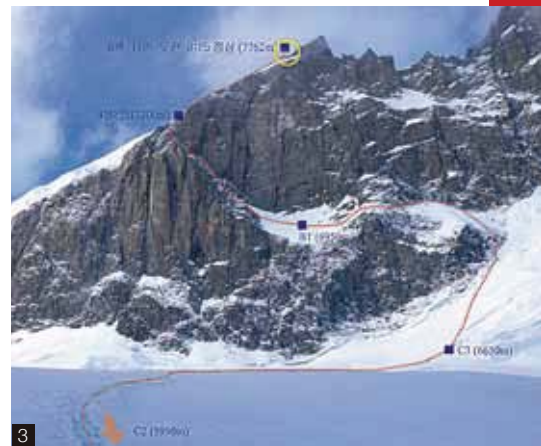
2004년 봄 나와 함께 로체 남벽 신루트를 시도했던 윤치원이 있었다. 그는 2010년 마나슬루 정상 시도 후 실종됐다. 그는 탈진한 동료를 위해 죽음의 지대에 남은 것을 택했다. 그곳에 남는다는 의미를 그는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남았다. 그리고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그것은 신루트, 초등의 기록과는 견줄 수 없는 희생정신이었다. 윤치원은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위대한 등반가였다.

2007년은 내 히말라야 등반기간 중 가장 가혹한 한 해였다. 봄시즌 나는 한국도로공사에 베레스트-로체 팀에 참여했다. 장애우 김홍빈과 김미곤 윤중현이 남동릉 마지막 캠프인 사우스콜에서 정상으로 출발한 밤이었다. 이때 에베레스트 남서벽에 신루트를 개척하고 있던 박영석팀에서 사고 소식을 무전으로 들었다. 고 오희준 이현조가 추락사했다. 나는 텐트 안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현조는 2005년 나와 나가 루팔벽을 올랐었고, 희준은 2006년 가셔브룸1봉을 등정할 때 함께 했던 후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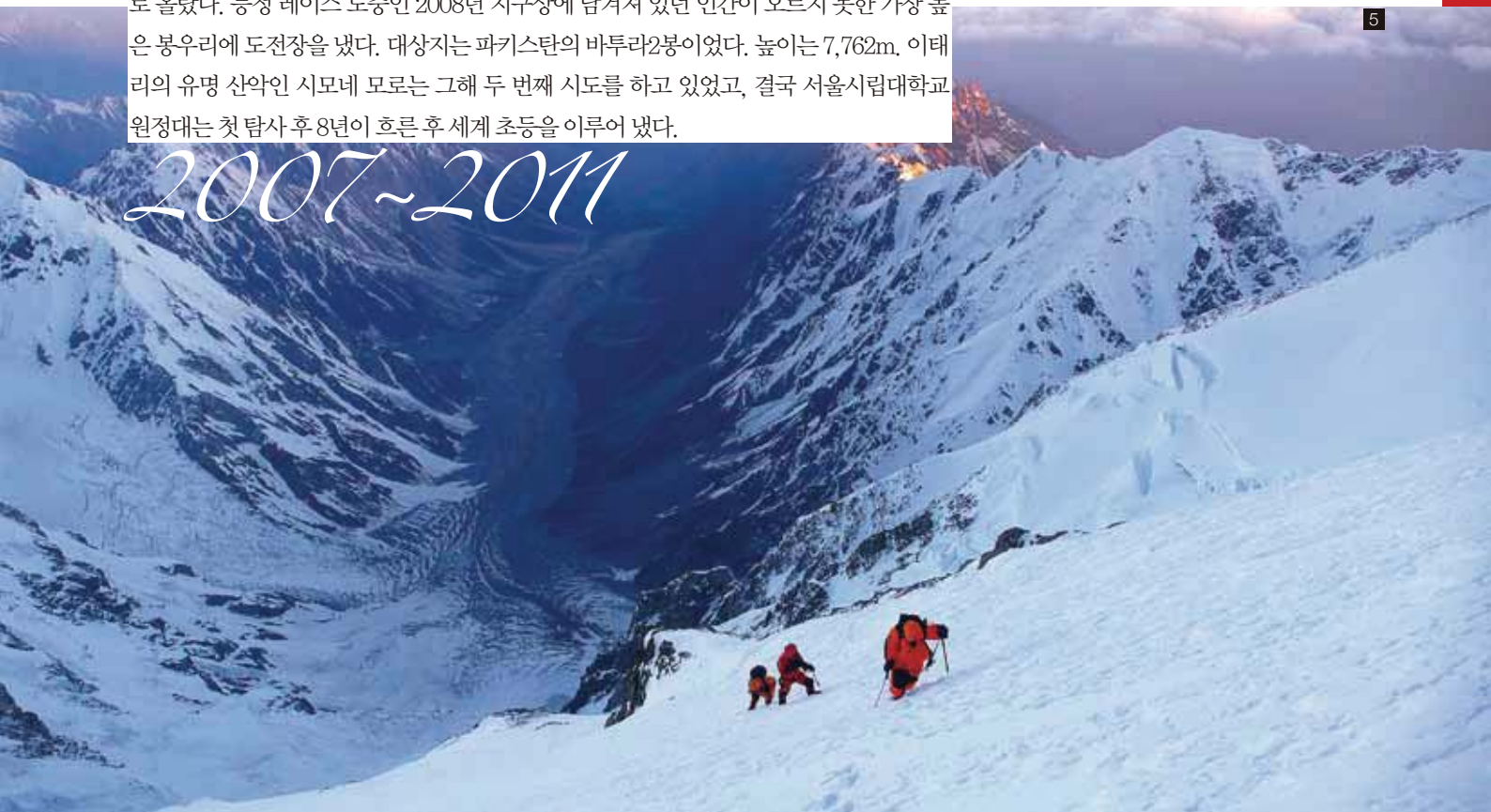
박상수 대장은 “박영석팀을 돕는 게 우선이다. 마지막 캠프를 정리해서 하산하라.”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상으로 향하려는 나의 마음은 여전했다. 다음 날 아침 김주형 등반대장과 나는 캠프2로 하산해 후배들의 주검을 수습하는 작업에 함께 했다. 후배 가는 마지막 길 지키게 기회를 준 박상수 대장에게 감사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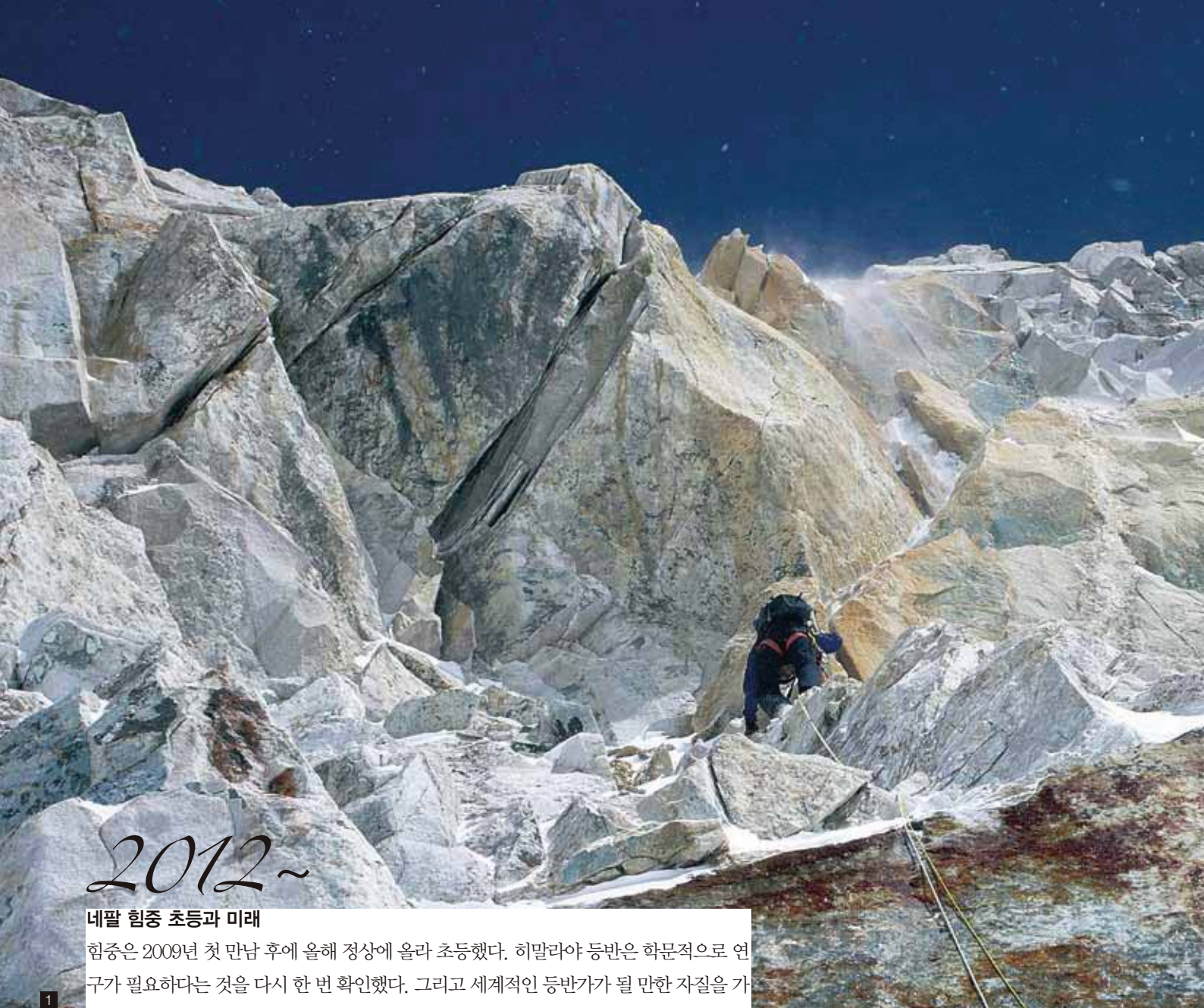
귀국 후 어떤 이는 “한국산악회 실버원정대와 같은 시즌 같은 루트였고 60대 노인도 등정했는데 너는 못 올라갔어”라는 힐난과 비꼴도 있었다. 괴로웠다. 나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못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나는 안 올라갔습니다’와는 천지차이다.

2007년 나는 부산 다이나믹 원정대(대장 홍보성) 일원으로 14개 고봉 완등의 향진을 시작했다. K2 등정으로 한국에서 두 번째 무산소 등정한 이래 2012년까지 13개 고봉을 무산소로 올랐다. 등정 레이스 도중인 2008년 지구상에 남겨져 있던 인간이 오르지 못한 가장 높은 봉우리에 도전장을 냈다. 대상지는 파키스탄의 바투라2봉이었다. 높이는 7,762m. 이태리의 유명 산악인 시모네 모로는 그해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있었고, 결국 서울시립대학교 원정대는 첫 탐사 후 8년이 흐른 후 세계 초등을 이루어 냈다.



2007~2011





2012~

네팔 हिम중 초등과 미래

1 हिम중은 2009년 첫 만남 후에 올해 정상에 올라 초등했다. 히말라야 등반은 학문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리고 세계적인 등반가가 될 만한 자질을 가진 안치영과 동행하는 운도 따랐다.

나는 2012년까지 8,000m급 13개 봉우리에 16회 올랐다. 마지막 남은 에베레스트를 등정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물론, 아시아에서 최초 무산소 8,000m급 14개 고봉 완등자가 된다. 그러나 원래 14개 고봉 완등은 나의 등반 목표가 아니었다. 사람과의 만남이 이어지다보니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왔다. 또 7,000m급 2개봉에 세계 초등했으며, 5,000~6,000m급 5개 봉우리도 세계 초등했다(한국은 1962년 히말라야로 첫 진출 이래 지금까지 7,000m급 9개 봉우리를 세계 초등했다).

히말라야 등반에서 나에게 특별한 금기는 없다. 나는 생각한다. 알파인 스타일, 신루트, 고난도 거벽등반 등 이러한 모두는 자연, 즉 산을 접하는 하나의 방식이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나는 수평 여행(탐사)과 수직 여행(등반)을 좋아한다. 이 둘 모두는 미지라는 점이 나를 유혹한다. 그러나 수직 여행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나의 욕망의 표현이고, 수평 여행은 순리를 따는 길이다. 나는 자연과 사람과의 조화와 합일을 꿈꾼다.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간다. 지구상의 대하(大河)들, 나일강 갠지즈 황하 한강도 바다에 이르면 자신의 이름과 색깔과 행태를 내려놓는다. 山

1 나는 안치영과 함께 알파인스타일로 हिम중을 베이스캠프 설치 후 14일 만에 끝냈다.

2 2007년 브로드피크 정상.

3 2009년 다울라기리 등반.

4 2012년 나는 전임미답의 हिम중 정상에 섰다.



김창호(서울시립대 OB)

- 1993년 파키스탄 카라코람 트랑고 그레이트 타워(6,284m) 북동필라 완등
- 1996년 파키스탄 카라코람 가셔브룸4(7,925m) 동벽 신루트 등반
- 2000년 파키스탄 카라코람 · 힌두쿠시산맥 8개월 단독 탐사
- 2001년 파키스탄 멀티 피크 원정
 카라코람카체브랑사(5,560m) 세계 초등정
 카라코람혼보로 피크(5,500m) 신루트 등반
 힌두쿠시 시카리(5,928m) 신루트 등정
- 2001~02년 카라코람 · 힌두쿠시 산맥 단독 탐사
- 2003년 딜리상사르(6,225m), 아타르코르(6,109m), 하이즈코르(6,105m),
 박마브락(6,150m) 단독 세계초등정
- 2005년 파키스탄 낭가파르바트(8,126m) 루팔벽 중앙직등루트 세계 2등
- 2007년 파키스탄 K2(8,611m) 아브루찌릉 무산소 등정
- 2008년 네팔 마칼루(8,463m) 로체(8,516m) 무산소 최단시간 등정. 세계기록
 파키스탄 최고(最高) 미등정봉 바투라II(7,762m) 세계 초등정
- 2012년 네팔 미등봉 힘중(7,140m) 알파인스타일 초등정
 현 8,000m급 13개 봉우리 무산소 등정,
 7,000m급 2개 봉 세계 초등

수상

- 2005년 월간 사람과 산 선정 알파인 클라이머상 수상
- 2006년 대한민국 산악대상 수상
- 2006년 대한민국 산악대상 고산 등반상 수상
- 2007년 한국대학산악연맹 올해의 산악인상 수상
- 2009년 대한민국 산악상 고산등반상 수상
- 2012년 제 7회 Piolets D'or Asia(황금피켈상 아시아) 수상





Season Special

눈꽃산행 태백 함백산

만항재~함백산~중함백산~은대봉~두문동재 _ 11.8km

세 뱀 하늘이면 어떠랴 흰 노다지가 지천인데!

글 | 윤성중 기자 사진 | 주민욱 기자

함백산 정상 직전에서 본 풍경. 만항재 뒤로 솟은 산은 1408m봉이다. 만항재 인근은 한때 광산지역으로 당시 석탄운반용으로 쓰이던 임도가 지금까지 잘 나 있다. 임도는 현재 '운탄고도'라고 불리며 트레킹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태백선수촌 삼거리에서 함백산 등산로를 오르고 있는 본지 태백 주재기자 김부래씨. 올해 나이가 일흔둘인데도 씩씩한 체력을 과시했다.

본지 태백 주재기자인 김부래(71세)씨로부터 함백산(1572.9m) 취재에 기꺼이 동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태백으로 가는 길이었다. 두문동재에 다 와갈 무렵엔 이미 오후 8시였고 마침 고한읍을 지나는 중이었는데, 38번 국도 밑으로 난데없이 번쩍번쩍 야경이 펼쳐졌다. 어둑한 산골 오지에서 축제라도 벌어진 양 기이한 풍경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2003년 문을 연 리조트가 한창 성업 중이었으나, 평일이어서 그런지 막상 그 안은 텅 비어있었다. 휘황찬란한 불빛에 속은 느낌이었다.

“별 것 없네”하며 황망히 고한읍을 빠져나와 두문동재 터널을 지나고 태백으로 넘어왔는데 사뭇 분위기가 180도 달라 태백

시의 거리는 마치 헬썩한 사람 얼굴 마냥 생동감이 없었다. 이러니 고한쪽이 오히려 덜 심심하겠다 싶었다.

“거기도 마찬가지야. 걸만 뺄까뻔쩍하지 안에 들어가면 전당포, 모텔 같은 유흥업소밖에 없어. 원래 여기 사람들은 강원랜드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면 뭐해. 다 속이고 들어가는데. 그거 때문에 마을 사람 중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수도 없어!”

김부래씨의 나직한 목소리 밑에는 어딘가를 향한 원망의 기운이 깔려 있었는데, 그렇다고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정책 시행 이후 생긴 폐광지역의 파탄을 자력으로 회생시키지 못한 주민들을 탓할 수도, 199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을 제정한 정부를 욕할 수도 없는 것이라 그와 마주 앉은 식탁엔 한숨만 나돌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산에 올라 그나마 때 묻지 않은 곳을 찾아 예찬하는 것밖에 없었으니 “웁지! 그거라도 열심히 하자!”며 밤늦도록 소주잔을 꺾었다.

커브길 조심! 38번 국도 두문동 구간은 ‘마의 국도’

고한 토박이 산꾼 주춘옥(55세)씨 집에서 하룻밤 묵은 뒤 김부래씨가 사는 태백으로 다시 넘어왔다. 그를 차에 태운 뒤 태백시를 거쳐 만항재로 갈 계획이었다. 유유히 두문동재 터널을 빠져나왔으며 곧 이은 급격한 내리막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러나 짜리발골을 지날 무렵 예상치 못한 급커브길이 나타나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 나중에 김부래씨가 이르길 38번 국도 두문동 구간은 교통사고 다발구역으로 일명 ‘마의 국도’로 불리고 있다는 것. 지난 5년간 이곳에서만 14건의 대형 교통사고가 나 주위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단다. 원인은 30년 된 옛 두문동재길을 개량 없이 그대로 둔 탓이었다.

태백시에서는 이 선형개량공사에 드는 비용이 워낙 많아 선뜻 손을 대지 못한다고 김씨가 덧붙였다. 눈이 많은 날엔 특히 더



위험할 것 같았다. 취재팀의 경우 참으로 운이 좋았다고 할 수밖에.

얼마 후 김부래씨와 만났고 유쾌한 그의 성격 덕분에 방금 전 기억은 싹 잊어버렸다. 그러나 태백시가지를 지나 고목리 입구에 다다랐을 때 오르막 군데군데 빙판길이 나타나자 불안감이 되살아났다. 그나마 제설 작업이 돼 있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여기서 또 주르륵 미끄러움을 타며 황천길로 직행할 뻔했다.

아슬아슬 만항재에 도착하자 오전 10시. 태백시에 비해 정선군의 제설작업 속도가 더딘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 둔 것인지 도로엔 이미 눈이 발등 높이만큼 쌓여 있었다.

“스패츠를 차는 것이 어때? 나도 잔소리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차고 올라가야겠다.”

스패츠 착용이 귀찮아 슬쩍 배낭 속에 넣으려는 찰나 김부래씨의 눈에 딱 걸리고 말았다. 이 지역 전문가의 충고였으니 단번에 다시 밖으로 끄집어내 주섬주섬 산행 준비를 마쳤다. 이어 천천히 눈을 헤치며 도로를 따라 올라가던 중 김씨는 최근 이곳에 야생화단지 조성됐다고 하며 지금은 하얀 눈발인 만항재 인근을 연신 여기저기 가리켰는데, 사실 그것보다 꽃밭으로 변하기 전 고개 아래쪽에 있던 탄광촌 풍경이 더 궁금했다. 그래 김씨에게서 이런 깡촌에 흘러든 막장 인생들의 사연을 들어볼 수 있을

까 싶어 물어보니 과연 그의 이야기는 러셀하는 것 보다 몇 곱절 흥미로웠다. 그의 말인 즉, 1980년대 말 국립대 등록금은 약 50만 원 정도였고 사립대 등록금이 100만 원, 초보 건설 현장 막노동(노가다) 일당은 2만원(월 50만 원 정도), 그리고 짜장면 한 그릇이 1,000원쯤 됐다. 같은 시대 이 근방 탄광 근로자들의 임금은 월 40만 원 정도였고, 이는 현재의 대기업 수준 봉급이라 5년 안에 반짝 벌고 나가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와 고한, 사북, 태백은 꽤나 북적였다. 이들의 상당수가 돈을 물 쓰듯 했다는데, 관광버스 30대 정도를 보유했던 태백의 한 여행사는 매번 예약이 꽉 차서 적어도 한 달 전에 예약해야 겨우 바깥나들이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또 당시 90만~120만 원선이었던 오토바이의 소유주가 한 마을당 200명은 됐다. 동네 똥강아지도 지폐를 물고 다닐 정도로 물자가 많았지만 ‘탄광 돈은 햇빛만 보면 녹는다’라는 말이 나돌 만큼 이 지역 사람들 씹씀이도 꽤나 컸다.

태백선수촌 삼거리~함백산 구간 가장 힘들어

시간이 흘러 지역 광산들이 문을 닫게 되자 인부들 대부분이 서울의 지하철 공사현장으로 불려가 그들의 전공을 유감없이 살렸다는 일화까지 듣자 어느덧 태백선수촌 삼

- 1 함백산 정상. 함백산 신령님께 무탈산행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중이다.
- 2 태백선수촌 삼거리. 사진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선수촌이 나온다. 함백산 산행은 대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 3 함백산 정상에서 내려와 주목군락지로 향하고 있다.





1 2



- 1 주목군락지. 예전에 주목을 보호하기 위해 쳐놓은 철조망을 걷어 놓은 상태다.
- 2 함백산 정상 직전 오름길. 멀리 백두대간의 능선이 넘실댄다.
- 3 중함백 정상. 함백산을 이루는 봉우리는 상함백(은대봉), 중함백, 함백산으로 총 3개다. 북쪽부터 서열을 매기는 지역 관습에 따라 함백산 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은대봉을 함백산 큰 형으로 친다.



3

거리였다. 우리는 그대로 왼쪽 임도를 타고 올라 등산로에 접어들었으며 이내 눈이 발목까지 덮인 지점에 올라섰다.

“이건 제비쭉, 이건 각시쭉, 아이고 저건 노루오줌이네. 저건 붉은병꽃나무고!”

김부래씨는 앞이 다 떨어졌거나 쪼글쪼글 말라비틀어졌거나 상관없이 나뭇가지마다 어루만지며 이름을 불렀다. 그의 부름에 대답이라도 하는 양 시든 가지들이 몸을 부르르 떨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취재팀 모두 조용해졌다. 오르막이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김씨에 의하면 그곳이 함백산 코스 중 가장 힘든 구간이었다. 김부래씨는 이따금씩 멈춰서서 허리를 뒤로 꺾 펴고 동시에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렇게 걸음을 천천히 하니 전혀 힘들지 않았다.

이어서 신갈나무숲이 나왔으며 그 사이로 난 통나무계단을 통과하니 넓은 공터가 나왔다. 옛날 광산사무실이 있던 자리였는데 지금은 그저 산객들이 다리섬을 하는 작은 터에 불과했다. 다시 숲으로 들자 이번엔 돌계단이 나왔다. 경사도 더 급해진 바람에 등산로는 온통 취재팀의 헉헉 소리로 가득했다. 그것도 잠시, 신갈나무숲 끝 지점에 닿자 바람 때문에 나무의 키가 1m도 채 자라지 못한 관목지대가 나왔다. 그 위로 집채만한 돌무더기의 정수리가 올려다보이고 동서남쪽으로는 탄성이 절로 나올 만큼 빼어난 조망이 펼쳐졌다. 그러나

뒤돌아서서 구경조차 못할 정도로 세차게 불어대는 바람에 떠밀려 억지로 정상까지 한달음에 올라섰다.

정상석과 삼각점이 있는 바위턱에 올라선 후에야 제대로 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었다. 북쪽으로 중함백산(1,503.2m)과 그 뒤로 은대봉, 금대봉, 비단봉, 천의봉, 구봉산, 건의산, 덕향산, 두타산, 청옥산, 고적대로 이어진 백두대간이 한눈에 들어왔으며, 동쪽으로 매봉산, 천의봉이.

또 여기서 갈래쳐 대박등~우보산~백병산~면산~묘봉~삿갓봉을 거쳐 부산 다대포에 이르는 낙동정맥이 하얀 등허리를 드러냈다. 그런데 정상과 이어진 능선 끝에 흙바닥을 드러낸 스키 슬로프가 눈에 띄어 거슬리기도 했다.

“오투리조트에서 만든 스키 슬로프인데, 장사가 안돼서 가동을 안 시킨 거야. 사람이 하도 없어서 기다림 없는 논스톱이 가능하다고 하네.”

오투리조트는 강원도 태백시가 잇단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09년 조성한 대규모 휴양단지다. 그러나 계속된 경영난으로 수천억 원의 빚더미에 올랐다. 슬로프에 눈이 없는 건 운영비 적자로 인한 것이었고, 콘도는 경매에 나왔으며, 직원들 월급조차 밀려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멀쩡한 산이 파헤쳐진 채 방치되고 있었



은대봉으로 가는 길, 크고 작은 봉우리 4개를 지나서야 겨우 은대봉에 도착했다.



1 함백산 정상에서 내려와 헬기장 방향으로
가고 있다. 중함백과 상함백(은대봉)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2 함백산 정상 직전. 뒤로 만항재 임도가 뻗처럼
펼쳐져 있다.

으니 보기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망하는 일은 없었으면 싶었다. 그로 인해 폐광으로 인해 음울한 기색이 역력한 이 지역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으면 싶었다.

“골프장, 스키장 만드는 데 4천억이 넘게 들었대! 그 돈으로 다른 걸 했다면 어땠을까? 대규모 캠핑단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태백선수촌을 멋지게 지었다면 좀 나았을 텐데. 저 밑에 만항재만 해도 봄 되면 사람들이 북적인다고, 저기에 콘도가 있어 뭐가 있어. 야생화만 가득하지. 자, 태백시 좀 잘 봐달라고 함백산 신령님께 인사드리자고.”

난데없이 함백산 정상석을 향해 절을 올리는 김부래씨를 따라 그 앞에서 함께 고개를 숙였다. 진지한 김부래씨 때문에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마음속으로 빌지 않을 수 없었다.

하산길은 정상석 뒤편 북쪽으로 이어졌다. 올라왔던 길보다 눈이 많아 종아리가

지 빠지기 일쑤였다. 눈발을 구르다시피 내려가니 5분만에 임도에 닿았다. 가파른 산길을 종아리까지 쌓인 눈 덕분에 비교적 쉽게 내려왔다. 여세를 몰아 안부까지 내달렸다. 안부는 산등성이 덕분에 바람이 가려져 따스했다. 마침 우리 앞에 주목이 한 그루 있었는데 나무의 빈 공간은 공업용 우레탄이 메워져 있었다.

함백산 눈바람에 춤추는 주목들

“원래 여기 주목을 보호하려고 철조망을 둘러 댄적이 있어. 주목을 베다가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았단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 무엇보다도 이 백두대간의 중요성을 정부기관에서 인정했다는 게 아주 경탄할 만한 일이지. 그래서 혐오시설물인 철망을 회수한 거 아니겠어? 그런데 나무 안에다 저렇게 우레탄을 넣어 놓으면 물을 빨아들이기 힘들 텐데.”

주변은 주목 군락지였다. 하늘을 향해 괴하게 뻗어있는 나뭇가지들이 마치 춤을



추는 모양이라 음악만 있다면 바로 ‘산상 무용단’이 탄생할 듯했다. 그 모양을 흉내 내며 평탄한 능선을 내달렸는데 경박한 그 모습이 보기 싫었는지 능선은 눈구덩이 함정을 곳곳에 숨겨놓은 채 푹푹 빠지게 만들어 일행을 다시 암전한 상태로 되돌렸다. 게다가 곧 날씨까지 흐려져 취재팀은 쥐죽은 듯 등산로를 빠져나갔다.

그러던 중 우연히 어느 암봉에 올라섰는데 기가 막힌 풍경에 취재팀은 또다시 온산을 소란스럽게 했다. 우리가 본 건 고한읍 풍경. 백운산과 금대봉 자락에 푹 파묻혀 평평한 데라곤 찾아볼 수 없어 무척 척박해 보였다. 이 지방 사람들이 제 고장을 두고 하늘이 세 뺨박에 되지 않는 곳이라거나 닭이 울면 그 소리가 온 고을을 메운다거나 했던 말은 과장이라고 쳐도 실제로 앞산과 뒷산을 이어서 빨랫줄을 뿜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졌다. 이 지역과 더불어 바로 옆 동네인 사복읍은 오로지 탄광 때문에 생겼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다. 다시 산으로 눈을 돌려 새하얀 풍경을 마주하니 탄광촌의 삭막함은 금세 잊혀졌다.

“이를 어찌! 은대봉이 자꾸만 도망가.”

함백산을 이루는 봉우리는 공식적으로 3개. 함백산 정상과 중함백(1,503.2m), 상함백(1,442.3m)이다. 옛사람들은 백두산에서 시작되는 백두대간에 따라 북쪽부터 서열을 매겼다. 그래서 상함백이 큰형 대우를 받는 것인데, 어쨌든 이 큰형 얼굴 보기가 어찌나 힘들었는지 봉우리를 자그마치 4개나 넘은 뒤에야 은대봉 정상에 닿았다. 그동안 흐린 날씨는 눈으로 바뀌어 눈꽃산행의 대미를 장식했다. 여유만만 했던 산행은 여기까지였다. 하산길, 두문동재에 이르러 등산로가 끝나는 곳에 발이 닿자 눈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하늘에서 뚜껑을 열고 양동이째 들이붓는 듯했다. 우리는 들머리였던 만항재에 놓아둔 승용차 걱정에 발을 동동 굴렀으나 김부래 씨만은 천하태평이었다. 1960년대 말부터 김씨는 30년째 태백에 살고 있으니 이런 갑작스런 기상변화에도 면역이 된 게 분명

했다. 한 술 더 떠 김씨는 만항재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목인 정선군 고한읍 상갈래마을까지 약 6km가 넘는 거리를 걸어 내려가자고 고집을 피웠는데 아무래도 술 좋아하는 그가 취재팀 중 한 명을 탈진시켜 서울로 올라가지 못하게 발목을 묶어놓은 뒤 밤새도록 술등무 삼을 속셈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어쨌든 약 1시간만에 고한에 도착한 우리는 배낭 꼭대기와 머리, 어깨 등 신체 중 평평한 곳에 해당되는 부위마다 약 5cm쯤 되는 눈을 진 채 상갈래 삼거리 매점으로 대피할 수 있었다. 곧이어 우리를 만항재까지 데려다 줄 구세주가 도착했는데, 그는 바로 고한 토박이 산꾼 주춘옥씨였다. 그가 몰고 온 차는 10년 전만해도 고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은 비록 “부아양”하는 쉼 소리를 냈으나 “가자, 가자! 잘한다, 옳지!”하며 기운을 북돋워 준 일행의 응원 덕분인지 그새 험악하게 눈이 쌓인 만항재 임도를 거뜬하게 올려쳤다.

무사히 만항재에 도착해서도 김부래, 주춘옥씨는 여전히 태연했는데, 탄복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던 취재팀에게 김씨는 “한겨울 이곳에서 눈 때문에 차를 빠뜨린 사람들 100%가 외지인들”이라며 “이 지역 사람들 운전 솜씨는 여기서 종종 사람 구하는 데 쓰인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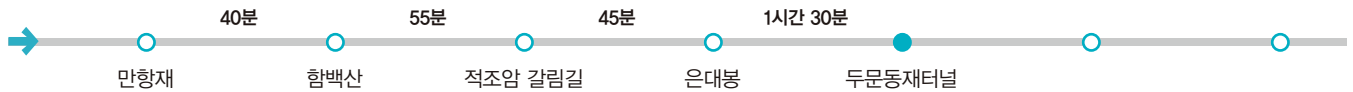


3

3 중함백에서 내려오면 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고한읍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4 은대봉 정상. 예전에 은대봉 아래쪽을 스키장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설이 있다.



4



함백산

소재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동

높이 1572.9m

난이도 ▲▲△△△

승용차 이용시 월동장비 철저히 갖추기

▶ 함백산은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경계를 이루며 백두대간 상에 솟아 남한에서는 해발 서열 6위의 산이다. 함백산의 이름은 산경표, 대동여지도에는 대박산(大朴山)으로 나와 있고, 그 외에 묘범산(妙梵山), 묘고산(妙高山), 수미산, 작약산, 한밭되, 한배달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지하에는 무진장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고, 5대 적멸보궁 정암사, 살아서 천 년 죽어서도 천 년 세월의 주목은 물론 해발 1,420m에는 스키, 골프 등을 즐길 수 있는 리조트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또한 산 정상까지 임도가 나 있어 쉬운 접근로 덕분에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 인기로 한 몫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만항재다. 남한에서 승용차로 오르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로 통하는 만항재는 개성의 만수산, 진본산에 살던 고려 유신들이 이성계의 녹을 먹지 않겠다며 이곳 함백산 기슭 두문동에 은거, 두문불출 생을 보내며 여기에 올라 개경 쪽을 바라보며 망향제를 올렸다는 전설이 있는 고개다. 그 망향이 발음하기 쉬운 만항이 되었다는 설과 함께 원래 이름인 늦은목이를 한자로 표기하면 늦을 만(晩) 자, 목 항(項) 자로 굳어졌다고 한다. 산행은 만항재에서 시작해도 좋으나 대개 태백선수촌 삼거리를 들머리로 삼는다. 만항재 산길 옆으로 임도가 나 있기 때문인데 만항재에서 산길을 타고 창옥봉(1376.3m)을 넘어서 무방하다. 이후 산길은 백두대간 길이 잘 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정표 등 시설물이 좋아 헤맬 곳은 전혀 없다.





교통

청량리역에서 고한역까지 무궁화호가 하루 7회(07:10, 09:10, 12:10, 14:13, 16:13, 23:15) 출발한다. 3시간 30분쯤 걸리며 요금은 14,300원. 고한역에서 만항재까지 택시로 이동할 경우 요금은 15,000~17,000원 정도 나온다.

고한·사북 공영터미널(1688-9923)에서 만항행 농어촌버스가 하루 2회(07:00, 19:20) 출발한다. 고한에서 정암사행 버스는 하루 4회(07:05, 10:20, 14:40, 19:00) 출발한다.

볼거리

태백·고한·사북 탄광촌의 오늘

한때 이 지역은 탄광 경기가 저물면서 민생이 도탄에 직면했었다. 이에 1995년 정부로부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 제정돼 몇 가지 방책이 2000년대 초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한에 생긴 카지노였다. 이것이 생기자 어느 정도 지역 경기에 핏기가 어리기도 했으나 그 폐해도 심해 이제 고한 토박이들은 진절머리를 낸다. 느는 것은 전당포와 유흥업소뿐이고 토박이들은 해체되고, 도시 자본 유입으로 땅값만 경중 올랐다는 것. 게다가 인심마저 시들어 이 지역 어느 곳에 가도 정겨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 스산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품고 있다.

그나마 고한은 같은 자리에 5년 전 문을 연 스키장 덕분에 외지 사람들의 의한 수입원이 생겨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만, 태백시는 얼마 전 시 예산을 들여서 세운 리조트가 경영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태백시 경기회복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이 지역 폐탄광촌을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가 불고 있어 또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호황기를 배경으로 한 강원도 탄광촌의 모습을 복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옛 탄광지역에 '탄광문화촌', '아트밸리'라는 테마형 문화공간을 조성하거나 예술가들을 불러 모아 쓸쓸한 마을 담벼락에 그림을 그려 넣는 등 각자 생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석탄유물 종합전시관** 동원탄자 사북영업소는 1963년에 문을 연 대표적인 민영탄광으로 총 5,100만t의 무연탄을 생산했다. 한때 동양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했으나 임금협상을 두고 생긴 노사갈등이 사북사태로 번진 1980년대의 아픈 역사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2004년 10월 31일에 문을 닫았다. 지금은 석탄유물 종합전시관으로 쓰이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전화 033-592-4333.

• **하이원리조트·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에 위치하며 숙박시설, 카지노, 골프장, 스키장 등의 위락시설을 갖추고 있는 종합 리조트다. 하이원리조트 스키장은 지장산의 정상에서 시작되는 초보자용 슬로프를 포함한 18면의 슬로프, 7기의 리프트, 3기의 곤돌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하늘길 등산로, 한정식 음식점인 운암정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 17, 전화 1588-7789.

• **탄광 이야기마을** 광산산업이 호황을 누리던 때 태백시 황지읍 황지 15, 16리 지역은 함태광업소, 풍전광업소, 동해광업소 광부들이 빼곡이 몰려 살던 곳이었다. 폐광의 여파로 광부들은 떠나고 지금은 400여명 남짓한 주민들이 살고 있다. 얼마 전 이곳에 광부들의 일상이 담긴 벽화가 그려지며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강원도 태백시 상장동 일대.

지도

5만분의 1 태백

1 함백산 정상에서 본 태백 오투리조트의 슬로프. 심각한 경영난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사북과 고한 일대에 큰 변화를 몰고 온 강원랜드의 야경. 3 태백시 상장동 일대에 생긴 탄광이야기마을.



SPIDER STOVE

스파이더 스토브

저중심·접이식의 안정적 설계
Anti Flare System 파이프 적용
고화력 스파이더 스토브



이그나이트 수동점화

접이식 받침대

www.kovea.co.kr

(주)비전코베아 TEL : 1588-5515



Season Special

눈꽃산행 겨울산행채비

지치기 전에 먹고, 추워지기 전에 입고, 땀 나기 전에 벗어라!

떠나기 전 · 장비 착용법 · 적설기 산행요령 · 겨울산의 위험과 방어 등

글 | 임성목, 윤성중 기자 사진 | 정종원, 주민욱 기자



사시사철,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 등산의 3원칙이다. 에너지의 생성, 보존, 절약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 원칙의 중요성이 가장 부각되는 시기를 꼽으라면 응당, 겨울 산이다.

등산의 3대 원칙이 있다. 생성, 보존, 절약의 원칙이다. “이게 뭐야?”라는 독자를 위해 이 3원칙 앞에 ‘에너지’ 자를 넣어보자! 에너지 생성은 등반 식량과 관련 있다. 에너지를 단기간에 낼 수 있는 고열량 식량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 보존 원칙은 모자와 의류 등을 이용한 체온유지 기술이다.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약 원칙은 효율적인 걷기와 배낭 꾸리기 등의 등반기술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원칙이다.

사시사철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 이 3원칙이다. 이 원칙의 중요성이 가장 부각되는 시기를 꼽으라면 응당 겨울 산이다. 다른 계절과 달리 겨울 산에는 추위, 눈사태, 강한 바람 등의 자연적인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위험 요소를 극복하는 것이 등산의 매력이다. 곤란함이 커질수록 성취감도 커지는 이치이다.

어느 유명 산악인은 어린 시절 겨울 산행을 통해 히말라야를 오를 수 있는 기술을 모두 깨쳤다고 했다. 눈과 추위라는 공통분모는 국내산과 히말라야가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럼 필자의 겨울산행 노하우를 전수한다. 수강료는 독자들의 안전산행으로 대신한다.

* 겨울산으로 떠나기 전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걷는 일은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한다. 이때 적절한 에너지 보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체온유지도 힘들어진다. 또 부실한 의복은 체온을 낮추는 데 일조하므로 겨울 산에서 체온유지는 가장 중요한 생존기술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지치기 전에 먹고 추워지기 전에 입고 땀 나기 전에 벗어라’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셋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저체온증에 걸리기 쉽다. 겨울 산에서 저체온증에 걸리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 이를 예방하기 위해 챙겨야 할 여러 준비사항을 알아보자.

1 보온과 방풍에 신경써라!

겨울산행 복장은 보온과 방풍에 주안점을 둔 제품을 고른다. 양말이나 장갑은 반드시 여분을 준비해 눈에 젖었을 경우 교체 착용한다. 등산화도 보온과 방수 기능이 좋아야 하고, 아이젠, 발라클라바(안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모자), 스파츠, 워킹용 스틱 등도 꼼꼼히 챙긴다. 동계용 운행구는 겨울 한 철만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다. 출발하기 전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 장갑은 여러 컬레를 준비할수록 좋다. 방수가 되는 겹장갑을 준비해 2겹으로 착용해도 무방하다.



■ 반드시 모자를 착용한다. 귀를 덮을 수 없는 보온모자는 별도로 귀가리개가 필요하다. 발라클라바가 없는 경우에는 넥게이터(버프)로 대체한다.



■ 우모복은 운행할 때 보다 휴식할 때나 막영지에 도착했을 때 제대로 된 위력을 발휘한다. 운행시에는 되도록 배낭에 넣어 두는 것이 좋다.



■ 뜨거운 물은 체온유지에 탁월하다. 물통은 보온 케이스가 따로 있는 것과 보온기능이 좋은 보온병 2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2 땀나기 전에 벗고 추워지기 전에 입어라.

산으로 들어섰다고 치자. 겨울산행 중에는 너무 많은 땀을 흘려 옷을 적시면 곤란하다. 젖은 옷을 오랫동안 입고 있으면 체온저하로 이어져 치명적일 수 있다. 그렇게 춥지도 않은 날 많은 옷을 껴입는 것은 과도한 땀 발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피한다. 또한 운행 중에도 더우면 장갑, 모자, 옷을 벗는 식으로 체온을 조절한다. 반대로 추위를 느끼기 전에 보온 의류를 입는다.

3 즉시 열량을 만들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하라!

가벼운 당일산행의 경우 보온병이나 도시락을 준비해 따뜻한 물이나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좋다. 겨울철 산행은 예상 외로 체력소모가 심하다. 탈진을 방지하려면 사탕이나 초콜릿 등 열량이 높은 간식을 준비해 수시로 섭취한다. 그리고 당일산행의 경우 1끼분의 비상식을 반드시 준비한다.

4 대상지 기후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라

대도시 시민들은 주말 당일산행으로 근교의 산을 많이 찾는다. 이런 경우,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산의 날씨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창문 밖을 내다보면 날씨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갈 경우, 미리 가고자하는 곳의 날씨와 산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등을 이용해 날씨를 확인한다. 전화(지역번호 + 131)를 이용하면 각 지역의 현재 날씨와 이틀 뒤 일기예보까지 알아볼 수 있다.



■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날씨검색이 가능하다. 산행계획이 잡혔으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5 자신의 능력에 맞는 코스 선택

겨울 산행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자신의 능력이다. 일반적으로 겨울의 낮 길이는 여름보다 3~5시간 정도 짧아 산행시간도 그에 맞춰야 한다. 게다가 악천후라도 겹치면 시계가 나빠져 길 잃을 확률이 높아진다. 등산로 상태도 나빠지기 때문에 산행속도는 더욱 떨어진다.

눈이 무릎 이상 쌓인 지역에선 운행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리한 산행은 곧 바로 조난으로 이어진다. 특히 초보자들은 당황해 쉽게 탈진할 수 있다. 산행은 오후 4시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6 적절한 장비 사용이 체력 소모를 줄인다

겨울 산행은 의외로 체력이 많이 소모된다. 운행 중은 물론 체온 유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이다. 얼어붙은 바위지대가 나타나면 우회로를 찾기보다 재빨리 아이젠을 착용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출발지점에는 눈이 없더라도 산정에 적설이 예상되면 미리 스패츠를 착용하고 산행을 시작한다.

배낭도 잘 꾸려야 한다. 수시로 꺼내야 하는 재킷, 덧바지, 장갑, 아이젠 등은 손이 닿기 쉬운 헤드나 옆주머니에 챙겨둔다. 보온도시락 등을 준비해 식사시간도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다. 쓸데없는 시간 지체는 체온을 떨어뜨리고 짧은 겨울날의 산행에 방해만 된다.

그리고 눈을 항상 접촉하는 겨울 산행의 특성상 장갑과 양말은 꼭 여분을 챙겨 동상에 대비한다.



■ 아이젠이 있으면 빙판으로 변한 산길을 비교적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다.



■ 스톱은 2개를 세트로 사용한다. 특히 심설산행 시 바스켓(날개) 없는 스톱은 매우 불편하다.

* 겨울장비 착용순서



겨울산에 오르려면 내복은 필수다. 장비점에서 파는 기능성 내의도 좋지만 '히트텍'이라고 하는 캐주얼용 저렴한 내복도 쓸 만하다.



겨울산에서 면바지, 청바지는 절대 금물이다.



내복 위에 얇은 겉옷을 입는다. 상·하의 모두 폴라텍 소재로 된 옷이 가장 적합하다. 폴라텍 소재 바지는 물에도 잘 젖지 않아 심설산행 때도 위력을 발휘한다.



폴라텍 소재의 등산바지, 겉옷 착용. 가볍고 보온성, 신축성이 좋은 것으로 고른다.

*폴라텍 : 미국 원단회사인 말덴사에서 만든 브랜드 이름이다. 겨울철 아웃도어 의류의 대명사로 통하는데 기능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보통 안감에 기모를 넣어 보온성과 착용감이 좋다. 방풍기능이 약해 겨울 산행시 이것만 입으면 부담이 된다는 게 단점이다.

겨울 산행 복장은 보온 유지에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혹한 자체보다 바람이 더 문제기 때문에 바짓가랑이, 허리춤, 귀, 목 부위 등 조금이라도 틈을 보였단 순식간에 체온을 빼앗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두꺼운 옷 한 벌 보다는 여러 겹을 껴입는 것이 좋다. 이를 보통 레이어링(Layering) 또는 레이어링시스템(Layering System) 이라고 하는데 아래 사진의 그 예다. 이 정도만 껴입으면 웬만한 겨울산에서도 끄떡없다.



바람막이 재킷과 바지를 입으면 방풍성과 보온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재킷의 원단이 고어텍스라면 금상첨화다. 등산화 또한 목까지 올라오는 중등산화가 좋다. 책에 실린 신발은 빙벽등반용으로 고가에 해당한다. 시중에서 10만원 대 고어텍스 중등산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도 겨울산에 가기에 충분하다. 머리에 쓴 바라클라바와 장갑 또한 필수다.



당일산행이라면 10~20L, 1박 이상은 50L 이상 배낭이 좋다. 스톡고 스파츠는 심설산행에 꼭 필요한 장비다.



스틱은 손목길이 아래에서 위로 끼워 손바닥으로 손목길을 감싸면서 스틱을 잡는다.

* 적설기 산행요령



■ 눈 쌓인 산에서 러셀 증인 한 등산인. 겨울산에서의 보행법은 일반적인 산행법과 다르다.

■ 스노슈즈를 이용해 설상 보행 중인 등산인들. 설피는 넓고 광활한 설원지대에서 사용하기 안정적이다.



눈이 새하얗게 쌓인 설산을 종주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설레는 일이다. 그러나 심설종주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일 예상치 못하게 날이 푸근해져 녹은 눈이 옷과 등산화에 적신다면 눈은 한겨울의 강추위보다 더 위험한 요소로 돌변한다.

이런 적설기 산행에서는 운행요령도 다르다. 눈의 상태에 따라 걷는 방법에 변화를 줘야 체력소모를 줄일 수 있다. 눈사태 예상지역에 대한 철저한 파악도 필수다. 적설기 산행방법과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산행계획 후 장비 점검

산행을 떠나기 전 운행계획을 세우는 일은 적설기 때 더 철저히 세워야 한다. 사전에 가이드북이나 지형도 등을 이용해 코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해당 지역 날씨를 확인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눈이 무릎 이상 쌓인 지역에서는 운행속도가 평소의 반도 안 된다. 오르막에선 더 심할 뿐 아니라 전진마저도 어렵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우회로나 탈출로를 미리 숙지한 후 산



행을 하면 안전하다. 우회로가 없다면 무리하지 말고 미련 없이 돌아서는 것이 좋다. 적설 기에는 안전한 곳을 낚씨가 좋은 때 여유 있는 일정으로 답사하는 것이 좋다. 또 산행은 해가지기 1시간 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적설기 산행에는 등산용 스틱, 설피, 산악스키 등을 이용하면 훨씬 쉽게 운행할 수 있다. 스틱은 끝의 바스켓을 대형으로 교체, 눈 속에 깊이 박히는 것을 방지하며 양손에 하나씩 2개를 이용해야 균형유지가 용이하고 하중 분산효과 덕을 볼 수 있다.

설피는 눈에 빠지지 않도록 신발 위에 덧신는 운행구다. 우리나라의 전통 설피는 잡목이 많은 숲에서도 쉽게 움직일 수 있으나 스노슈즈라 불리는 서구의 최신 설피는 아무래도 깊은 신설용이라 좁은 숲길에서는 불편하다. 아무튼 둘 다 넓고 광활한 설원에서는 안정맞춤인 설상운행장비다.

산악스키는 산을 오르내릴 때 쓰는 등산용 스키로 서구에서는 대표적 설상운행구로 꼽는다. 그러나 나무가 많은 국내산에의 스키 활강은 아무래도 어렵다.

러셀방법

설상운행시 깊은 눈을 헤치며 걷는 기술을 러셀이라고 한다. 눈이 깊게 쌓인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기술을 많이 쓴다. 체력소모가 많기 때문에 팀 단위로 돌아가면서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 설사면을 단숨에 치고 오르려다가 제 페이스를 잃게 되면 더 이상 산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허리까지 차는 심설은 무릎을 이용해 앞의 눈을 여러 차례 다진 다음 그 위에 발을 딛는다. 이 때 체력소모를 막기 위해 한 걸음 전진할 때마다 한쪽 다리를 눈에 기대고 쉬는 방식을 사용한다. 눈의 저항을 이용해 몸에 걸리는 부하를 줄이는 요령이다. 러셀할 때는 수시로 선두를 교대해 한 사람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한다.

킥스텝 · 플런지스텝 · 글리세이딩

표면이 단단하게 굳은 급경사 사면은 킥스텝(kick step) 방식으로 오르는 것이 편하다. 발끝으로 공을 차듯 눈에 등산화의 박아 넣어 고정시키는 것이 요령이다. 눈을 찰 때는 다리의 힘을 빼고 발과 등산화의 무게를 이용해 스윙한다.

플런지 스텝(plunge step)은 단단한 설벽을 걸어 내려올 때 발뒤꿈치로 눈을 힘 있게 찍어 내리며 걷는 기술이다. 다리와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고, 가능하면 수직에 가깝게 몸을 세우는 것이 요령이다.

글리세이딩(glissading)은 설사면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기술이다. 숙달되기만 하면 가장 빠르고 재미있게 하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기술의 사용여부를 고려한다.

글리세이딩을 할 때는 자신이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의 스피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젠을 신은 채 글리세이딩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 1 완만한 오르막은 등산화 앞부분 안쪽 엣지에 체중을 실는다.
- 2 급경사는 무릎을 지지점으로 해서 등산화 무게를 이용, 스윙하듯 앞꿈치로 조금 강하게 찬다. 보통은 수평으로, 단단한 눈은 뒤꿈치를 올려친다.
- 3 앞발을 차고 바로 뒷발을 가볍게 스윙하듯 위를 차면서 연속동작으로 신속히 올라간다. 보폭을 적게 해야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다.
- 4 내려갈 때는 스틱이나 피켈에 의지하면서 뒤꿈치 엣지에 체중을 실는다. 수평보다 앞꿈치가 약간 올라가게 내려 딛는다.
- 5 횡단시 산측 발은 바깥쪽, 계곡측 발은 안쪽 엣지에 각각 체중을 실는다. 발은 수평으로 하고 계단에 서듯 위, 아래에 두어야 균형이 잡힌다.

■ 글리세이딩 중인 등산인.



* 겨울산의 위험과 방어



■ 겨울산 중주를 위해 중무장한 분지 필자들.
왼쪽부터 태백주재기자인 김부래씨,
일본 100명산 저자인 우제봉씨, 단골 게스트
탈런트 임호씨.

겨울산은 바람, 습기, 한기와와의 싸움이다. 모든 등산장비의 기능은 여기에 맞추어져 있다. 세 가지 위험요인 중에서 바람을 강조하는 것은 초보자들은 바람의 위험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강추위에 바람까지 불면 아무리 감싸더라도 신체 일부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한 손, 발, 귀의 피부나 피하조직이 손상되어 조직괴사에 이르며 결국 동상에 걸려 절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바람에 의한 보온대책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바람에 의한 체감온도=신체 작용온도(표)

(단위 °C)

기온/바람세기	초속 4m	초속 8m	초속12m
0	-5	-12	-16
-5	-11	-19	-23
-10	-17	-25	-31
-15	-23	-32	-38

동상의 예방과 치료법

산행 전 예방으로는 비타민E를 많이 섭취하고 동상에 걸리기 쉬운 부위에 혈행촉진제를 바르는 것도 좋다. 주로 발이 문제인데 등산화와 양말의 선택에 신경을 써야한다. 등산화는 방수와 보온은 물론이고 양말 2벌(중간두께)을 신고 앞꿈치가 여유 있는 사이즈를 선택한다. 양말은 산행중에 바꾸어 신기 어려우므로 속건성이면서 보온력이 높은 겨울용을 신고, 반드시 예비양말을 준비해야 한다. 발에 동상 징후가 느껴지면 발끝을 계속 꼬지락거리서 피가 돌고 마찰열이 나게 한다.

손의 경우 장갑 속이 젖지 않도록 하고, 만약 젖으면 속히 예비 장갑으로 갈아 낀다. 혹한 시에는 ‘핫팩’ 같은 주머니발열체를 장갑 안에 넣으면 좋다.

귀와 코는 보온천으로 가려주고 노출된 안면 피부는 동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원들끼리 서로 관찰한다. 안면부의 초기 동상은 피부가 하얗게 되거나 검푸르게 변하므로 손으로 마찰하여 피부온도를 높인다. 목출모(발라클라바)가 없더라도 벵게이터로 안면부는 보온할 수 있다.

동상의 증상은 총 3단계로 나눈다. 1도는 붉게 붓거나, 피부는 그대로면서 피하조직이 동결해버려 감각이 없어진다. 2도는 환부가 희게 변하며 열이 나고 부으면서 하얀 물질이 생긴다. 3도는 수포에 피가 섞여 자색이 된다. 그리고 괴사한 조직은 검게 변하면서 미라처럼 말라붙는다.

어떠한 경우든 치료방법으로는 먼저 손상 받은 부위를 압박하는 옷, 양말, 구두 등을 벗

■ 동상은 근육이 없어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는 손과 발, 귀, 코에 잘 생긴다.



기고 환부를 보온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40~42℃의 물에 손상 입은 부위를 담귀 최소한 20~30분 동안 급속하게 보온해 주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저체온증...신속한 응급처치 필요

저체온증(하이포서미아)은 바람, 비, 낮은 기온뿐 아니라 심한 피로나 영양 부족,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에 체온이 정상(36.5℃)보다 낮아질 때 생긴다. 일행 중 누군가가 증상을 보였을 때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환자의 열손실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 즉, 바람과 습기의 차단,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수분과 당분을 보충한다. 따뜻한 물을 먹이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환자의 몸 전체를 지속적으로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현장에서 체온을 회복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뜨거운 물병을 양말이나 장갑에 싸서 환자의 목, 겨드랑이, 가랑이 사이에 끼우고, 침낭 속에서 몸이 따뜻한 다른 대원과 신체접촉을 하고 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저체온증은 본인이나 동료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하게 그러나 급속히 악화된다.

체온별로 본 저체온증 증상(표)

체온(℃)	증상
37	정상 경우의 구강 내 평균체온
35	몸의 떨림 현상이 나타나고 사고능력이 떨어진다
34	지속적인 운동(걷기)을 할 수 있는 한계 체온
33~31	의식이 몽롱해지고 혈압 측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30~28	의식이 없다. 근육이 경직된다. 호흡, 맥박이 약하다
27	죽은 사람 같다. 흔들거나 동공반응, 무릎반사가 없어진다
24~21	폐수종이 진행된다
20	심장이 정지한다

눈밭에서도 선크림 필수

선크림을 구입할 때는 자외선 차단지수인 SPF(Sun Protection Factor)가 15 이상이면 된다. SPF15란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15배 오래 햇볕에 있어도 된다는 뜻이다. 선크림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미리 바른다. 땀에 의해 지워지므로 주머니나 배낭 윗부분에 넣었다가 자주 발라준다. 눈밭에선 땅에서의 반사햇볕까지 차단해야 하므로 모자를 썼더라도 턱밑, 코밑, 귀 전체, 목 등 노출된 모든 피부에 바른다.

이를 간과한 후 피부를 눈밭에 3시간 정도 노출시킬 경우 흐린 날에도 눈에 반사되는 빛이 강해 살이 금방 탈 수 있다. 이후 피부가 벗겨지거나 심하면 물집까지 생길 수 있다.

국내 눈사태 위험지역은 어디?

만년설이 없는 우리나라의 산악지역에서는 대부분 폭설이 내린 직후에 눈사태가 발생한다. 급사면에 쌓인 많은 눈이 미끄러져 내리거나 눈처마(커니스) 붕괴가 전형적인 눈사태의 유형이다.

우리나라의 눈사태 발생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설악산 토왕골과 죽음의 계곡, 천불동 오리폭 부근, 공룡능의 1275봉 남쪽 사태골 등이 대표적인 눈사태 다발지역이다. 한라산의 용진각대피소 서쪽 사면 장구목도 눈사태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다. 이런 눈사태 요주의 지역은 폭설이 내린 직후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 선크림 구입 시에는 자외선 차단지수(SPF) 15 이상임을 확인해야 한다.

■ 토왕골 Y골 전경. 전형적인 눈사태 다발지역이다.





날카로운 고드름보다 더 예리한 눈빛이 빙벽에 쏙힌다.
이 삭막한 계절을 기다리며 갈고 닦은 쇳덩이들이
어디에도 발 디딜 곳 없는 뻘질한 얼음벽을 난도질한다.
얼음보다 차가운 정열이 수직빙폭에 작렬한다.

Ice Climb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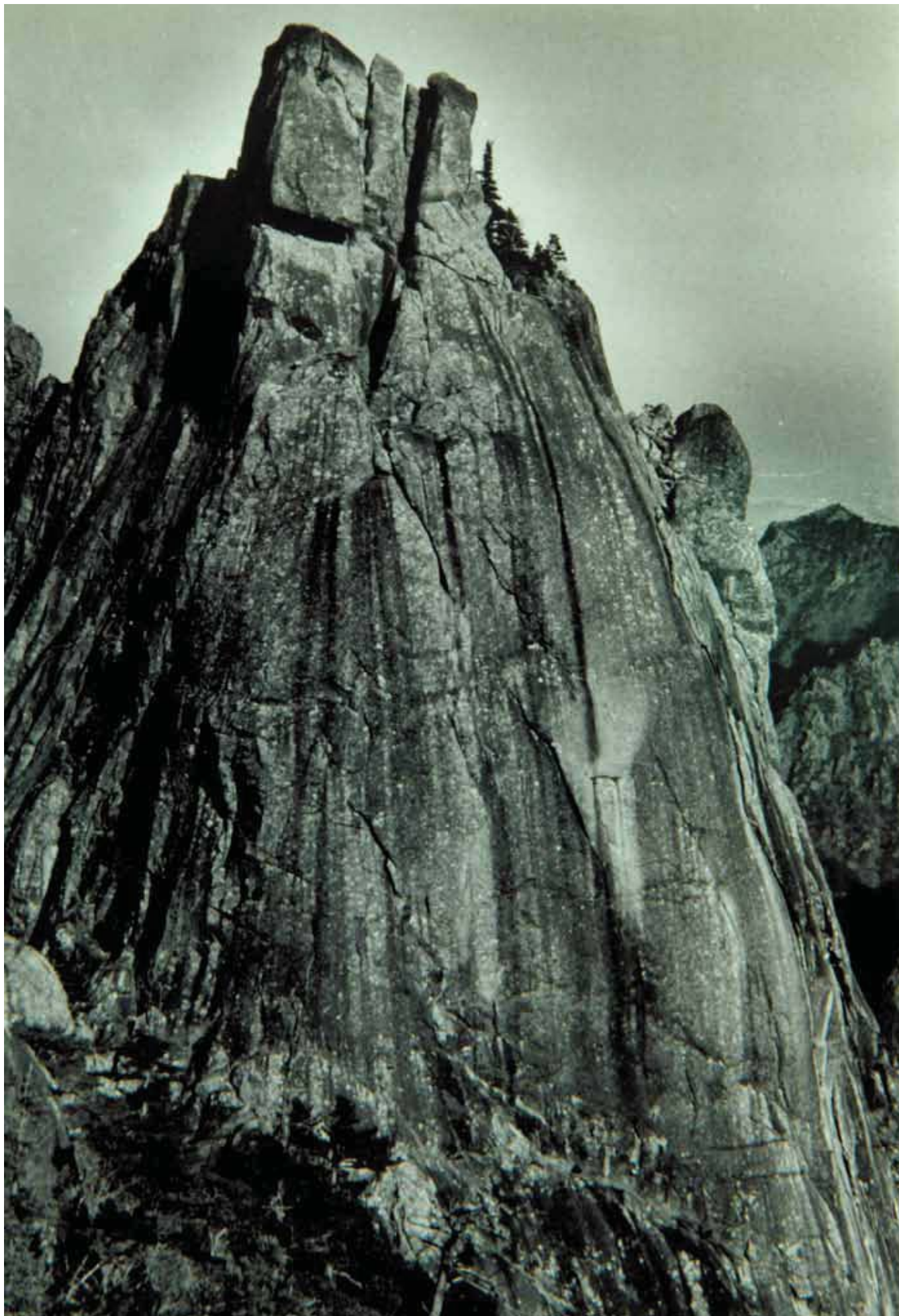


왼쪽 등반자 문성욱, 설악산 토왕성폭포,
오른쪽 등반자 박희용, 설악산 소승폭포.



왼쪽 등반자 한정희, 설악산 소승폭포.
오른쪽 등반자 유경호, 경기도 양주시 가래비폭포.







오른쪽 페이지 **오버행 등반** 허공에 매달린 등반자의 모습에서 전율을마저 느끼지게 하는 오버행 등반은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이 필수이지만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을 더욱 요구하게 된다. 오버행등반은 흔히들 등반 중의 등반, 등반의 꽃이라고 말한다. 1995년 9월 북한산 인수봉 귀바위.
 왼쪽 페이지 **천화대의 꽃 범봉** 그 생긴 모양이 마치 공룡의 용숫음치는 힘차고 장쾌하게 보인다고 해서 공룡릉이라 불린다. 이 능선에 우뚝 선 봉우리 천화대의 꽃 범봉의 위용. 1976년 11월.

故 이훈태



1940년에 태어나 전북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전북일보 사진기자로 신문사 진계에 입문했다. 전북대학 산악부 창립멤버이자 악우회 회원이기도 한 그는 일본 알프스(1975), 알프스 아이거 북벽(1979), 소련 엘부르즈 산악캠프(1989), 낭가파르바트 원정(1989) 등으로 해외 고산의 웅장한 모습을 국내 산악계에 생생하게 전달해 주기도 했다.
 1982년 한국경제신문 사진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서울시산악연맹 이사, 등반기술위원장 등으로 있으면서 등반과 산악사진에 매진해 왔다. 40여 년 간 산악사진을 찍으면서 수차례의 산악사진전을 연 바 있으며, 본지 편집인 이자 한국산악사진가회 회장으로도 활동했다. 자병으로 2012년 11월1일 타계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 추모전을 마련했다.



위 배트는 정신력 강화의 수단 1960~70년대 일부 산악회에서는 회원들의 나태한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구실로 가끔 배트가 등장하여 선배들의 위엄을 과시하기도 했다. 산은 항상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어 무엇보다 정신무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 1975년 5월7일 촬영.

아래 커피 한 잔의 위로 후배가 건네준 따뜻한 한 잔의 커피로 몸을 녹이고 있다. 1988년 8월 20일 약우회 파키스탄 카라코람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원정대 장용일 대장(가운데)은 등정하고 하산하던 중 불행하게도 타계한 불운의 클라이머가 됐다. 1986년 1월 촬영.

오른쪽 침니 등반 흑과 백의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자유인. 그것은 용기있는 자의 특권이다. 북한산 인수봉 우정B 침니 구간을 오르고 있는 윤대표씨. 1974년 10월.

오른쪽 페이지 빙벽의 도전 한국의 대표적 클라이머 윤대표(약우회)씨가 운악산 무지개빙벽에서 당시 새로 도입된 프론티어인팅 기술 등반을 역광으로 촬영, 실루엣 효과를 나타냈다. 1982년 2월 촬영.





Outdoor Exploring

익스트림 아웃도어 레포트 산악스키

눈이 내리면 내 심장이 뛰다

올라간 만큼 내려오는 정직한 스포츠

글 | 양승주 기자 사진 | 주민욱 기자 협찬 |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눈 언덕을 밟진 턴으로 미끄러지고 있다.



스키어 두 명이 스키를 신고 스키폴을 움켜쥔 채 눈 쌓인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스키 바닥에 뭐가 붙어 있는지는 몰라도 가파른 언덕을 미끄러지지 않고 잘도 오른다. 심지어 스키 부츠 뒤축은 지렛대처럼 오르락내리락 한다. 언덕을 다 오른 스키어 둘은 함께 멋진 턴과 점프를 선보이며 내려왔다. 바로 산악스키였다.

프랑스 샤모니 지역에 국립스키등산학교가 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스키와 등산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해외 영상물에서나 보는 최고 난이도의 활강 장면이 산악스키의 전부가 아니다. 등산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산악스키는 이미 우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

앞에 등장한 두 명의 산악스키 마니아 중 한 명은 바로 김민욱씨. 한국체육대학 재학 중 스키를 처음 배웠고, 해병 특수 수색대에서 동계 훈련을 받던 중 산악스키의 매력을 깨달았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 휘슬러 파크에서 6개월간 집중적으로 공부해 국제스키강사 자격증을 따냈다.





- 1 스키를 신고 언덕을 오르자, 존이 앞서가고, 김민욱씨가 뒤이어 오른다.
- 2 “야호!” 빠른 속도로 활강하는 두 사람.
- 3 어디로 내려가는 게 좋을지 적당한 루트를 찾고 있다.
- 4 여유롭게 스케이팅 모드를 즐기는 존의 뒷모습.



한때 그는 테니스장이 속했던 ‘아메리칸 탑 팀’에서 활동하며 이중격투기 시합에도 나갔을 정도로 모험과 도전을 즐기는 삶을 살고 있다.

다른 한 명은 존 그룸(John Groom)이다. 그는 얼마 전까지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 눈사태 예방국 감독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대한산악연맹 눈사태예방 외부강사다. 그의 차에는 언제나 스키폴에 붙여 사용할 수 있는 톱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언제나 눈을 잘라보고 눈사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위험이 감지되면 적당한 곳에 다이내마이트를 설치해 폭파함으로써 눈사태 위험을 제거시키는 일을 미국에서 했다.

위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산악스키를 즐기는 사람 중엔 산악스키를 타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반해 타기 시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내외영상을 통해 산악스키를 접한 후 배우기 시작한 이도 있다. 산악스키의 매력에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평일에도 퇴근 후 눈이 있는 곳으로 다시 출근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 간혹 마약과도 같다는, 분설(粉雪)에서 즐기는 파우더 스키(Powder Ski)를 체험한 경우라면 열혈 산악스키 마니아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손바닥 위에 눈을 올리고 입으로 바람을 불면 모두 날아갈 정도로 건조한 눈이 쌓인 곳에서 타는 것이 파우더 스키다. 새하얀 눈가루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는 굉장한 희열을 느낀다고 한다.

스키를 타고 자연 속으로

김민욱씨에게 스키를 타는 이유를 물었다. 디테일한 느낌이나 마니아적인 기술과 관련한 답변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기대와 달랐다.

“스키 자체도 즐겁습니다만 산악스키를 통해서 자연을 느낀다거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스키를 탄다는 식으로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합니다. 파우더 스키는 적설량이 많아야지 탈 수 있고, 국내에 그러한 환경을 갖춘 곳이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악스키를 즐길 수 없다는 말은 아니죠. 사실 산악스키를 즐길 때 적설량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숲을 가로지르거나 양떼목장과 같은 곳을 스키로 올라가고 내려오다 보면 우리나라의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죠.”

실제로 이러한 산악스키 투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뜨겁다. 산악스키강사로 활동하는 그는 작년보다 수강생이 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인기강사를 자처하는 그의 입에서 사뭇 현실적인 산악스키 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기본기술을 익힐 수 있어요. 해외에서만 산악스키를 탈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해요. 지금 국내에서도 산악스키를 배우고 가르칠만한 곳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요. 해외로 나갈 때 드는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좋죠.”

덕유산, 대관령, 한라산, 용평 안반데기 등이 산악스키를 타기 좋



1 몸이 풀렸는지 존이 다이내믹한 동작을 구사한다.
2 해가 지고 근처 스키장으로 이동해 남은 시간을 보낸다.



은 곳이다. 그리고 울릉도는 산악스키를 배울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장소 중 하나로 손꼽힌다. 섬 전체가 산악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인 울릉도에서 매년 산악스키 대회와 축제가 열리고 있다.

“지금 5대륙 최고봉을 산악스키로 오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산악스키의 진짜 재미를 알리고 싶어요.”

스키가 내 삶 속으로

“3살 때부터 스키를 탔어요.” 존이 말했다.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스키를 탔는지, 혹시 스키를 처음 탔을 때의 느낌을 기억하는지 물어봤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스키장에 갔죠. 하지만 워낙 어렸기 때문에 기억은 잘 안 나요. 한 달 전에 제 아들은 용평 스키장에서 태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스키를 탔어요. 물론 제가 가르쳤죠. 한국에서 스키를 가르치면서 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나라마다 다양한 스키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경험이 아들 녀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존이 태어나고 자란 아이다호 주는 미국 북서부에 위치해 있다. 미국 내에서도 스키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곳이다. 그리고 존은 그 아이다호 주의 눈사태 예방국에서 일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눈사태가 일어날만한 구역을 발견하면 그 위험 지역으로 직접 가서 다이내마이트를 설치해야 한다. 이 때 산악스키를 타고 위험한 곳을 돌파해야 하기 때문에 존이 최상급의 산악스키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현재 인천 송도에서 살고 있다. 자연 속에서 살던 사람이 도시에서 살기 갑갑하지 않을까 궁금했다.

“부인이 국제학교 교사입니다. 부인의 직장을 따라서 한국에 온지는 일 년 반 정도 됐죠. 제 고향은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송도는 정말 깨끗한 도시예요. 마을과 도시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다른 경험을 한다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대한산악연맹 눈사태 교육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간 외국에 가야 할 수 있었던 자격증을 이제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행복해요.”

대한산악연맹 산악스키위원회에선 산악스키 지도자강습회를 포함해 각종 산악스키 관련 교육과 행사를 열고 있어, 미국에서 온 존에게도 기회와 왔던 것이다. 한국의 눈사태는 대부분 설악산이나 한라산에서 일어나며, 한번 일어났던 곳에서 재발하기 때문에 산악스키를 타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보다 눈사태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한국의 산이 궁금하다는 존은 김민욱씨처럼 울릉도를 좋아한다고 밝혔다. 울릉도에서 산악스키를 타고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 그는 울릉도를 매우 특별한 섬으로 생각하고 있다. 존에게 아홉도어는 삶이며, 그는 한국에서 또 다른 모험을 준비하고 있다.



3

- 3 과감한 점프를 시도하며 스릴을 만끽한다.
4 이번엔 스키 부츠로 언덕을 오른다.



4


산악스키를 즐기는 방법들

스키의 발상지 북유럽은 완만한 지형으로 인해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투어링 스키가 발달했다. 이러한 스키의 형태가 알프스로 넘어와 산악스키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던 것이다. 산악스키는 19세기 말부터 알프스 산악지역에서 가장 효율적인 등반 수단이었으며, 당시에는 스키를 이용하는 등반가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초창기의 스키는 활강기능만큼이나 등반기능도 중요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모토 아래 무동력 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산악스키는 스스로의 힘으로 산에 올라 무동력으로 활강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순수한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선 스키 여행 관련 영상을 아름답고 미적으로 기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깎아지른 절벽에서 빠르게 활강하는 스키어의 모습은 보고만 있어도 온몸을 전율케 한다. 하지만 정작 그 영상에서 주목할 점은 여행, 어프로치, 워킹, 캠핑, 스키와 같은 아웃도어의 모든 요소가 영상에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다. 한 단어로 정의하기 힘든 그 활동을 위해 그들은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다음 달에 스키 투어 한 번 하시죠! 진부령, 대관령, 덕유산, 울릉도, 한라산 어디든 좋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앞서 이야기한 스키 영상을 직접 보여준 김민욱씨가 활기찬 목소리로 제안했다.

이번 겨울,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산악스키가 눈앞에 나타났다! 

Ski Mountaineering Tip

▶ 나에게 맞는 산악스키 선택법은?

먼저 자신이 관심 있는 산악스키 스타일을 알아야 합니다. 산악스키에는 일반산악스키와 산악스키 레이싱 있습니다. 일반산악스키에 관심이 있다면 장비가 조금 무겁더라도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안정감이 있는 산악스키 장비가 좋습니다. 경기 위주의 산악스키 레이싱에 관심이 있다면 가벼운 산악스키 용품이 좋습니다. 한 번 구매하면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과 안목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악스키 타기 좋은 곳은?

대관령 _ 서울 근교에서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넓게 펼쳐진 개활지에서의 스키를 타며, 소황병산과 선자령 일대의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볼 수 있습니다. 황병산 일원에서 캠핑을 하며 산악스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캠핑을 하지 않고 강원도의 다른 산들로 이동해 산악스키를 즐기기도 합니다.

울릉도 _ 제일 눈이 많이 쌓이는 곳의 높이가 10m에 가까운 뿐만 아니라 파우더 형태의 눈이 있어 스키를 즐기기에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화산섬인 이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환상적인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로 이동하기 때문에 겨울에 울릉도로 산악스키를 타러 가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울릉도에서 산악스키를 즐기려면 최소 3박 4일이 소요됩니다.

한라산 _ 2m에 가까운 파우더 눈이 있어서 산악스키의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판악 코스, 관음사 코스, 영실 코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대한산악연맹을 통해 산악스키 훈련 등의 이유로 허가를 받아야 산악스키의 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 산악스키 어디서 배우죠?

대한산악연맹 산악스키위원회에서 매년 겨울마다 산악스키 강습회를 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초급, 중급, 상급으로 구분되고, 각자의 실력에 맞게 산악스키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문의 대한산악연맹 02-414-2750



올 겨울 투어 스키 한 번 어떠세요?

타입별 투어 스키 시나리오

+ 바쁜 직장인을 위한 1박 2일 코스

토요일 오전 대관령으로 바로 달릴 수 있도록 차에 스키장비를 미리 실어놓는 센스가 필요하다. 주중에 눈이 많이 내렸다면 금상첨화. 점심때가 될 즈음 횡계에 도착할 것이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구 대관령 휴게소로 이동해 장비를 착용한다. 3~4시간 정도 자유롭게 산악스키를 즐긴다. 이후 황병산 일대에서 캠핑을 하며 자연을 느끼는 것도 좋다. 아직 스키에 미련이 남았다면 강원도 다른 지역에서 산악스키를 더 즐기면 된다.

+ 연인을 위한 2박 3일 한라산 코스

김포공항에서 제주도행 비행기를 탄다. 제주공항에 도착하면 예약해둔 숙소로 이동해 커플끼리 오붓한 시간을 갖는다. 이튿날, 아침을 든든히 먹고 아웃도어 느낌이 물씬 나는 차를 렌트해 성판악으로 이동한다. 3시간 정도 성판악을 스키로 오른다. 조금 힘이 든다 싶으면 미리 준비해온 샌드위치를 꺼내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쉰다.

이후 한라산 정상 백록담까지 올라 멋진 풍경을 감상하도록 하자. 이곳에서부터 1시간 30분정도 스키 활강을 맞본다. 성판악 주차장까지 내려오면 2일째 일정이 마무리된다. 스키 여행 마지막 날, 취향에 따라 관음사코스나 영실코스를 선택해 전날처럼 스키 등반과 활강을 반복한다. 공항으로 이동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 도전적인 스키어를 위한 3박 4일 울릉도 코스

오전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각, 포항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울릉도행 여객선을 탄다. 1시쯤 울릉도에 도착해 점심을 먹고 숙소로 향한다. 짐을 풀고 다음날 일정을 점검하거나 해안 트레킹 코스를 걷는다. 체력 보충을 위해 휴식을 취해도 좋다. 다음날 오전 9시 스키 등반을 시작해 3시간쯤 걸어 말잔등에 오른다. 1시간 30분정도 스키 활강을 한다. 셋째 날에도 이제는 익숙해진 말잔등을 다시 오른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코스로 내려온다. 마지막 날은 비교적 가벼운 코스를 선택해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스키 등반을 한다. 30분쯤 가볍게 스키 활강을 즐기고 숙소로 돌아온다. 오후 3시, 포항행 여객선을 타고 투어 스키의 명소 울릉도를 뒤로 한 채 육지로 돌아온다.

● Profile



김민욱

2010~2012년 스포츠모험여행사 운영
2009~2010년 일본 홋카이도 산악스키 연수
2007~2008년 캐나다 휘슬러 산악스키 연수
2005년 한국체육대학교 안전관리학과 졸업



존 그룸 (John Groom)

2012년 대한산악연맹 눈사태예방 외부강사
2000~2010년 미국 아이다호주 눈사태예방감독

Book In Book


Climber

MAGAZINE

유학산 학바위
신불산 아리랑 리지
클라이머 김동수
백인섭의 개척시대

Climbers 아디다스 클라이머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악회 OB 김동수

“내가 아닌 나로서 사랑받기보다, 나인 나로서 미움 받겠다”

글 | 윤성중 기자 사진 | 강레아 기자 협찬 |  아디다스

인수봉 고독길을 등반 중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악회 OB 김동수씨. 그의 목표는 70세까지 암벽벽을 선등하는 것이다.



K I M D O N G S O O

위 김동수씨는 단독등반을 즐긴다. 그 뉘앙스가 참으로 고독하지만 그가 단독등반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순도 100% 자기 자신과 만나는 것이다.

오른쪽 이날 고독길은 험했다. 평상시라면 쉽게 넘었을 벽에 눈이 달라붙어 사투를 벌이듯 해야 했다. 벽이 사뭇 위험적이었지만 혼자 등반할 때의 공포와 외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김동수씨는 침착하게 등반을 이어갔다.



전날 폭설로 인해 온통 흰색으로 덮인 산봉우리. 바람이 멎은 고요한 그 위에 서니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정적 속에서 코앞에 솟은 인수봉이 눈에 비쳤다. 특히 아가리를 벌려 검은 속을 내보이는 커다란 크랙이 시선을 끌었다. 목을 옷깃 안에 파묻은 채 잔뜩 움츠러든 자세로 몇 분 기다리니 아래쪽에서 사람들이 올라왔다.

원래는 김동수(55세,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악회 OB)씨가 저 벽을 단독으로 오르기로 했었다. 그의 경력을 익히 들은 바가 있어 요청한 터였다. 김씨는 대학교 4학년 때 인수봉 비둘기길에서 첫 단독등반 후 인수와 선인에서 줄곧 혼자 바위를 탔다. 그러다 1982년 후배 허훈과 요세미테 하프돔 북서 레귤러(North-West Regular) 루트와 엘 캐피탄 살라테일을 등반했고, 약 10년 뒤인 1993년에는 히말라야 피상피크(6,901m)를 등정했으며, 여세를 몰아 이듬해 페루 안데스 예루파하(6,634m)에 도전했으나 실패한다. 그리고 2004년 개교 50주년이자 외대 산악회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엄홍길 대장과 떠난 알롱캉(8,505m) 원정을 마지막으로 해외원정은 잠시 끊었다.

화려한 이력은 아니지만 까무잡잡한 그의 얼굴에서 풍기는 포스는 내로라하는 국내 어느 산꾼의 간판보다 더 위력 있어 보였다. “첫 얼음에 쓰려고 크램폰과 아이스툴을 칼같이 갈아 놔는데, 이런 데서 쓰게 될 줄이야!” 인사를 대신한 그의 외침 속에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거대한 인수봉 앞인데도 일말의 긴장과 두려움은 담겨 있지 않았다. 안전을 고려해 단독등반을 재고한 후 코스도 고독의 길로 변경한 취재팀만 머쓱해졌다.

그의 운명을 바꾼 숫자 ‘19760331’

그는 충청남도 당진 출신이다. 5남매 중 장남이었으며 시골 아이 치곤 공부를 잘하는 축에 들었던 지라 일찍이 서울로 유학을 왔다. 그러다 외대 아랍어과에 입학, 점수 맞춰 들어간 학교에 애정이라곤 털끝만큼도 없었기에 한 달 동안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

김동수(55세)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악회 OB

▶ 1979년

첫 솔로 클라이밍(인수봉 비둘기길)

▶ 1982년

요세미테 하프돔 북서 레귤러(North-West Regular)루트, 엘 캐피탄 살라테일 등반(허훈)

▶ 1993년

히말라야 피상피크(6,901m) 등정

▶ 1994년

페루 안데스 예루파하(6,634m) 등반(벽등반, 실패)

▶ 2004년

히말라야 알롱캉(8,505m) 원정대 참가





기만 했다. 그러다 8교시 수업 중 난데없이 ‘산악부’ 라는 단어가 머리를 스쳤고 수업을 마치자마자 산악부실을 찾아 냅다 달렸다. 그리고 지금처럼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부실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다.

골수 산꾼들이 흔히 말하듯 그가 태어난 집 앞에도 역시 아미산(349m)이라는 산이 솟아 있었다. 당진군 최고봉인 이 산이 어린 김씨에겐 에베레스트와 맞먹는 존재였다. 지금 와서 보니 그때 불현듯 산악부라는 단어가 떠오른 건 모두 이 산 때문이었다.

“산악부에 입회한 날을 정확히 기억해요. 1976년 3월 31일 오후 5시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산이라는 것은 집 앞에 있었던 아미산밖에 몰랐어요. 나는 운동도 전혀 못했는데, 학교에서 달리기 하면 맨날 꼴찌 했어요. 어떻게 산악부에 들어갈 생각을 했는지. 늘 눈앞에서 봐왔던 아미산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1

1 겨울이면 그는 빙벽에 미친다. 겨울이 오기 전 정성으로 갈고 닦았던 아이스 톨의 피크가 뭉툭해질까봐 장비는 허리에 찬 채 맨손으로 얼어붙은 벽을 더듬었다. 2 전날 내린 폭설로 북한산의 모든 곳이 하얗게 변했다.

그에게 산악부 입회는 장남으로서의 불행한 일이었고, 이후 몸과 마음에 중대한 변화가 왔으며, 이 날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모양새로 보아 그것은 일생일대의 ‘사고’였다. 이 사고로 잃은 건 20년 동안 쓸모없이 자신을 괴롭혀온 저주받은 운동신경과 학점뿐이었다. 당시 연기로 이름 날렸던 동기동창 송승환과 더불어 학교수업을 가장 많이 빼먹는 것으로 유명했고, 그가 아랍어과에서 배운 것 중 유일하게 지금까지 기억하는 내용은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다는 시나이 산(Mt. Sinai)에 관한 것뿐이었다.

그러다 또 한 번 김씨의 의식을 바꾼 ‘사고’와 맞닥뜨렸다. 김동수씨가 재학생 대장을 맡고 있던 때 울산암 새 코스 도전에 나서 선등을 섰던 후배가 35m나 추락해 사망했던 것이다. 당시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그 사고로 안전등반에 더 신경쓰게 됐으며 덕분에 지금까지 선배 누구와 함께 산에 가더라도 직접 선등을 서며 “형, 제가 안전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김동수씨가 특출나게 등반을 잘 했던 건 아니다. 지금도 턱걸이 최고 기록이 겨우 7개 안팎일 정도로 등반가들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약골인 편이다. 그가 산에서 필요했던 운동능력은 자신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이면 충분했다. 김씨에게 단독등반은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 데 최고의 훈련방법이었으며,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솔로로 바위를 타기 시작했다.

“요즘 사람들한테 단독등반한다고 말하면 트악한 얼굴로 바라보며 이상한 취급을 하더군요. 한국인들에겐 아직 단독등반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단독등반은 클라이머로서 전공필수는 아니지만 교양필수쯤은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쯤 해볼 만합니다. 역사적으로 선구적 역할을 한 클라이머들은 모두 다 솔로등반을 했다니깐요. 파트너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순도 100%를 찾아서

누군가 암벽등반을 자기수양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등반을 통해 물아일체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단독등반은 자신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며, 그 집중력의 순도는 거의 100%에 이른다는 것이 김동수씨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절대적 순수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도 느껴본 것일까?

“느껴보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 봐요. 아직 실력이 안 돼서 토왕성폭포를 단독으로 올라보지 못했네요.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데, 혼자서 그 거대한 빙폭을 올라봐요 그 비슷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산에서 운 적이 딱 두 번 있어요. 한번은 겨울 치악산 능선 종주를 하면서 서쪽 지평선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였고, 또 한 번은 토왕폭 등반을 위해 계곡을 올라갈 때였어요. 어떤 소음도 없는 고요한 곳에서 느꼈던 그 평화로움.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 그런 기분이라냐?”

순수는 전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세상에 순도 100% 물질은 존재하지 않듯이 100% 순수성을 지닌 사상이나 행동 또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다수가 그렇듯 김동수씨 역시 산과 등반에



1

1 북한산 설경이 김동수씨의 뒤로 웅장하게 펼쳐졌다. 등반에 집중하고 있는 그가 점처럼 작게 보인다.
2 김동수씨는 55세 임에도 불구하고 리딩하는 것을 즐긴다. 곧 그는 줄렁이는 바위물결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었다.



관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써왔다. 그 예로 재학생 시절 때 세운 세 가지 다짐을 들 수 있다. 첫째, 산에 다니는 여자와 결혼하지 않겠다. 둘째, 산에 관련된 일로 돈을 벌지 않겠다. 셋째는 최후의 순간까지 수상식 단상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스스로 자신의 등반열정을 헤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프로마추어(프로+아마추어)라는 경계선 상에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기 위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몇 십 년간 이어왔다. 이런 철저한 마음가짐 때문에 혹자는 그를 두고 산악계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후까지 단상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건 기운이 있는 한 끝까지 등반하겠다는 거예요. 제 나이 올해 55살입니다. 이 나이 때까지 얼음과 바위에서 선등 서는 사람을 주위에서 보지 못했어요. 젊었을 땐 45세까지 리딩을 하자고 다짐했었는데 기한을 훌쩍 넘겨 버렸네요. 그래서 70세로 목표를 상향조정했어요. 그리고 환갑 땐 토왕성에 좋아하는 선·후배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일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그가 추구하던 순수성이 다른 이들에겐 틀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다. 2004년 개교 50주년이자 외대 산악회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엄홍길 대장과 떠난 알롱강(8,505m) 원정에서 그 고민은 절정을 이뤘다. 히말



2



1 고독길 초입을 지나 동굴 앞에 선 김동수씨와 그의 광운대 산악부 선배인 전신규씨.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흔쾌히 등반에 동참했다.
2 귀바위가 코앞이다. 마지막 구간을 남겨두고 그가 긴장한 듯 선동자를 바라보고 있다.

라야 등반스타일이 자신이 이상으로 생각해온 등반과 너무 달랐던 것. 그는 알프스의 북벽이라는 책은 스무 번도 넘게 읽었지만, 이상하게도 라인홀트 매스너의 책은 거의 다 소장하고 있음에도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 이유를 알룽캥 베이스캠프에 도착해서야 깨달았다.

나는 언제나 외대 산악회원


여차저차 원정을 마무리했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다. 그 찝찝함을 등반으로 달랬다. 단독등반이든 빙벽등반이든 닥치는 대로 잡고 걸고 짚고 올랐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더 큰 위안을 준 것은 바로 후배들이었다. 상처받은 김동수씨에게 다가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준 그들이 있었기에 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로부터 젊은 후배들과 더 친해졌으며 자연스레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산에 대한 사상과 철학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이전부터 지니고 있던 젊은 후배 산악인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사랑이 이때부터 절정에 이르렀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바위 기술자’들이예요. 등반이나 산에 관련된 자신만의 특별한 사상과 철학이 없이 그저 기술만을 내세우는 사람들. 그들은 그냥 산에 다니는 단순 노동자에 불과해요. 이론이 없는 실체는 공허하고 실제 없는 이론 또한 공허한 법입니다. 진짜 고수는 책을 보면서 늘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김동수씨가 산에 다니면서도 늘 책을 가까이 하게 된 건 외대 산악회가 가진 전통 때문이었다. 책을 좋아하는 선배들이 주위에 널렸던 까닭에 그 영향을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 그래서 산악회 활동을 하며 학교 도서관에 있는 산 관련 서적들은 모두 독파했다. 외대 산악회원들이 대체로 그러했는데 지금도 산을 찾는 산악회 회원들의 배낭에는 항상 책이 들어 있다고 김씨가 자부했다. 한양공업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산악부 활동을 하며 산밖에 몰랐던 홍승기 군 역시 외대 산악회에 들어와 “변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으니 외대 산악회의 학구적 분위기는 알아주는 것이었다.

그는 그런 외대 산악회를 사랑한다. 산을 알게 해 준 은인들이 모두 그 안에 있었으며 선·후배 모두 김동수씨에게 등반열정은 물론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마디로 그는 산악회 골수분자였다.

김동수씨는 또 클래식 음악 마니아다. 수많은 연주자들이 자신의 악기에 각자의 영혼을 담아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에 늘 감탄해한다. 그에게 외대 산악회는 오케스트라에 해당되며, 김동수씨는 물론 그 안에 속한 한명의 단원으로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온 몸을 불사른 연주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그렇지 않고선 이들이 내는 아름다운 화음이 약 50년 가까이 한국 산악계를 울리고 있을 리 없지 않은가. 

배우 주원 인기 실감나네!

가산동 매장에 구름 인파 몰려

글 사진 | 구현모 기자




1 주원이 마운티아 가산동 매장에 방문해 기념 사인을 남겼다. 2 팬사인회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 대성황을 이루었다. 3 팬사인회 무대에 서서 자신이 한 사인을 들고 밝게 웃는 주원.

국내 시티캐주얼 브랜드 마운티아(대표 강태선)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2012 소비자만족 최고명품 브랜드 대상 아웃도어 부문 수상을 기념해 가산동에 위치한 마운티아 매장에서 전속모델 배우 주원의 팬사인회를 개최했다. 주원은 추운 날씨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기다린 팬들을 챙겨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사인회가 진행됐으며, 이 날 노르딕 패턴의 티셔츠에 레드 컬러 재킷으로 포인트를 준 캐주얼룩을 완성했다.

1박2일 촬영을 마치고 막 돌아왔다고 밝힌 주원은 이 날 입은 R 익스트림 재킷으로 멋스러움을 더했다. 고급스러운 라쿤털로 포인트를 준 헤비 다운재킷으로 추운 겨울 날씨에도 따뜻하고 편안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겨울철 낚시, 캠핑, 등산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시 스타일과 실용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제품이다.

주원은 예정된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침착하게 팬사인회를 시작했다. 점점 많은 인파가 몰려들

어 무대 주위를 에워싸고 사인을 받기 위해 늘어선 줄은 건물을 한 바퀴 빙 돌아 늘어섰다. “사실 1박2일 촬영을 방금 마치고 와 조금 피곤했는데,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셔서 힘이 납니다. 사인회 하는 동안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라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사인회 내내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과 열심히 팬들과 함께 하는 모습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마운티아 마케팅본부 장순철 부장은 “2012년 한 해 동안 고객들이 마운티아를 사랑해 주신 것에 보답하기 위해 배우 주원의 사인회를 마련했습니다”라며 “앞으로도 마운티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마운티아는 2012 소비자만족 최고명품 브랜드 대상 수상 기념으로 12월 한 달간 전품목 30%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 마운티아 고객센터 02-2027-0101

모노크롬 컨셉의 ‘인텐스’ 의류라인 선보여

110리터 대형 배낭 렉스도 출시

글 | 양승주 기자 사진 | 자료



1



2




3

하그로프스코리아(대표 정광호)는 지난해 12월 10, 11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양평밸리에서 2013 F/W 시즌 수주회를 열었다. 전국 대리점과 취급점 관계자 약 80명과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광호 대표는 2013년 국내 브랜드 전개 방향과 취급점 강화, 그리고 공격적인 백화점 유통망 확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2012년 국내에 첫선을 보인 하그로프스는 2013년엔 기술력과 브랜드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임을 밝혔다.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의 색상과 디자인, 기능성으로 기존의 아웃도어 마니아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관심을 이제 일반 대중에게로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정찬일 세일즈팀 과장은 “2013년 하그로프스는 기능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며 “전 제품의 디자인과 컬러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100% 스웨덴 본사에서 제작”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2013년 시즌부터 재킷에 적용될 보온소재인 쿼드퓨전 시스템과 대형 배낭인 110리터 렉스(REX)에 적용된 기술력을 강조하며 상세히 소개했다. 정찬일 과장은 세계 최초로 베링해협 횡단에 성공한 산악인으로서 엄홍길 대장, 고 박영석 대장과 함께 많은 등반을 경험한 산악인이다.

올 상반기에 출시될 모노크롬(Monochrome) 컨셉트의 아웃도어 웨어 ‘인텐스(Intense) 라인’도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수주회에 참석한 대리점과 취급점 관계자들은 “2013년은 하그로프스코리아가 국내 아웃도어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2~3년 내에 국내 정상급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1 하그로프스 제품의 색상과 디자인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다.

2 여러 대리점,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수주회 현장.

3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은 하그로프스 브랜드의 특징이다.



눈에 뜨는 새책

세계적 산악인 발터 보나티의 자전적 등반기 내 생애의 산들

이탈리아의 세계적 산악인 발터 보나티의 자전적 등반기 <내 생애의 산들>이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순수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등반을 추구하는 '알피니즘'을 구현한 보나티의 극한등반의 세계를 잘 보여 준다. 브레갈리아 3대 북벽, 그랑 카뮈생 동벽, 라바레도 북벽, 가셔브룸 4봉, 몽블랑 브루이아르, 론도이 북벽, 그랑드조라스 북벽, 마터호른 북벽 등 보나티가 등정한 산에 대한 소개와 성찰이 총 20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번역은 대한산악연맹의 김영도 고문이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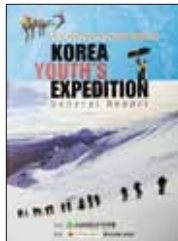
발터 보나티 지음 | 352쪽 | 15,000원 | 조선매거진



2012 한국청소년오지탐사대 종합보고서 KOREA YOUTH'S EXPEDITION

대한산악연맹에서 2012 한국청소년오지탐사대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존 뮤어 트레일, 중국 칭하이성 위주봉, 중국 쓰촨성 쓰구냥, 키르기스스탄 악수산군, 몽골 알타이산맥, 뉴질랜드 통가리로 트랙 등 탐사대원들의 수기가 탐사개요, 탐사지역 개관, 일정 등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문의 대한산악연맹 02-414-2750.

대한산악연맹 발행 | 448쪽 | 비매품 | 이산미디어



사람들과 고락을 함께해 온 나무들의 특별한 이야기 고규홍의 한국의 나무특강

기자생활을 접고 숲속으로 숨어든 한 사나이가 팔도의 나무를 직접 찾아다니고 나무의 사연과 얽힌 사람들을 만나며 나무에 스민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 <고규홍의 한국의 나무특강>은 나무 인문학자로서 저자가 지난 10여 년 동안 만난 우리 강산의 크고 오래 된 나무들에 대한 현장 기록이며, 우리 삶과 역사에 관한 보고다. 오랜 시간에 걸쳐 나무를 찾은 저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 140여 컷이 함께 수록됐다.

고규홍 지음 | 411쪽 | 23,000원 | 휴머니스트



서울·수도권 30산 58코스 등산길 안내 서울 산 가는 길

<서울 산 가는 길>은 서울의 진산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청계산,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서울과 서울 근교에 위치한 30개 명산의 58개 코스를 지도와 함께 상세히 안내하는 가이드북이다. 산행 출발지점에서 정상을 경유해 하산지점까지 전 코스를 세밀하게 기록했다. 저자가 여러 번 답사를 통해 선정한 맛집도 소개한다. 산을 좋아하는 수도권 시민에게 훌륭한 산행 길라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신명호 지음 | 128쪽 | 7,800원 | 깊은솔



무등산 특집으로 다룬 산서 제23호

한국산서회가 <산서> 제23호를 발행했다. 이번 호는 무등산 특집으로서 무등산 도립공원, 무등산과 광주, 무등산의 자연생태계, 무등산의 누정문화, 무등산이 배출한 광주의 산악인, 무등산 관련 산서와 광주·전남 지역에서 출간한 산서 등 광주의 진산 무등산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문의 한국산서회 02-992-0577.

한국산서회 발행 | 350쪽 | 비매품



산사의 생활문화로 들어가는 34가지 이야기 산사는 깊다

<산사는 깊다>는 조계종 종립승가대학원 원장을 지냈고, 현재 조계종 고시위원장인 지안 스님이 쓴 산사의 생활문화에 관한 34가지 이야기다. 40여 년 절집생활에 대해 반조를 거듭해 정리한 이 책은 기침에서 취침으로 이어지는 산사의 하루 풍경, 출가부터 다비까지 건너가는 스님의 일생을 경험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풀어냈다. 책을 통해 독자는 절집의 하루와 스님의 삶을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안 스님 지음 | 256쪽 | 15,000원 | 불광출판사



야생초 편지 두 번째 이야기 고맙다 잡초야

<고맙다 잡초야>는 생명평화운동가 황대권의 두 번째 야생 에세이다. 전작 <야생초 편지>가 교도소 안에서 10여 동안 야생초와 함께 한 삶의 기록이라면, 이 책은 출소 후 10여 년 동안 한적한 전라도 산속에서 자연과 사람을 벗 삼아 놀던 생활의 기록이다. 국가에서 마을로 돌아가는 자연회귀의 시대, 자금자축형 인간을 꿈꾸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시스템에 기대지 않고 자연과 부딪혀 보는 유쾌한 몸부림을 생생하게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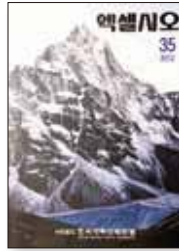
황대권 지음 | 288쪽 | 13,000원 | 도솔출판사



**산악문화발전을 위한 산악학술지
엑셀시오 제35호**

한국대학산악연맹은 <엑셀시오> 제35호를 발행했다. 재학생 임원진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고찰과 더불어 각 학교 볼더링 게임법, 신입생 동기 산행기, 명지대 인도 라다크 히말라야 등반기, 서울대 농생대 에베레스트 원정기, 한국 베링해협횡단 탐험기 등이 수록돼 있다. 한국대학산악연맹 부설 등산아카데미 관련 소식도 다루고 있다. 문의 한국대학산악연맹 02-552-8868.

한국대학산악연맹 발행 | 216쪽 | 비매품



**전국 게스트하우스 완벽 가이드북
길 위의 내 집, 게스트하우스 123**

제주, 부산, 전주, 광주, 통영, 순천, 경주, 남원, 구례, 강릉, 서울 등 전국 게스트하우스 123곳을 소개하는 완벽 가이드북이다. 저자들이 직접 밀착 취재하여 내 집같이 편안한 여행사 숙소를 가려 뽑았다. <길 위의 내 집, 게스트하우스 123>은 게스트하우스의 위치, 이용료, 대중교통편 등의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는 것은 물론, 체크리스트를 통해 게스트하우스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 주인장 인터뷰,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여행지와 식사 등의 읽을거리도 수록돼 있다. 최대 3,000원까지 할인되는 게스트하우스 쿠폰북도 제공한다.

이동미 · 이송이 · 신영철 · 홍유진 지음 | 352쪽 | 16,000원 | 품의지도



**역사와 추억이 깃든 우리 맛 체험기
세 PD의 미식기행, 목포**

베테랑 다큐PD 세 사람이 근현대사 유적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 구도심을 거닐며 우리 맛의 속살을 정리했다. 미식기행에세이 <세 PD의 미식기행, 목포>는 빈속에 허겁지겁 음식을 집어넣는 생물학적 욕구충족의 여행이 아닌, 음식을 만들어낸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맛보는 과정을 세세히 담는다. '다큐멘터리 3일', '역사스페셜', 'KBS스페셜', '차마고도' 등 이름만으로 가슴 뭉클한 방송작품들을 제작한 저자들이 소개하는 맛의 세계로 함께 떠나자.

손현철 · 홍경수 · 서용하 지음 | 239쪽 | 14,800원 | 부키



**일반인들의 소박하고 진정한 행복찾기
소박한 생활 속 평범한 행복**

SK그룹 행복블로그 'SK STORY'에 소개된 보통 사람 100명의 행복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행복피플 인터뷰집 <소박한 생활 속 평범한 행복>은 평범한 가정주부, 자영업자, 취업을 앞둔 대학생, 일반 직장인, 사회적기업 종사자, 연예인, 성공한 CEO 등 다양한 범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보여 준다.

SK그룹 행복블로그 편집팀 지음 | 321쪽 | 10,000원 | 미디어브레인



**조선의 귀양터 남해 유배지를 찾아서
바람과 이슬로 몸과 마음을 씻고**

<바람과 이슬로 몸과 마음을 씻고>는 200여 년 전 남해로 귀양 간 류의양이 유배지 남해에서 보고 겪은 일을 기록으로 남긴 <남해문견록>에서 출발한다. 남해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예부터 유배지로 각광 받았다. 저자는 <남해문견록>에 기록된 유배의 흔적을 찾아 13일 동안 남해를 답사, 당대 유배객들이 살았던 집과 머물렀던 공간들을 돌아보며 구전되는 비사와 그 배경에 대해 소개한다.

박진욱 지음 | 424쪽 | 19,500원 | 알마



**심장병 앓는 아내와 삼척에서 스페인까지 36,000km
슬픈 날의 행복여행**

"엄마가 미소를 지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학교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함께 가자. 셋이 여행을 가는 거야!" 원인 없이 수년간 심장을 앓아오던 아내에게 마침내 진단과 처방이 내려지면서 아들 가족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살아 있는 지금의 행복을 채우기로 한다.

아들은 여행 후 또 다른 길을 기약하며 학교를 자퇴하고 가까이 동참한다. <슬픈 날의 행복여행>은 동해안 삼척에서 스페인 서쪽 해안 끝까지,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한 가족이 떠난 7개월간의 슬프고도 행복한 여행에 대한 기록이다.

남기환 지음 | 288쪽 | 14,000원 | 책비



**서정인 전집 시리즈 14
개나리 울타리**

<강>, <철쭉제>, <달궁>, <모구실>의 소설가 서정인이 산문집 <개나리 울타리>를 출간했다. 그동안 저자가 소설 외에 써 왔던 글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사적감정, 지역감정, 팔년 전쟁, 불가피성, 단일창구, 반미감정 등 저자의 여과되지 않은 생각과 견해를 투명한 문체로 만날 수 있다.

서정인 지음 | 351쪽 | 13,000원 | 양영



**본격 셀러리맨 만화
미생-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영화 <이끼>의 원작자이자 한국 만화계 대표 스토리작가인 윤태호의 신작 <미생-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전 4권)가 출간됐다. 2012년 1월 20일 'Daum 만화 속 세상'에 첫선을 보인 이후 최장기간 평점 1위를 고수 중인 이 책은 '만화가 아닌 인생 교과서', '직장생활의 교본', '셀러리맨 만화의 진리' 등으로 통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열한 살에 한국기원 연구생으로 들어가 프로기사만을 목표로 살아가던 청년 장그래가 입단에 실패하고 회사라는 전혀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역동적으로 담고 있다.

윤태호 지음 | 296쪽 | 11,000원 | 위즈덤하우스



자연과 예술 논산 산골 호숫가에 사는 작가 박범신

내 몸이 자연이다

글 | 박원식 사진 | 주민욱 기자

박범신이 서울을 벗어나 논산 산골로 온 건 변화에의 열망 때문이다. 타성과 인락함에 젖을 수 없다는 것. 여기에서 고독을 친구로 삼은 채 '가난한 식사'와 '쓸쓸한 배회'를 즐기며 글쓰기에 몰두하고 있다.



산에도, 길옆에도, 눈이 쌓여 있다. 햇살이 쏟아지는 양달쪽 눈발이 투명하게 하얗다. 구불구불 휘어지는 길 위에도 간혹 눈이 남아 미끄럽다. 차가 휘청거린다. 조금쯤 시련에 찬 여정. 그러나 설경을 옹골지게 만끽할 수 있으니 이게 호사였다. 이런 날 작가는 뭐하구나.

논산시 가야곡면 탑정 호숫가. 야트막한 야산들이 호수를 에워싸고 있다. 박범신은 물가에 산다. 눈을 뒤집어쓴 산이 호수에 발목을 담그며 파르르 몸을 떠는 언저리에. 새파란 호수가 저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2층집. 이게 그의 거처다.

밖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온 그와 마주 앉는다. 올해 나이 67세. 피곤기가 살짝 서린 낮빛이다. 그러나 아직 스러지지 않은 청춘의 잔해랄까, 깡이랄까, 뭔가 짙은 기미가 완연하다. 그는 어찌면 독종이다. 40여 년에 걸친 작가활동 중에 무려 40여 권의 책들을 써냈지 않은가. 왜 이 적막한 산골로 내려왔을까. 자연에 필이 꽃혀서?

“무위자연을 즐기기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즐기엔 서울이 좋지. 후배 문인들 집합시켜 술 마시기 좋고, 아침에 아내가 끓여주는 해장국으로 속 달랠 수 있고... 여길 내려온 건 말년에 내 자신을 강력하게 바꾸고 싶어서예요. 불편한 게 많지만 감수하기로 했지. 난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변화의 열망이 커요. 젊다하더라도 주변에

의지하거나 인락함에 기대다면 그건 이미 늙은이겠지.”

“늙음에 순응하는 즐거움도 있지 않을까요? 참다운 노경이야말로 생의 절정이라는 게 동양정신이라 하는데.”

“늙기 전에 비해 어떤 응어리가 싹 빠져 좋은 건 있습니다. 소설 ‘은교’를 쓰고 난 뒤 그런 편함을 느꼈어요. 그러나 솔직히 늙어서 좋을 건 없지. 다만 자못 너그러워지고 기다릴 줄 알게 되긴 해요. 내가 성격이 매우 급한데 이젠 기다릴 줄을 알지. 기다리면 상처가 적어지더군.”

“사람들은 박범신을 일컬어 ‘영원한 청년작가’라고 합니다.”

“문학적 감수성이 늙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나 자신으로 말하자면 늙어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살겠다, 야인처럼 살겠다, 장교가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생물학적 나이가 어디 가나? 60대 전반기엔 쓸쓸하더라고. 그러나 이젠 인생을 꽤 깊이 볼 수 있어요. 관용의 넓이, 깊은 통찰력, 오욕칠정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힘, 사람관계에서 상처를 줄이는 능력, 그런 것들이 생겨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더라고. ‘은교’를 쓰면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 젊음이겠지. 너그럽지 않되 젊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젊음의 그 무엇이 좋죠?”

“젊은이들에겐 빛이 나지 않던가? 광채가 있어. 요즘 젊은이들의





강골이 엿보이는 얼굴이다. 청춘의 잔해랄까, 강이랄까.
원가 찜찜하다. 늙을수록 내면의 고독을 견뎌낼
단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맹점은 자신이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모른다는 점이에요. 내부의 에너지를 모른 채 불안해하고, 자본주의가 주입한 세속의 욕망에 휘둘러. 심지어 많은 젊은 애들이 부랑자처럼 살더라고. 우리 시대보다 젊은 부랑자가 많은 때가 있었던가? 이게 이 시대의 딜레마겠죠. 참 안쓰러워. 연민을 느낄 수밖에.”

“어쩌나요?”

“루카치의 말, ‘문학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길이 시작된다’ 했어요. 길 없는 길에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게 젊은이들의 길 아닐까. 그냥 누워서 그 길을 찾아갈 수는 없을 테고, 공부든 여행이든 좁은 울타리에 갇히지 말고 좀더 너른 세상을 보는 건 어떨까. 과감히 떠나라 권하고 싶어요. 미국이나 일본엔 이미 빈자리가 없을 것이고, 수고와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면 아프리카로 가는 건 어떨까. 거긴 빈자리가 많으니까. 공부나 독서를 통해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SNS나 TV는 현상을 가르쳐줄 뿐이지만, 독서는 심층구조를 알게 하죠. 본질을 보게 한다는 거. 젊음이란 그지없이 짜릿하지만 양날의 칼이 아닐까. 자신을 잘못 쓰면 세상이 주입한 욕망에만 사로잡히니까.”

“아까 젊음의 ‘광채’를 말했지만 당신의 젊은 날은 매우 어둡지 않았던가요?”

“어두운 무채색의 모습이었던가, 내 젊은 날엔 사실 어둠이 짙차 있었어요. 가난으로 꽉 막힌 시절을 염세적인 청년으로 통과했어.

세계와 내가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를 몰랐어요. 오직 책속에 파묻힌 문학도였으니까. 20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소설을 통해 내 정체성을 찾았죠.”

가난한 밥상, 쓸쓸한 배회

젊음이라는 갈딱고개, 해 뜨기 직전의 어둠과 추위를 닮은 청춘의 신산(辛酸)을 넘었다는 얘기다. 청춘을 회고한 여운일까, 산골에 홀로 머문 작가의 얼굴에 설핏 쓸쓸한 공기가 감돈다. 적막한 기운이 작가다운 운치를 돋운다. 주야로 문장과 맞붙어 사는 사람에게 고독이란 차라리 매혹이거나 유혹일까. 산은 고요하고 호수는 텅 빈 채 적적하다. 눈 내린 날엔 한결 고독할까?

“누군들 외롭지 않은 자 있을까. 그러나 늙을수록 견고해져요. 늙으면 내부의 고독을 견디는 단단함이 있어야 하지. 고독과 대결하는 일에 비해 소설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군.”

“고독이란, 한 마디로 무엇일까요?”

“태어날 때부터의 슬픔이겠죠. 삶의 환경은 나아질 수 있지만, 본원적 고독은 나아지는 게 아니예요.”

“영영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인가요?”

“친구가 될 뿐, 내 존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일 뿐... 여기 살다보면 밤엔 껌껌해서 몹시 고독해요. 남모를 시간에 절대적인 고독과 딱 부닥쳐 맞장 뜬다 할까. 그렇다고 고독에서 벗어날 순 없지.

은거에 가까운 나날들
속에서 읽고 쓴다.



사람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난 버리지 못하겠더라고. 벗어난다? 버린다?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과 함께 있는 고독은 불편하지만 혼자 있는 고독, 고독과 친구로 지내는 일은 편하더군. 고독의 씨앗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고….”

“여긴 경관 좋은 산골예요. 낙도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장 좋은 건 두 가지죠. 하나는 ‘가난한 밥상’ 이지. 아 내가 1주일에 이삼일쯤 서울에서 내려와 반찬을 만들어두고 가지만 혼자 물에 밥 말아 먹는 식사, 혼자 먹는 가난한 식사가 참 좋아. 또 하나는 ‘쓸쓸한 배회’ 지. 산도 오르고 호수도 서성이고, 그런 시간엔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

“주변 경관 못지않게 집터도 아늑하군요. 뒤란의 암반과 물길도 묘하고요.”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마치 오래 살아온 집처럼 딱 맘에 들더라고. 북향집이지만 그마저 외골수의 느낌을 줘서 좋고. 예술가란 홀로 세계와, 귀신과 맞장 뜨는 단독자거든.”

“서울에서보다 오히려 더 많은 방문자들이 들이닥치진 않는지. 휘방꾼들 말예요. 저처럼.”

“그렇더라고. 조용히 은거해서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물리칠 수도 없는 성격이고. 딜레마지. 봄가을 두 차례, 날을 정해 사람들을 불러 파티를 하고, 그 외엔 문을 닫아걸고 있어요. 내게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으니까.”

실내는 하염없이 정갈하다. 결벽증 있는 독신녀가 홀로 사는 것 같은 구색. 먼지 한 점 묻어나질 않는다. 서가의 책들은 도열처럼 반듯하다. 서울서 자주 내려온다는 아내의 손매가 스친 자국들일 테지만 예민한 작가의 심상이 서성거리는 풍광이다. 거실 벽에 걸린 자전거 미니어처가 눈길을 끈다. ‘늘 떠나고 싶은’ 이라 휘갈긴 낙서도, 어디로 떠나고 싶은 걸까. 그는 에베레스트를 무시로 드나들었다.

“에베레스트를 열다섯 번 갔었지. 왜냐고? 산에 가면 좋잖아? 사람이 자연 아니던가. 나는 평소에 운동을 하는 게 없어요. 운동을 싫어하지. 많이 먹지도 않아요. 그러나 산에 가면 잘 걸어요. 젊은 친구들이 묻지. 트레킹을 잘 하는 비결이 있냐고. 산과 일체가 되면 잘 걸을 수 있다고 말해주지. 산이 험하다고 너무 방어하거나 조심할 일 아니겠지. 산을 러닝머신처럼 사용할 게 아니라 산에 스며드는 느낌, 내가, 내 몸이 자연이다, 그렇게 자연과 동화하면 잘 걸을 수 있어요. 그제 나의 건강법이기도 하고.”

“집 근처 야산도 자주 오르시겠어요.”

“밭길이 다 닿았다 봐야죠. 길 없는 산이라서 더 좋더라고. 이 집 어디서건 눈에 들어오는 저 건너 대명산(大明山)도 참 좋아요. 대명이라, ‘크게 밝다’는 뜻인데, ‘큰 깨달음’이라 읽어야겠지. 나이 들수록 마음이 크게 밝아야하지 않나? 세속이 주는 소음이나 욕망을 좀 내려놔야겠다는 거. 요즘은 저 대명산을 마음에 두게 되네.”



소설 ‘은교’는 영화화되면서 새삼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출라체’, ‘고산자’와 더불어 ‘갈망의 3부작’으로 부른다.



창밖에는 햇빛은 겨울나무들. 작가는 무슨 상념을 할까.



거실 벽면에 걸어둔 자전거 미니어처. 자전거를 타고 자유롭게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읽힌다.

‘걸어서 별까지’

“소설 ‘은교’ 얘기 해볼까요. 저는 영화 ‘은교’를 먼저 보고 소설을 읽었습니다만, 영화가 더 인상적이었죠. 원작자로서 영화 ‘은교’를 만족하시는지?”

“소설 대부분을 버리고 만든 영화를 작가가 어떻게 만족하겠는가? 그러나 한국 영화 수준으로 보서는 괜찮은 영화인 건 맞아요. 영화가 이미 흥행 위주의 산업인데 나이 칠십 된 노인네의 연애 스토리를 영화화한 것 자체가 소중한 모험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원작의 내용을 잘 축약해서 형상화한 영화라고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만도 있지. 노인과 어린 소녀의 러브스토리로 부각되었으니까. 원작에선 노인의 고독이 짙어요. 노인을 통한 시간에 대한 반역, 그것의 피 흘림을 말하기 위해 소녀를 등장시켰거든. 존재론적 빈곤에 사로잡힌 노인의 강렬한 캐릭터가 도드라져야 했어요. 노인을 통한 불멸의 세계에 관한 갈망. 이게 원작의 핵심이지. 영화 속 노인에게 그에 따른 긴장과 본원적 힘이 빠져있더라고. 영화가 가진 어쩔 수 없는 한계겠지.”

“불멸! 소녀 은교가 노인에게 불멸의 가치를 상징하겠어요.”

“그렇지. 노인이 가진 완전한 영원성에 관한 욕망, 그 불멸의 가치를 표상하는 게 은교니까. 그렇다면 은교를 열일곱 살이 아니라 마흔 살이나 쉰 살로 봐도 무방해요. 남녀 성별조차 필요 없겠지. 소설 속 노인은 은교를 시(詩)로 봤어요. 사람이 늙어서 여자를 보게 될 경우, 현상으로는 감각적으로는 여자이지만, 그 현상 너머엔 영원성이라거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던가.”

“‘은교’의 문장은 놀라워요. 탐미적, 감각적이라서.”

“젊은 작가들에 비해 감수성이 떨어지진 않겠지. 내 안엔 짐승이 있는 것 같아. 생김새는 낙지나 문어처럼 생긴, 뭐랄까, 그것은 시간의 세례에 의해서도 늙거나 왜소해지지 않더라고. 늙어서도 그 짐승은 싱싱하니까. 범박하게 말하자면 창조적 자아(自我)? 뭐 그런 거... 오욕칠정이라는 거, 그걸 장악하는 덴 소설 외엔 없더

라고. 현실을 품어본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않고, 사랑도 오래 가지 않고... 뜨겁게 쓰다가 죽고 싶소.”

“오래 가는 사랑이란 정말 불가능한가요? 사랑하는 상대를 완전히 소유하고 싶다면 죽이는 수밖에 없다는 당신의 말이 기억납니다. 광포한 사랑을 넘어설 순 없는 건가요?”

“내가 이젠 욕망을 잘 컨트롤하며 살아요. 물욕, 늙거나 중요한 자리에 대한 욕망, 베스트셀러에 대한 욕망도 내가 많이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더라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겨내지 못하는 건 사랑의 욕망이요. 물론 사랑의 대상이 여자만은 아니지. 숲가의 꽃들도 선생이고, 따라가고 싶은 처녀들 아니겠나. 이게 아마도 더 좋은 소설에 대한, 더 좋은 세상에 대한 욕망이겠지만. 사실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지만 근원적인 사랑에 관한 욕망, 갈망을 누를 길 없어요. 이 건 살아서는 이룰 수 없는 욕망이겠지만.”




2층에 있는 집필실.
이렇다 할 치레가 없이 가지런하고 깔끔하다.

“성욕, 애욕이란 끝내 따라붙는 난적이라 합니다. 과연 그런 걸까요?”

“성욕도 창조적 자아의 욕망과 맞닿은 건 사실이지만, 이 나이에 그걸 승화 못한다면 인생 헛산 거겠지. 찰나적이고 허깨비 같은 것이니까. 하지만 사랑을 승화시키는 건 쉽지 않아요. 다행히 나에겐 문장이 있어요. 애욕으로서의 욕망도 소설로 풀 수 있지. 문학 순정주의가 내 안에 강해서.”

“궁금해요. 사후 묘비명을 미리 준비하셨다죠?”

“딱히 정해놓은 건 아니고, ‘대대로 불멸을 꿈꾸었느니 이제 여기 와 다 이루었네’, 그런 걸 써놨다가 너무 장중해서 요즘은 다른 걸 생각해보고 있지. ‘일생을 다해서 산다는 것은 걸어서 별까지.’ 그런 걸...”

창밖은 세한(歲寒). 실내는 작가의 언설로 후끈하다. 그의 언어는 정교해 시나브로 귀가 민감하게 열리는데, 이런! 보건소 직원들이 링거병을 들고 들어닥친다. 글을 쓰는 일이란 방울방울 피를 뽑는 일. 몸이 성할 리 없다. 소설에 미친 사람의 팔뚝에 주사기가 꽃히는 걸 바라보며 자리를 탄다. 그가 걸어가는 별까지의 길을 헤아리며... 



SCARPA
NESSUN LUOGO È LONTANO™



PHANTOM 6000
팬텀 6000
₩894,000



PHANTOM GUIDE
팬텀가이드
₩732,000



MONT BLANC GTX
몽블랑 GTX
₩620,000



(주)넬슨스포츠
Tel 1644-1708 www.nelson.co.kr

신영철이 만난



글 | 신영철 편집주간 사진 | 정종원 기자

1년 정규 프로그램으로 52주간 방영될 ‘사람, 산’이 이제 중반을 넘었다.
TV마다 범람하는 오락프로그램이 대세인 경박단소의 시대인데, 리얼 산악다큐를
표방하는 꼭지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우려를 불식하며 본격적 산행을 기록하는
‘사람, 산’이 생각보다 순항하고 있다. MBC 계열사 작품경연대회에서 작품상과
촬영상을 휩쓸더니, 1월부터 전국방송으로 재편된다. 이번 호는
전남 월출산과 강원 오대산을 다녀왔다.

월출산만 찍는 사진작가

>> 전판성

오래 전, 월출산에 가며 광주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돌아오는 말이 해학이다.

“오매, 좋것소잉~. 그 산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정상 천황봉까지 등산화에 흠한 점 안 묻히고 오를 수 있는 돌산이지라?”

그 말을 듣고 후후웃은 적이 있다. ‘뽕도 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때도 천황사 코스로 올랐는데, 발아래는 물론 시선이 미치는 사위가 모두 돌로 빛은 빼어난 수석 전시장이었다. 그렇게 월출산은 돌로 이뤄진 산이다. 그래서 산이 깔고 앉은 지역 이름마저 돌이 신령스럽다는 ‘영암(靈巖)’이다.

“월출산의 암석은 몽땅 맥반석입니다. 화강암의 일종인데, 맥반석은 원적외선을 방출해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약석(藥石)

으로도 불리지요. 통바위가 수수만년 풍화를 겪으며 사자봉, 매봉, 천황봉, 구정봉, 향로봉을 깎아 지금의 예술품으로 만들어 놓았지요.”

길라잡이 전판성씨는 영암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월출산만 줄곧 찍어대는 사진작가다. 사진작가들이라면 누구나 눈독을 들이는 월출산에서 차별화된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남다른 부분이 있어야 한다. 영상미 좋은 포인트는 물론 역사, 전설, 민담까지 손금 보듯 해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관참은 길라잡이와 동행하는 중이다.

“이곳은 용바위라고 하는데, 매년 월출산 바우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제단은 정확히 천황봉과 마주보고 있어요.”

이 동네 터줏대감적인 영암산악회가 바위산인 월출산을 기릴 만한 장소를 찾다가 이곳을 발견했다. 전씨는 회장을 역임했는데, 1980년 10월 30일 군민의 날을 기념해

바우제를 지내기 시작했더니 벌써 30년도 넘는 행사가 됐다. 그 외에도 이번 산행에는 광주에서 달려온 윤용이씨, 인공암벽관리를 맡고 있는 영암산악회 총무 정순혁씨와 여자회원 두 명, 국립공원 직원 박근용씨가 함께 했다.

“천황봉이 809m밖에 되지 않는데도 위풍당당한 이유는 평야지대에 홀연히 솟은 탓도 있지만 주변에 견줄 만한 산이 없기 때문이죠. 조선시대 이중환이 쓴 택리지에서는 월출산을 화승조천(火昇朝天)의 지세, 즉 아침하늘에 불꽃처럼 기를 내뿜는 기상이라 했어요.”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빛을 받아 창같이 솟은 암봉들이 봉화불처럼 타오르듯 보인다는 말이다. 그리고 보니 바위들이 조금씩 붉은 빛을 띠고 있다. 그런데 이야기가 어째 좀 이상하다. 월출, 즉 달이 뜬다는 게 산 이름 아닌가. 하춘화가 부른 영암아리랑도

가사에 달 풍년만 있지 일출은 한 마디도 없다.

“맞아요. 원래 바위를 보는 건 예나 지금이나 추상 아닙니까? 보는 대로 해석할 수 있는. 달 뜨는 산, 월출산을 신라 때는 월내악, 고려 때는 월생산(月生山)이라고 불렀 습니다. 이 산 언저리에 사는 영암 사람들에 게 달은 언제나 월출산 위로 떠오르기에 그런 이름을 얻은 것은 당연한 일이죠.”

호남에서 제일 가는 그림 속의 산이 있으니, 달이 푸른 하늘이 아닌 여기서 떠오른다(南州有一畫中山 月不靑天出此間). 산악인의 원조격으로, 조선 산을 무수히 넘나들던 매월당 김시습도 이 산에서 달은 하늘이 아니라 암봉 사이에서 떠오른다고 비유했다.

“월출산 등산은 해발 0m에서 시작한다고 봐야지요. 해발에서 꼬박 오르니까 높이 809m 숫자를 우습게 여겼다가는 큰코 다쳐요. 지금 우리가 오르고 있는 천황사 쪽은 평균 경사가 27도로, 전국에서도 가장 가파른 등산로일 거예요.”

신들이 빛은 산, 월출산

공사를 하고 있는 천황사 앞에서 우리는 두 팀으로 나뉘었다. A팀은 구름다리 코스, 전판성씨가 이끄는 B팀은 바람폭포를 지나 장군봉을 거쳐 통천문으로 향했다. 두 팀은 통천문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다큐멘터리의 영상을 다각도에서 촬영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B팀은 바람골로 갔고, 우리는 구름다리를 향해 오르기 시작했다. 경사는 더 가팔라졌다. 바위벼랑들의 경사가 그만큼 세기도 하지만 그 틈으로 등산로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고도를 높이자 질펀한 영암과 강진평야가 눈 아래에 든다. 자주 사용해 식상한 단어지만 실경산수화가 상상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땀을 한바탕 쏟고 월출산의 자랑인 구름다리에 도착했다. 바람골 건너편 장군봉



암릉에 B팀이 콩알처럼 보인다. 그림이 좋다. 이 찬스를 놓칠세라 헬리캠이 뜬다. 장난감 같은 헬리캠이지만 꼭 헬리콥터에서 찍듯 영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구름다리를 벗어나 다시 가파른 암릉을 오르니 통천문 앞, B팀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이제 통천문만 지나면 정상은 지척입니다. 통천문(通天門). 겨우 한 사람 지나갈 수 있는 저 자연바위굴을 고개 숙이고 통과해야만 정상에 오를 수 있어요. 참 절묘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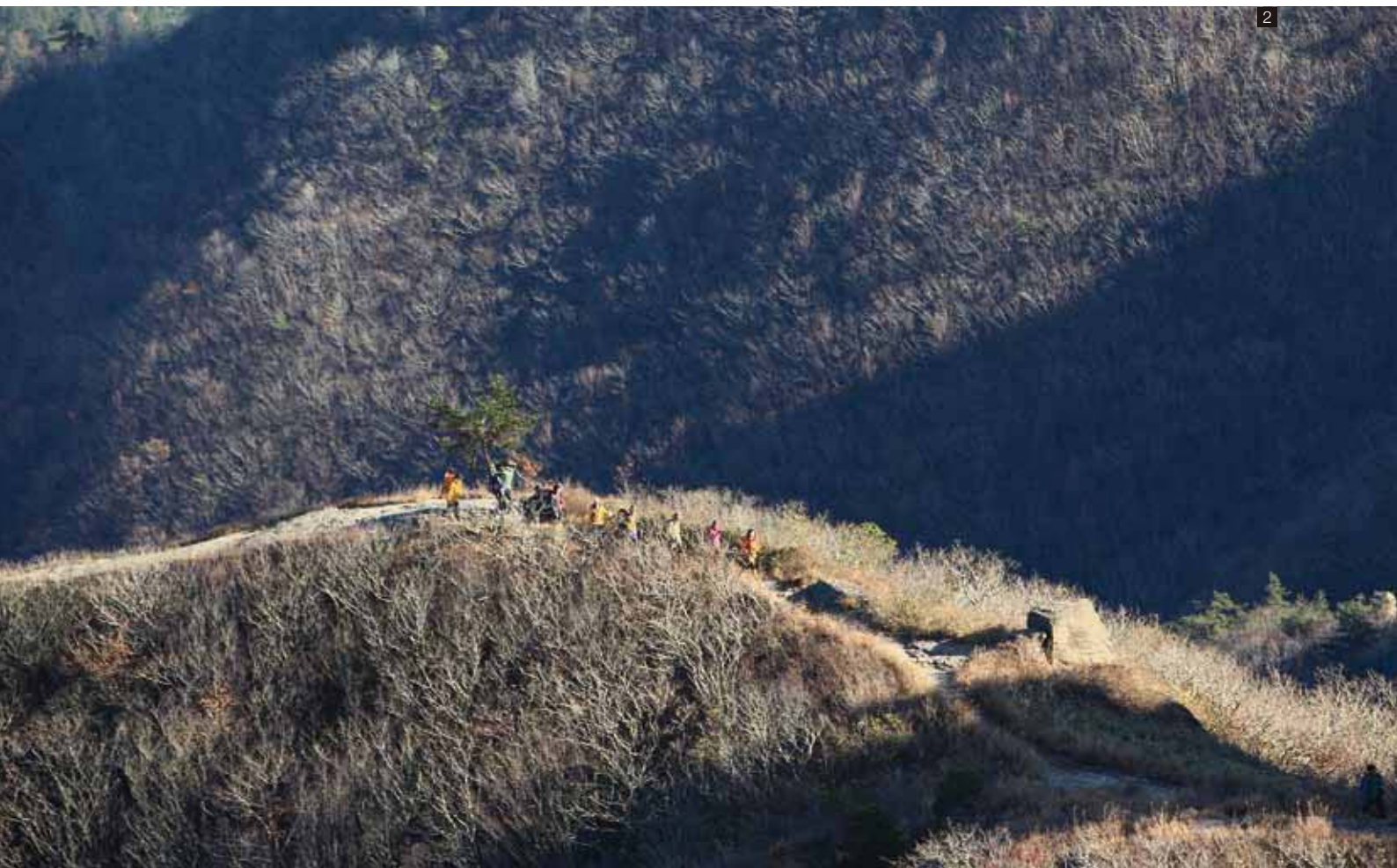
전판성씨 말대로 바위나라가 빗어놓은 명작 월출산답게 통과의례를 할 바위문의 이름도 근사하다. ‘하늘에 이르는 문’ 이니까. 굴 밖으로 나서니 사방은 삼엄한 벼랑이다. 마지막 철계단을 올라 천황봉 정상에 섰다. 여자 MC는 카메라가 촬영을 하는데도 바위에 드러눕는다. 그만큼 가파른 돌길이었다.

“이 천황봉은 역사가 증명하는 이름입



니다. 일제가 장난친 이름이 아니에요. 신라 때부터 이 정상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정상표지석을 세우며 제사에 사용했던 다수의 유물이 발견됐고요.”

- 1 바위박물관을 벗어나 만난 역새발.
- 2 겨울, 갈 것 다 보내고 허허로운 월출산의 숲.
- 3 평야에 우뚝 선 월출산 정상.
- 4 구름다리는 월출산의 랜드마크다.





전관성씨는 자신의 고향의 산이자 집이든 직장이든 눈만 들면 어디서나 조망되는 월출산에 애정이 각별했다. 그 자신이 처음으로 문헌에만 나오는 ‘동석(動石)’을 발견해 내기도 했다. 해발 809m 평야에 홀연히 솟은 바위봉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눈이 시리다. 탐진강과 영산강이 겨울 햇빛을 튕겨내며 반짝이고 있었다. 남쪽으로는 해남 두륜산, 강진 포구, 장흥 천관산을 아우르며 겨울바람 속 월출산은 홀로 우뚝했다.

“독특한 모양의 바위는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기 돼지바위 좀 보세요. 책 바위는 어떻고요. 추상 기법으로 조각한 바위박물관이 바로 월출산입니다.”

전씨의 말이 맞다. 천황봉에서 능선이 이어지는 서쪽으로 구정봉과 향로봉이 무수한 조각들을 세운 채 어깨를 걸고 달리고 있다. 자연이라는 시간이 빔어놓은 무수한 예술조각품들. 이래서 돌이 신비롭고 신령스럽다는 ‘영암’이라는 이름이 과장이 아닌 것이다. 늦은 점심을 먹고 하산하는 길에는 남근바위가 겨울하늘을 찌를 듯 웅골차게 솟아 있다. 공교롭게도 이 바위 건너편에는 베틀바위라 부르는 음혈(여근바위)이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니 우물까지 있는

절묘한 조각동굴이었다.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어요. 영암에서는 한군데밖에 없는 코닥 대리점도 했어요.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밖에 없었잖습니까? 재미가 쏠쏠했어요.”

전관성씨는 지금 영암군 공무원이지만 그렇게 전공한 사진으로 국전에 입선한 작가가 됐다. 줄곧 찍어댄 월출산이 안겨준 영광이었다. 아홉 개의 우물이 있다는 구정봉을 거쳐 향로봉을 지날 때는 짧은 겨울해가 지고 있었다. 도갑사로 하산하는 길 역시 수석박물관 미로 찾기였다. 어차피 늦을 터, 이참에 느긋하게 바위를 관찰하자는 마음이 들어 하산 중 꼼꼼히 살펴본 바위는 동물원이었다. 아니, 바위숲이었다.

수석 같은 산, 천관산

이튿날 ‘사람, 산’ 팀은 장흥 천관산에 올랐다. 장흥 대덕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선보언씨가 길라잡이였고, 광주에서 온 배영호씨가 합류했다. 남해가 눈 아래 보이는 천관산 역시 월출산처럼 수수만년 풍우가 깎아낸 수석전시장이었다.

“월출산이 큰 바위 집단이라면, 천관산은 작은 수석 같은 바위가 많아요. 영월정을

거쳐 환희대에 이르는 아기자기한 등산로는 가볍지만 즐거운 길입니다.”

길라잡이 선보언씨는 천관산을 사랑하는 모임의 약칭인 ‘천사모’ 회원이다. 그들의 천관산 사랑법은 등산로 보수와 쓰레기 수거에서 나타난다. 환희대에서 오름것이 끝났다. 환희대에 서니 반전처럼 다도해가 질펀하게 눈 아래 펼쳐졌다. 환희대는 말 그대로 바위들과 바다가 어울려 환희를 불러일으키는 한 폭의 그림이었다.

“우리 장흥은 인구보다 한우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장흥 한우가 유명하지요. 저 아래 보이는 큰 지붕은 모두 한우농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보언씨 말대로 나지막한 산들이 이어져 있는 곳곳에 농가들이 보였다. 이곳에서 천관산 정상인 연대봉이 5만여 평의 억새밭 너머로 보인다. 그러나 구룡봉을 놓치고 갈 수는 없는 일. 사람들은 정상인 연대봉을 하이라이트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구룡봉이었다. 다도해를 향해 톱 불거진 암봉 정상에는 아홉 개의 돌우물이 있었다.

“저도 이쪽이 고향이라 천관산은 자주 올랐지만 구룡봉은 처음입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느낌이 새롭네요. 안 올라왔으면 크게 후회할 뻔했어요.”

광주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배영호씨의 말이었다. 그 말을 받아 선씨가 설명을 잇는다.

“이곳에 서면 바다 너머 소록도와 청산도는 물론, 이순신 장군이 배 열두 척을 수리했던 포구도 보입니다. 저 움푹 파인 포구가 그곳이지요. 맑은 날이면 한라산까지 선명히 눈에 잡힙니다. 저것이 제암산, 억불산, 사자산이고요. 저쪽이 고흥 팔영산과 영암 월출산입니다. 지리산, 내장산, 월출산, 변산과 더불어 이 천관산이 호남의 5대 명산입니다.”

겹겹이 주름진 산처럼 바다에는 섬이 겹쳐져 있다. 산과 어우러진 바다 감상을 끝내고 연대봉으로 길을 나섰다. 연대봉 가는 길은 순한 황소의 등처럼 억새밭길이다.

“달빛보다 희고, 이름이 주는 느낌보다 수척하고, 하얀 망아지의 혼 같다고 어느 시인이 말했어요. 천관산 분위기를 가장 잘 느끼게 해 주는 게 억새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곳에서 억새축제가 열리지요.”

겨울 오후의 햇살이 엷은 역광으로 갈 것 다 보낸 억새를 투과한다. 누런 억새의 너울거림이 바다의 파도를 닮았다. 아득하게 펼쳐진 다도해가 이 억새밭의 배경이다. 연대봉 바로 아래 감로천이라는 샘이 보인다. 정상 능선에 물이 나는 게 신기하다. 연대봉을 올랐다. 연대봉은 왜적 침입 때 봉화를 피웠던 곳이다.

“고려 의종 때 처음 쌓은 연대 석축은 무너진 채로 있었는데, 80년대 중반에 새로 쌓았습니다. 이 연대봉에서는 전후좌우로 거칠 것 없이 펼쳐지는 다도해가 압권이지요. 여름이면 일부러 이곳에 와 비박하는 산악인도 꽤 있습니다.”

선씨의 말을 들으니 그 밤 풍경이 떠올랐다. 하늘에 보름달이라도 걸린 밤이라면 다도해를 건너온 해풍에 술 한 잔, 얼마나 운치 있을까. 그러나 그건 이 고장 산악인들의 향연일 터. 우리는 억새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찾아드는 해넘이를 뒤로 하고 천관산을 내려왔다.

강원 산하의 셰르파

>> 유영열

“국경의 긴 터널을 지나자 설국이었다. 밤의 밑바닥까지 하얗졌다.”

노벨상을 수상한 일본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유명한 작품 ‘설국(雪國)’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서울에는 눈 소식이 없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오대산도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럴 줄 알았다’와 ‘그렇다’의 차이는 크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인간이니까.

월정사 앞 식당에서 이른 아침을 먹었다. 길라잡이인 대한산악연맹 적십자구조대원이자 블랙야크 세르파 유영열씨, 강원도 산이 좋아 아예 거주지를 오대산 자락으로 옮긴 화가 이인숙씨, 그녀의 산행동료인 함봉천씨, 처음 참가하는 여자 MC 류효정씨와 동행했다. 아침을 먹을 때만 눈이 이렇게 많을지 몰랐다. 시야에 드는 오대산에는 눈이 보이지 않았다. 잘생긴 전나무숲, 겨울이지만 안온한 기온, 부드러운 능선.

“눈 없습니다. 이렇게 따뜻하네 무슨 눈이 있겠어요? 산 위에도 이미 다 녹았어요.”

식당주인은 자신이 인지한 주변의 상황만 말했을 텐데 나는 그 말을 확대 해석해 믿었다. 동네 토박이기에 산까지 말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겨울산행시 무조건 지참해야 하는 크렘폰과 스패츠를 빼버렸다.

상원사부터 바닥은 얼었고,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 후회했으나 이미 때늦은 일. ‘하루산행인데 어찌랴’ 하는 생각에 그냥 밀고 나갔다. 오를수록 눈이 깊어졌다. 사자암 단청이 고요한 산속의 설경을 배경으로

1 시간과 풍우가 만든 바위 조각상.
2 계방산은 가장 많은 주목군락지가 있다.





도드라져 보인다.

“적멸보궁을 거쳐 비로봉으로 오릅니다. 그곳에서 상왕봉을 지나 두로령과 두로봉을 찍고 다시 상원사로 하산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길라잡이 유영열씨는 아웃도어업체 블랙야크에서 야심차게 모집한 ‘세르파’

로 뽑힌 산꾼이다. 블랙야크는 64명의 세르파와 50여 명의 마운틴 가이드를 뽑았다. 그들과 함께 40명산을 오르고 ‘마운틴 북’이라는 산행 관련 정보사이트를 만들고 있다.

사자암에서 적멸보궁 가는 길, 석등 속 스피커에서 독경소리가 은은하다. 고요한 적막강산에 눈은 깊어가고, 버릴 것 다

- 1 서설이 내린 오대산 능선을 행군하는 대원들.
- 2 사람, 산 새로운 여자 MC 류효정씨.
- 3 계방산 정상에 선 출연진과 스태프들.



버리고 산비탈에 선 나목들이 춤다. 이윽고 도착한 적멸보궁에는 신실한 불교도들이 108배를 올리고 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다고 해 법당 내부에 불상이 없다. 적멸(寂滅)은 범어 '니르바나'의 한역. 번뇌의 불꽃이 꺼져 고요한 상태를 말한다는 데, 그것이 보배스러워 보궁이라고 이름 지은 것인가.

“잘 아시겠지만 고찰은 연꽃의 중심자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월정사도 마찬가지죠. 겹겹이 둘러싼 오대 봉우리가 연꽃잎이라면, 절집은 그 중심부지요. 그러한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몇 차례 개인전을 연 화가 이인숙씨, 필이 꽃혀 단박에 오대산 자락인 홍천군 서면 광원리에 시골집을 계약해 버렸다. 산행을 하며 그 작업실에서 자연의 서사를 그림으로 옮기는 중이라는 것. 시골집 당호를 ‘정연가’로 짓고 ‘자연에 향한 따뜻한 시선과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나 자신은 물론 모든이의 위안과 구원을 향한 기도’라는 블로기도 운영한다.

비로봉에는 눈이 깊었다. 설악산 대청봉과 점봉산 백두대간 마루금이 활짝 갠 날씨 덕에 한눈에 든다. 점심으로 싸온 주먹밥은 거의 얼음이 돼 있다. 이곳부터 상왕봉까지는 러셀이 돼 있지 않았다. 길라잡이 유영열씨와 정종원 사진기자가 앞장서서 길을 뚫는다. 무릎이 뒹가, 허리까지 빠질 때도 있었다. 다행히 기온은 그리 내려가지 않았다. 하지만 스패츠를 하지 않은 탓에 내 등산화 속은 이미 붕어 두 마리를 키울 수 있을 만큼 물이 차 버렸다. 등산화는 두 짝이니가 실 새 없이 움직이니, 다행히 당일산행으로 동상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터. 결국 방심이 부른 재앙이다.

설국 속 하산길에 생각지도 않았던 보름달이 환상적으로 등실 떠올랐다. 눈발에 동그랗게 펼쳐지는 헤드램프 보다 달빛이 더 고왔다. 11

● Mini Interview

상(賞)복에 겨운 김병주 PD

본지 · 울산 MBC 공동기획 ‘사람, 산’ 연출자



음입니다.”

김병주 PD는 수상영광을 스태프들에게 돌렸다. 연출자로서 모든 과(過)는 자신의 몫이지만 스태프들에게는 공만 돌리고 싶다는 뜻. 한국의 아름다운 산과 사람을 성찰하며 고화질 HD영상으로 담아낸 김병주 PD의 기획은 이번 수상으로 성공작임을 증명해 냈다. 횡수를 거듭하며 노후가 쌓이고 안정감이 실린 덕분에 시청률도 올라가는 중이다. 수도권 1,500만 명을 가시청 범위로 잡는 OBS 경인TV에서도 반응이 좋다.

“언제나 스태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우리만의 특징을 가지고 다른 산 프로그램과 분명히 차별화해 왔습니다. 그 원칙을 지켜 온 것이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촬영이 힘들다고 우리 고유의 틀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동안 보여 준 ‘사람, 산’의 정체성은 없어집니다. 이번 상은 좀 더 잘 만들라는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PD의 이런 일관된 의도는 그대로 작품에 녹아든다. 매년 산행은 전투처럼 치러졌고, 체력을 건디지 못한 여자 MC는 중도 교체됐다. 지난해 5월에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사람, 산’은 어느덧 30회를 넘었다. 촬영을 위해 한 번 산을 오를 때 움직이는 출연자와 제작스태프들은 30여 명을 넘나든다. 동원되는 카메라만 4대에 이르고 비장의 무기 헬리캠도 제작에 동참했다.

“우리나라 명산들은 대체로 그 높이가 1,000m를 넘습니다. 이미 시청자들에게 보여 준 영상을 피해 새롭게 접근하려고 해요. 그러니 매년 힘든 산행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요. 출연자 말대로 ‘눈은 천국인데, 발은 지옥’이라는 비명을 이해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얻은 영상이기에 특히 이번 촬영상 수상이 제게는 더 고마워요.”

김 PD에게 경사가 겹쳤다. ‘사람, 산’이 이번 달부터 서울 MBC에서 정규방송으로 편성됐다는 것. 지방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본사의 정규 프로그램이 된 사례 역시 드물다. ‘사람, 산’의 땀방울이 새 역사를 쓴 것이다.

“‘사람, 산’은 2013년 새해부터 전국방송으로 거듭납니다. 여태 그래왔듯이 올 한 해도 우리의 아름다운 산속에 숨겨진 속살을 고화질로 담아낼 것입니다. 욕심은 많은데 그게 이뤄질지는 지켜봐야지요. 틈틈이 특집형식으로 해외의 산까지 지평을 넓힐 계획이고요.”

기록 측면에서도 ‘사람, 산’은 소중한 작업이다. ‘리얼’을 추구하는 프로그램답게 들머리와 날머리, 이동한 등산로 등을 꼼꼼히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업해 산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정보로 제공한다. 지금 ‘사람, 산’은 저 스스로 앞장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고 있는 중이다.

본지와 울산 MBC가 공동기획한 ‘사람, 산’이 일을 냈다. 2012년 전국 MBC 계열사 작품경연대회에서 작품상과 촬영상을 동시 수상한 것이다. 이 상은 지난 1년 동안 제작 방송된 프로그램 중 가장 우수한 작품을 뽑는 콘테스트다. 하나의 작품이 두 가지 상을 받은 경우는 드문데, MBC 계열사를 통틀어 첫 번째 사례다.

‘사람, 산’은 계열사마다 방송시간대가 다르다. 그동안 6개 사가 참여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OBS 경인TV를 통해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50분에 방송하며, 토요일에 재방송한다. 오대산과 계방산 설산촬영을 마치고 만난 ‘사람, 산’ 김병주 PD는 수상소감을 담담하게 말한다.

“이번 수상은 내 개인의 영광이기에 앞서 고생한 모든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받은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람을 느끼며 만든 ‘사람, 산’ 아닙니까? 특히 작가들과 촬영을 맡은 VJ들,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스태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집중! 코스가이드

小 金 剛

수많은 ‘소금강’ 중 으뜸

충청-전라 경계의 바위줄기...한 산에 두 도립공원

글 사진 | 구현모 기자



마천대 정상에서 완주군 일대가
조망된다. 매곡소와 케이블카가
왼쪽에 위치해 있다.

대둔산



논산 방면 대둔산에도 돌산의
면모를 볼 수 있다. 멀리 논산시
벌곡면이 조망된다.



전북 진안 모래재를 지나 565m봉에서 북으로 올라 금남정맥이 시작된다. 임봉, 연석산, 운장산, 장군봉 등을 세워 놓고 대둔산을 휘돌아 백암산, 인대산, 바랑산, 계룡산까지 뻗어나가 부여 백마강에서 산세를 다한다. 대둔산은 전북과 충남을 가르는 금남정맥의 반환점에 위치한다. 북으로는 충남의 논산, 금산에 속하고 남으로는 전북 완주에 있는 바위산이다.


우리나라엔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빼닮았다는 수많은 소금강(小金剛)들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금강산 같은 곳은 단연코 대둔산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둔산의 기암괴석과 폭포가 만들어내는 절경을 보면 금강산을 잊게끔 한다고 한다. 그만큼 대둔산이 갖는 매력은 두드러진다. 완주 방면 대둔산은 이미 1973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이후 충남 논산시와 금산군에 걸쳐 있는 부분도 1980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두 개의 도에서 경쟁적으로 도립공원을 지정할 만큼 인근 지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아온 것이다.

일찍부터 완주 방면 대둔산은 경관이 뛰어나 많은 등산객과 등반가들이 찾았다. 정상인 마천대를 비롯해 임금바위와 마왕문, 입석대, 신선바위, 돼지바위, 장군봉, 동심바위, 형제봉, 금강

문, 칠성대, 낙조대 등 기암봉과 괴석들이 대부분 주능선 남쪽인 완주군쪽에 산재해 있다. 때문에 완주 방면 산행코스가 인기 있는 편이다. 집단시설지구를 비롯해 대둔산관광호텔이나 케이블카까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다.

논산시 벌곡면 방면 산자락도 이에 뒤지지는 않는다. 완주군 방면과는 또 다른 자연미를 뽐낸다. 육산과 돌산이 한데 어우러져 협곡 속에 선녀폭포, 수락폭포, 군지폭포 등이 장관을 이룬다. 단풍이 물든 가을 모습이나 겨울 빙폭이 서려있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논산시는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오던 우회 등산로와 구름다리 설치를 2011년에 모두 완료해 더 안전하고 즐겁게 산행할 수 있게 조성해 놓았다.

금산군 방면 배터재나 태고사에서 오르는 구간도 멋진 절경이다.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전국 12승지의 하나로 이곳 태고사 절터를 찾아내고는 주위 경관이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덩실 덩실 춤을 추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곳이다.

태고사 뒤로 절묘하게 솟은 낙조대는 일출과 일몰이 매우 유명하다. 사계절 내내 낙조대에서 비박하며 이를 기다리는 등산객들이 많다. 

코스 가이드

대둔산에는 완주 방면에 4개(시설지구, 용문굴, 옥계동, 안심사), 논산 방면에 1개(수락마을), 금산 방면에 2개(배터재, 청령굴)의 등산로가 있다. 총 7개의 들머리에서 오르고 내리는 구간을 바꿔가며 다양한 코스를 즐길 수 있다. 안심사 들머리는 쌍바위와 약사에서 오를 수 있는데, 들머리가 같아 다른 쪽으로 원점회귀하면 된다. 완주 방면에서 안심사 코스는 쌍바위와 약사 방향

으로 나누어지고, 논산 방면 수락폭포 들머리는 수락폭포와 석천암, 갈딱재로 나뉜다. 이들 코스들은 원점회귀하거나 종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등산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마천대를 중심으로 낙조대, 용문굴, 수락폭포 등은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중 한 곳이라도 꼭 들렀다 지나는 계획을 짜는 것이 좋다.

1코스

시설지구 입구 -(10분)- 케이블카 -(25분)- 구름다리 -(25분)-
마천대 ⇨ 소요시간 1시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시설지구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는 코스는 초심자에게 가장 적합하다. 가을 단풍이나 겨울 설산 때 특히 아름다워 인기가 많다. 이 코스는 시설지구 주차장을 기점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기 때문에 실제 산행거리가 매우 짧다. 케이블카 도착지점에서 철계단이 길게 늘어 있다. 지그재그로 된 철계단을 한 번 더 올라야 하는데, 이곳에 철제 난간을 놓아 전망대를 만들어 놓았다.

이곳에서 완주 방면 전경을 구경하고 조금 더 오르면 대둔산의 명물 금강구름다리가 나온다. 길이가 50m나 되는 아찔한 철다리다. 흔들림이 적게 만들어 놓아 안정감 있지만 가운데 부분이 출렁거리는 건 감안해야 한다. 다리를 건너 조금 오르면 산비탈에 약수정 휴게소가 나온다. 약수터는 폐쇄된 상태로 식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휴게소 바로 위 팔각정에서 왼쪽으로 가면 삼선구름다리다. 삼선구름다리는 발을 딛는 폭이 좁아 조심해서 올라야 한다. 구름다리를 지나 계단을 오르면 정상 직전의 능선 삼거리에 닿는다. 삼거리에는 앉았다 쉬어갈 수 있게 벤치가 놓여있다. 안내표지기가 있는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30m쯤에 정상에 솟은 개척탑이 보인다. 이곳에서 마천대까지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개척탑 바로 아래로는 커다란 바위들이 등성등성 놓여 있다. 안전로프가 설치되어 있지만 겨울철 얼음이나 눈이 쌓여 있다면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이곳에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info

하나. 시설지구 입구 주차장 주차비 경차 1,000원, 승용차 2,000원, 버스 3,000원.

둘. 대둔산 케이블카는 1990년에 가설되어 총길이 927m, 23도의 경사를 유지하며 정원 50명을 태우고 5분간 2대가 교행하며 운행한다. 1988년 5월에 착공해서 2년 6개월의 공사를 마쳐 1990년 11월부터 운행을 개시했다. 대기시간은 일반적으로 15분이고, 사람이 많으면 5분마다 운행한다. 요금은 성인기준 편도 5,500원, 왕복 8,500원.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셋. 약수정휴게소에서는 침즙(2,000원), 쌍화탕(3,000원)을 마실 수 있고, 동동주, 해물파전, 도토리묵으로 간단히 요기할 수도 있다.

넷. 금강구름다리는 1985년 9월에 가설되었다. 길이 50m, 폭 1m로 200명까지 통과할 수 있다. 삼선구름다리는 51도의 급경사와 36m 길이에 127개 계단으로 이루어진 철다리로 아찔한 고도감을 느낄 수 있다.



1 케이블카 모습. 빨간색이 인상적이다. 2 케이블카 승강장 바로 아래 위치한 대둔산 관광호텔. 대둔산 인근에서 가장 큰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3 금강구름다리. 아찔한 전경을 즐길 수 있다. 최대 200명까지 지날 수 있더니 안전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듯 싶다. 4 마천대 가는 길에 있는 정자. 잠시 쉬어 가기엔 제격이다. 5 집단시설 지구쪽은 관광족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 가로수에 눈이 예쁘게 내려 앉았다.

2코스

시설지구 입구 -(60분)- 동심바위 -(25분)- 구름다리 -(25분)-
마천대 ⇨ 소요시간 1시간 50분

시설지구를 들머리로 산행을 시작한다. 20분쯤 걸으면 본격적인 등산로의 시작을 알려주는 안내 표지기가 나온다. 산행로 근처에는 동학농민혁명 대둔산항쟁전적비가 있다. 전적비 바로 위에는 철봉과 윗몸 일으키기를 할 수 있는 운동기구 몇 개가 있다. 여기부터 한동안 돌계단을 걸어야 한다. 간혹 너덜길도 나온다. 20분쯤 돌계단 길을 걸으면 정자 지붕을 얹은 휴게소 건물이 있다. 이곳 안내표지기는 정상과 구름다리로 향하는 방향만 가리키고 있을 뿐 거리는 안내되어 있지 않다.

휴게소에서 10분쯤 오르면 동심바위가 나온다. 동심바위는 두 개의 커다란 바위가 쌓인 것으로 독특한 자세로 놓여있다. 동심바위를 뒤로 하고 다시 바위 계단을 오른다. 25분쯤 걸으면 약수정휴게소가 나온다. 이후 코스는 1번에서 소개한 것과 같다.

info

하나. 동학농민혁명 항쟁전적비는 107년 전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봉준, 김개남 장군이 체포된 직후 투항을 거부한 혁명지도자 25명이 대둔산 정상으로 피신해 요새를 설치하고 일본군과 3개월간 항전한 곳이다. 1895년 2월 어린 소년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이곳에서 순국했다고 한다.

둘. 동심바위는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처음 이 바위를 보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3일을 이 바위 아래서 지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1 신선암. 매주 주말이나 휴일에 암주가 이곳에서 수행을 한다고 한다. 2 용문굴. 이 바위문을 통해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3 고갯마루 왼쪽에 위치한 산행 들머리. 조형 문의 모양이 과장하다. 4 배티재 입구. 완주에 속한 대둔산을 가는 길목이다. 5 삼선구름다리. 계단 경사가 급하고 폭이 좁아 조심해서 이용해야 한다.

3코스 용문굴 입구 -(50분)- 신선암 -(25분)- 용문굴 -(25분)- 구름다리 -(25분)- 마천대 ⇨ 소요시간 2시간5분

용문굴은 잡목숲과 소나무, 멋진 바위들이 어우러진 계곡으로 돌산 이미지의 대둔산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 용문굴 산행들머리는 케이블카가 위치한 시설지구에서 배티재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5분쯤 걸어 올라간다. 용문굴 들머리는 다소 허술하게 관리되어 있다. 안내표지기와 산행시 주의사항을 알리는 글이 이곳이 입구임을 알린다. 이곳에서 멀리 대둔산 칠성봉 일대의 암벽이 조망된다.

초소를 지나자마자 완주군에서 암벽등반 금지라고 써놓은 표지기가 보인다. 본격적인 용문굴 등산로는 계곡을 한 번 건너 후 왼쪽 산허리를 타고 오르면서부터 시작된다. 가파른 길을 오르면 계곡 바닥이 아래로 내려다보인다. 계곡을 한 번 더 건너고 나면 두 갈래 길이 나온다. 계곡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과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두 길 모두 오르는 길이다. 용문굴을 출발해 40분쯤 걸으면 선은사터가 나온다. 선은사터 바로 위에는 바위굴에 산신각과 온돌방까지 들여놓은 신선암이 있다. 용문굴 갈림길에서 왼편으로 가면 장군바위다. 오른편 길을 계속 15분쯤 가면 용문굴이 나온다. 2m 높이에 길이 2m 남짓한 바위틈으로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만한 좁은 통로를 지나야 한다. 이곳에서 장군바위와 함께 칠성봉의 모습이 조망된다. 능선에 서면 북쪽은 낙조대, 남쪽은 마천대 가는 길이다. 이곳에서 마천대까지는 50분쯤 걸린다.

info

용문굴은 당나라 정관 12년에 선도대사가 이곳에 도를 닦고 있을 때, 용이 이곳 바위문을 열고 승천했다고 해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4코스 배티재 입구 -(35분)- 전망데크 -(15분)- 장군약수터 -(30분)- 낙조대 -(40분)- 마천대 ⇨ 소요시간 2시간

배티재는 금산과 완주군의 경계에 있는 17번 국도가 지나가는 고갯마루다. 광장에는 진산 자연휴양림 휴게소와 그 옆으로 주유소가 있다. 고갯마루 왼쪽에는 대둔산굴길 산책로, 오른쪽으로는 대둔산 등산로가 있다. 들머리에는 커다란 조형 문이 있는데, '호남의 금강, 완주 대둔산'이라고 적혀있다.

등산로 초입은 가파른 나무계단과 돌계단이다. 이후 암릉길로 이어지고 이 길을 따라 35분쯤 걸으면 전망데크가 나온다. 이곳에서 오대산으로 갈 수 있는데, 거리는 960m다. 갈림길에는 조그만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고 대둔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조망이 좋아 잠시 쉬어 갈만 하다. 멀리 마천대 오르는 길 왼편으로 케이블카 탑승장이 보인다. 오른편에는 태고사가 조망된다. 암릉의 틈을 비집고 자리 잡은 태고사의 모습이 장관이다.

이 갈림길에서 대둔산 정상부 암릉을 바라보며 내려선다. 25분쯤 길을 가다보면 벤치가 놓여 있고, 안내표지기에는 마천대 2.8km라고 적혀있다. 대둔산 주능선을 올라타기 위한 능선길로 능선 안부 깊숙한 곳이다. 이곳에서 다시 오름길로 오르면 낙조대 갈림길이 나와 대둔산 주능선에 들어선다. 주능선 왼쪽은 마천대, 오른쪽은 낙조대다. 갈림길에서 낙조대까지는 지척이다. 이곳에서 마천대를 향한 주능선이 보인다. 동쪽으로는 지나온 능선과 멀리 대둔산휴게소가 보인다. 서쪽으로는 완주 방면이 조망된다. 배티재에서 낙조대까지는 2.5km가 조금 안된다. 마천대로 가기 위해 지나온 길을 돌아 칠성봉을 향한다. 완만한 길이 이어지고 용문굴 갈림길이 나온다. 이후 코스는 3번과 같다.

info

배티재 입구까지는 대전에서 시내버스가 다닌다. 서대전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34번 시내버스로 이동한다. 첫차 오전 6시, 30분~1시간 간격 26회 운행, 막차는 오후 10시. 인터넷 대전시 시내버스에서 검색하거나 전화 042-120을 이용해 문의하면 된다.



안심사를 기점으로 한 등산로는 두 가지가 있다. 안심사에서 갈락재에 이르는 완만한 경사의 계곡길과 쌍바위와 지장폭포를 거쳐 829m봉에 이르는 능선길이다. 안심사에서 갈락재를 넘는 것은 군지골에서 수락리로 내려서는 길이다. 다른 길은 안심사에서 갈락재를 넘어가면 군지골에서 수락리로 내려서는 길이다.

산행 들어리는 안심사에서 시작한다. 중간에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식수를 준비해야 한다. 들머리에서 5분쯤 올라가면 쌍바위와 지장암 갈림길이 나온다. 쌍바위 방향으로 완만한 오르막길을 15분쯤 걸으면 암자를 겸한 가정집이 있다. 쌍바위에서 35분쯤 오르면 지장폭포와 주능선 오르는 갈림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나온다. 지장폭포는 비가 많이 와야 그 모습을 드러낸다. 지장폭포에서 200m쯤 오르면 수직 암벽지대가 보인다. 철계단과 안전로프가 설치되어 있다. 중간에 암릉지대를 지나면 마천대가 보이는 829m봉에 다다르게 된다. 이곳에서 마천대까지는 1시간쯤 걸린다.

info

안심사는 신라 선덕여왕 7년(서기638년)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창건한 유서 깊은 고찰이다. 안심사라는 절 이름은 자장을사가 삼칠일(21일) 기도하던 중 부처님의 말을 듣고 이곳에서 기도 정진하는데 마음이 매우 편해 안심사(安心寺)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1 마천대에 우뚝 솟은 개척탑이 조망된다.
2 대둔산 승전탑. 빨치산과 북괴군 소탕과정에서 전사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충남지방경찰청에서 1986년에 건립했다. 3 논산에 속한 대둔산 입구. 입장료는 받지 않고 주차료를 징수한다. 4 논산에 속한 대둔산에 위치한 수락폭포 전경. 철계단이 바로 옆에 위치해 경관을 해친다.

논산 방면 대둔산 들어리는 수락마을 입구다. 여느 시골마을처럼 입구 앞에 커다란 고목이 서있다. 마을 입구를 지나 대둔산 입구에서는 주차비를 받는다. 주차장에서 20분쯤 걸어 경찰승전탑에 닿으면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된다. 산행 입구 왼편에 계단을 오르면 경찰승전탑으로 갈 수 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선녀폭포 안내표지기가 나오고, 7~8m 높이의 선녀폭포가 있다. 선녀폭포는 계곡의 하류에 위치해 수량이 풍부하고 폭도 넓어 시원하게 떨어지는 모양이 볼만하다. 선녀폭포 안내표지기에서 20분쯤 더 가면 수락폭포가 나온다. 수락폭포 옆으로는 철계단과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군지골로 향하는 길에 낙석사고가 빈번해 등산로를 폐쇄하고 우회로를 만든 것이다. 철계단을 30분쯤 오르면 마천대로 향하는 두 갈래 길이 나온다. 아래로 내려서 수락구름다리를 통해 오를 수도 있다. 계단을 계속 걸어도 된다. 20분쯤 철계단과 흙길을 번갈아 걷다보면 경사진 바위 구간이 나온다. 눈 내린 날에는 이런 구간을 조심해서 지나야 한다. 50분쯤 걸어 마천대에 다다르면 안심사 방향과 용문골 방향으로 나뉘는 갈림길에서 안내표지기가 나온다. 용문골 삼거리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동하면 곧 마천대다.

info

하나. 한국전쟁 직후 퇴로가 차단된 북한군은 이곳 대둔산을 거점으로 논산시와 완주군 일대에 자리를 잡고 멀리 공주와 대전까지 총 410회에 걸쳐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양민을 학살했다. 이에 충남 경찰국에서는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강경경찰서에 대둔산지구 전투경찰대를 창설해 3,412명의 적을 섬멸한다. 1950년에서 1955년까지 계속된 무장공비도발작전으로 경찰관, 군인 및 애국청년대원 등 1,376명이 전사했다. 이에 충남도경찰청은 1986년 6월 당시 격전지였던 대둔산에 승전탑을 건립했다.

둘. 제일폭포, 화랑폭포와 같은 지명은 논산시 대둔산을 관리하던 건설과에서 각각 선녀폭포와 수락폭포로 개명했다. 선녀폭포는 애초 주민들이 부르던 이름을 확실히 정하기로 한 것이고, 수락폭포는 화랑이라는 이름은 신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지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따서 수락으로 바꿨다고 한다.

셋. 수락마을 입구를 지나 대둔산 입구를 지나면 주차장이 있다. 주차비는 버스 3,000원, 승용차 2,000원, 경차 1,000원.





7코스

청령골 -(25분)- 갈림길 -(45분)- 태고사 -(20분)- 갈림길 -(40분)- 낙조대 -(40분)- 마천대 ⇨ 소요시간 2시간50분

금산군 진산면의 청령골에서 태고사와 낙조대를 지나 마천대로 향하는 등산로다. 68번 지방도에서 행정저수지를 지나 청령골로 들어서면 안내표지기가 있고, 그 옆에 넓은 주차장이 있다. 청령골의 마지막 주차장에서 태고사까지는 임도를 이용해 1시간쯤 걸어야 한다. 차가 다닐 수 있는 임도가 나있지만 경사가 급하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걸어가는 편이 좋다.

25분쯤 걸으면 등산로와 태고사 가는 방향으로 나뉘는 갈림길이 나온다. 갈림길에도 주차할 만한 공간이 있지만, 눈 쌓인 겨울에는 경사가 심해 이곳까지 차가 이동할 수 없다. 태고사를 들렀다가 가려면 30분쯤 더 걸어 우암 송시열의 글씨가 새겨진 석문을 지나 15분쯤 계단을 오르면 바로 태고사다.

태고사에서 산행할 수 있는 길은 폐쇄되어 온 길을 돌아 갈림길까지 가야한다. 갈림길 왼편 끝에서 산길로 들어서면 바로 골짜기를 건너가는 쇠다리마고 있고 잘 손질된 길이 위쪽으로 나있다. 낙조대 고개로 오르는 길은 너털길이다. 배티재와 장군봉으로 가는 갈림길이 시작되는 곳을 지나 곧 낙조대 고개에 이른다. 낙조대에서 마천대까지는 40분쯤 걸린다.

info

태고사는 마천대 능선에 있는 사찰로, 신라 신문왕 때 12승지의 하나로 꼽은 명당으로 원효대사가 창건했고 대웅전만 72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6.25전쟁으로 대부분 소실되고 최근 대웅전, 무량수전, 관음전을 중창했다. 태고사를 돌아 낙조대에 오르면 대둔산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다.

- 1 태고사 범종루. 원효스님이 태고사 자리를 보고 기뻐 춤을 추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만큼 빼어난 장관을 보여준다.
- 2 석문 안내판. 석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깃들여져 지나는 이들이 허투루 지나지 않게 한다.
- 3 대둔산 개척탑은 현재 완주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철거를 논의 중이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4 바위 틈새로 뻗어 자란 소나무의 생명력이 놀랍다.



8코스

옥계동 -(60분)- 옥계봉 -(40분)- 안심사 삼거리 -(45분)- 829봉 -(60분)- 마천대 ⇨ 소요시간 3시간25분

충남 금산군 진산에서 배티재를 넘으면 시설지구에 이른다. 이 들머리를 지나 계속 내려가면 옥계천을 만난다. 괴목동천이라고도 불리는 이 계류는 금산군의 남이면 산골에서 흘러내린다. 옥계천은 대둔산 줄기와 천등산 사이를 흘러내리며 두 산의 사이를 지날 때는 양편의 산비탈이 몹시 가팔라서 17번 국도와 맞닿는다. 국도변에 대둔산 자락을 끼고 있는 마을 두 개가 있는데, 이곳 중간쯤 되는 곳의 개울쪽 길가에 차를 세워둘 수 있는 주차장이 있다. 길가 주차장 맞은편에 남릉 들머리 안내판이 서있다. 여기서부터 산행이 시작된다.

산길은 처음부터 들계단이 가파르게 이어진다. 길은 남릉 끝머리 부분에 우뚝 솟은 신선바위 벼랑 아래를 지나 뒤의 절벽으로 올라가는 길이라서 온통 돌길에 가파르다. 신선바위에 올라서기 전에는 바위 사이의 비좁은 틈새에 철사다리와 철책이 설치되어 있다. 신선바위에 올라서면 한동안 평평한 길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 간첩바위에 이르러서는 가팔라지지만 길지는 않다. 바위 아래는 낮지만 넓은 골이 있다. 이곳에서 간첩이 숨어 지내다가 붙잡혀 간첩바위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간첩바위를 지나 오르면 첫 번째 큰 바위봉우리에 오르게 된다. 남릉의 바위봉우리들은 높고 험해 오르기가 쉽지 않다. 오를 만한 봉우리는 벼랑의 서쪽 아래를 지나 봉우리의 뒤로 돌아 올라야 한다. 옥계봉에서의 조망은 매우 좋다. 계룡산은 물론이고 서대산, 진악산, 덕유산, 운장산 등이 조망되고, 장군바위, 동심바위 등 남면 일대의 기암괴봉 또한 조망된다. 옥계봉을 지나고 난 뒤에도 험하고 높은 바위봉우리는 계속 이어진다.

산행한 지 2시간쯤 되어 쌍칼바위 안내표지기가 있는 곳에 다다른다. 길은 자연스럽게 금오봉으로 이어진다. 금오봉에서 안심사로 내려가는 삼거리봉을 넘고 바위봉우리 하나를 더 지나면 대둔산 서봉인 829m봉에 닿는다. 이곳에서 덕유산, 운장산, 모악산, 서방산, 운암산 등이 조망되고 눈산시가 보인다. 829m봉에서 마천대까지는 1시간쯤 걸린다.

info

금오봉은 금자라 봉우리라는 뜻으로 자라가 목을 쳐들고 있는 형국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자라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훌륭한 조망대다. 머리 부분에 이르는 바위길과 자라 머리 부분은 높은 벼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철책과 계단이 설치되어 안전사고를 비연에 방지하고 있다.



응용 코스가이드

마천대 정상까지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다. 마천대 정상에서 내리는 길을 다르게 하면 여러 가지 코스로 응용해서 산행할 수 있다. 오르는 길은 달리해도 각 포인트에서 내리는 길을 달리하거나 다른 지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정상 전 삼거리에서 안심사와 낙조대 방향으로 내려설 수 있다. 안심사로 향하는 길을 나아가면 정상 남릉으로 이어진다. 남릉에서 내려서 10m 지점에 안심사 2.3km와 마천대 1.15km의 거리를 알려주는 안내표지기가 서있다. 마천대에서 이곳까지 능선길은 뚜렷하다.

안심사 방향으로 난 남릉도 사람의 왕래가 잦아 길이 잘 나 있고 안내판도 요소마다 서 있다. 20분 뒤 안심사 방면으로 갈림길이 나선다. 쌍칼바위 팻말을 지나 15분쯤 내려간 지점에서 왼쪽으로 급경사 내리막이 시작된다. 경사진 길을 25분쯤 내려가면 신선바위를 알려주는 안내표지기가 서 있는 철난간이 나온다. 25분 뒤엔 옥계천변 등산로 안내판이 선 아스팔트 도로로 내려선다.

정상 전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는 낙조대 가는 길이다. 급경사 계단길은 협곡 안으로 길게 이어져 내려간다. 우측으로는 수많은 암봉들이 주변을 가득 메운다. 30분을 내려가면 만나게 되는 칠성봉 전망대는 조망이 매우 좋다. 완만한 평지에서 전망대쪽으로 올라가면 용문굴에 이어 철난간으로 만든 전망대가 있다. 이 암봉 아래로 케이블카 상부 탑승장으로 가는 등산로가 나 있다. 길게 가로지르는 남쪽 사면길이고 뚜렷하며 안내판도 서 있다.

케이블카 종점에서 정상까지는 30분이면 닿는다. 정상에서 용문굴 삼거리까지는 30분, 용문굴 삼거리에서 용문굴을 지나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돌아오는 길은 1시간쯤 걸린다. 칠성봉 전망대 아래 안내판이 선 곳에서 남쪽 장군봉으로 가지 말고 동쪽으로 가면 용문굴 계곡길이다. 왼쪽으로 산비탈을 가로지른 뒤 급경사 철난간을 내려가면 바로 신선암이 나온다. 신선암 아래 작은 공터에서 왼쪽으로 계곡을 향해 내려간다. 계류를 건너 산사면을 가로질러 가다가 우측으로 다시 건너 10분쯤 내려가면 도로변이 나온다. 이곳에서 시설지구까지는 10분쯤 걸린다.

산행 들머리와 날머리를 달리할 수 있는 코스가 많아 기분에 따라 어떻게 들어갔다 나와도 무방하다.

교통

완주 방면은 전주나 대전에서 시외버스가 운행한다. 시설지구에 위치한 대둔산 터미널까지 대전과 전주에서 가는 버스가 있다. 전주 터미널(063-270-1700)에서 대둔산행 직행버스 하루 5회 운행. 금산 발 대둔산행은 1일 5회(06:40 09:00 09:40 14:20 15:50) 있고, 60분 소요된다. 대전 서부터미널(042-584-1616)에서 시설지구까지 하루 3회 운행(07:45 13:20 17:30). 소요시간은 40분.

논산 방면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락계곡까지 304번 시내버스가 운행한다. 논산→수락폭포 06:10, 07:00, 08:50, 10:10, 13:30, 14:50, 16:10, 17:10, 19:10, 20:10 / 수락폭포→논산 07:15 08:10 10:15 11:25 14:30 16:00 17:25 18:10 20:20 21:10.

대전 서부터미널에서 배티재(대둔산휴게소)까지 43번 대전외곽버스가 운행한 대(6:00, 6:35, 7:10, 7:45, 8:20, 9:00, 9:40, 10:20, 11:00, 11:40, 12:20, 13:00, 13:35, 14:10, 14:45, 15:25, 16:05, 16:45, 17:25, 18:05, 18:40, 19:20, 20:00, 20:40, 21:20, 22:00).

승용차 이용시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안영 나들목을 통과한 후 고가도로 아래 사거리에서 좌회전해 복수 방면으로 계속 직진한다. 8.3km 전방 선무교 차로에서 좌회전한 후 다리 건너 다음 사거리에서 직진한다. 7.3km 전방에 두지 삼거리가 나오는데, 연산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전방 1.2km 지점 태고삼거리에서 좌회전하면 1.4km 전방에 관리사무소 주차장이 나온다. 주차장에서 태고사 가는 길을 따라가면 2.2km 전방이 시설지구 대둔산 입구다.

산행 문의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063-263-9949), 논산시 대둔산 도립공원(041-730-4594), 금산군 산림정책과(041-750-3411).

삼선구름다리 전망대. 다리에 올라서면 아래로는 완주쪽 대둔산이 보이고 위로 는 마천대가 조망된다.



해외산행 중국 운남성 옥룡설산



장쾌한 전망 속에서 옥룡의 꿈틀거림을 느끼다

새로 개발한 모우핑 상단 상그릴라행 트레킹

글 사진 | 신준식 기자



- 1 설산초옥에서 하산 중, 왼쪽 끝에 솟은 봉우리가 옥룡설산이다. 은빛 용이 누워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2 모우평공파에서 송인자씨가 마니차를 돌리고 있다. 마니차는 불교 경전을 넣은 경통으로 티베트 민중의 신앙도구다. 마니차를 한 번 돌릴 때마다 경문을 한 번 읽는 것과 같다고 한다.
 - 3 모우평 곤돌라. 1.2km 길이로 해발 3,500m 지점까지 올라간다.
 - 4 교두로 가는 도중 차가 밀려있다.
- 이들은 2~3시간 동안 차가 꼼짝을 안 해도 절대 불평을 하지 않는다.

옥룡설산은 운남성 리장 서쪽에 위치해 있고, 최고봉인 선자두(5,596m)를 비롯해 13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다. 은빛 용이 누워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이곳에 서유기의 손오공이 갇혀 있었다고도 전해져 중국인들은 옥룡설산을 거룩한 성산으로 여기고 있다.

이번에 혜초여행사와 옥룡설산주식회사가 새로운 트레킹코스를 개발했다. 모우평에서 정인 승마장, 운삼 원시림을 거쳐 설현대 협곡 정상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약 6.5km 구간으로 9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일명 ‘옥룡설산 샹그릴라 코스’다. 모우평 위로는 이번에 처음 개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코스는 하루에 고도 2,000m를 올라야 하기 때문에 등산 초보자의 경우 고소증세를 겪을 수도 있다. 이 샹그릴라 코스는, 뉴질랜드 밀포드사운드 트레일, 페루 마추피추 잉카 트레일과 함께 3대 트레일로 유명한 호도협 차마고도 트레킹 등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니 이들을 먼저 돌아보고 온다면 트레킹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3

4



1 일출소우를 지나서, 여행객들을 말에 태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만났다. 이들은 우리가 혹시나 걷기를 포기할까 싶어 계속 일행의 뒤를 쫓았다.
2 일출소우를 출발하는 일행. 앞으로 눈 덮인 옥룡설산이 보인다.



생각보다 초라한 차마고도를 지나서

비행기창으로 햇살이 눈부시게 들어온다. 사천성 성도지역의 침침한 안개 속을 지나고 얼마 안 되어 기내가 밝아지자 승객들의 움직임이 부산스러워진다. 곧 비행기는 새로 단장한 리장공항에 도착한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역시 옥룡설산이다. 구름 한 점 없는 코발트색 하늘에 몇 개의 봉우리가 눈이 덮여 선명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버스로 호도협 트레킹 시작지점인 교두로 이동하는 동안 옥룡설산은 뒤에서 산 하나가 나타나 이내 금사강을 가운데 두고 두 개의 큰 산으로 나뉜다. 왼쪽이 합바설산, 그리고 강 건너가 옥룡설산이다. 차마고도는 왼쪽 합바설산 등성으로 길이 이어져있다. 특히 여기서부터 16km는 양쪽에 있는 큰 산 때문에 강폭이 매우 좁아 호랑이가 강을 뛰어넘어갔다고 해서 호도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차마고도는 운남성 남쪽에서부터 시작해 리장, 샹그릴라를 거쳐 티베트의 수도인 라사까지 약 3,000km가 이어진다.

티베트인들은 주식인 야크 젖과 고기이고 먹을거리도 다양하지 못해 늘 채소류가 부족했는데, 차는 그 부족한 비타민을 채워주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 길이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의 영양 공급로였던 동시에 다른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는 문화전파로였던 셈인데, 그 역할에 비하면 너무 위태롭고 작은 길이어서 애처로운 마음까지 들게 한다.

교두에서 '뽕차'를 타고 15분 정도 가니 시작지점인 일출소우다. 이제 이곳에는 더



이상 마방들은 없고 대신 그 자리에 여행객을 말에 태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손님이 없어도 혹시나 걷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 계속 뒤를 쫓아오다가 해질 무렵에야 돌아섰다. 15분 정도 오르자 전망 좋은 곳이 나타난다. 바람소리와 물소리, 장쾌한 전망에 청각효과까지 보태니 옥룡의 전설이 바로 눈앞에 나타날 듯하다. 완만한 경사를 1시간 정도 오르자 나시객잔이 나타난다. 공항에서 이곳으로 오는 중간에 길이 막혀 시간을 지체해서인지 해는 벌써 산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객잔에 들어서자 여주인이 따뜻한 차를 내놓아 마음이 훈훈해진다. 다시 밭걸음을 옮긴다. 곧 호도협(호도협)의 제일 어려운 곳인 28밴드가 나타난다. 객잔의 해발이 2,100m이고 밴드의 꼭대기가 2,700m에 가까워 길은 꽤나 가파르다. 어둠은 밀려오고 공기는 차가워지고 바람소리, 물소리, 높아진 고도로 가빠지는 숨소리가 28번의 굽이길을 돌아간다.

뚜렷해지는 별빛을 확인하고서야 밴드 꼭대기에 선다. 높은 곳에 올라서야 많은 별을 볼 수 있다는 아주 쉬운 진리를 깨닫고는 다시 밭걸음을 재촉한다. 나시객잔을 출발해서 3시간 정도 걸려서 차마객잔에 도착한다.

3 장선생객잔으로 내려서는 길. 여기서 중호도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호도협 트레킹을 끝난다.
4 중도객잔에서 잠시 쉬고 있다.






- 1 호도협 트레킹 최고의 장관인 관음폭포. 낙차가 500여m 정도 돼 보였다.
- 2 신수를 지나 삼나무숲을 지나고 있다.
- 3 중호도협 전경. 호도협은 우기로 접어드는 5월~11월 사이에 물살이 거세져서 보기가 좋으나 11월 이후는 물의 양이 줄어 물살이 그다지 세지 않다.
- 4 모우평에서 여행에 참가한 일행.

햇살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곳

다음날, 중도객잔으로 해서 관음폭포를 지나 장선생객잔에 도착한 뒤 중호도협으로 내려갔다가 오는 일정으로 5시간 정도 걸으면 되는 비교적 어렵지 않은 코스다. 날이 밝았어도 해를 보려면 한참을 기다려야한다. 객잔 앞에 옥룡설산이 있어서 해도 산을 넘기가 벅찬 듯하다. 차마객잔을 출발한지 1시간만에 중도객잔에 들어서자 어제 비행기의 작은 창을 뚫고 들어오던 햇살이 이제 옥룡설산 뒤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다. 온혈동물도 햇볕을 받아야 몸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물었던 입도 열리기 시작하고 행동도 빨라진다.

차마고도는 자로 그은 듯 평탄하게 이어진다. 1시간 정도 더 가자 관음폭포다. 대개 폭포는 계곡을 따라 생기는데 이 폭포는 계곡 옆으로 물이 흘러내린다. 저위 어디쯤에선가 물길에 터져 밖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데 낙차는 500여m 정도 되어 보인다. 조금 더 가자 티나객잔과 장선생객잔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온다. 1시간 정도 협곡쪽으로 내려오면 장선생객잔이 나오고, 그곳에서 중호도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호도협 트레킹이 끝난다.

호도협은 우기로 접어드는 5월에서 11월 사이에 물살이 거세져서 보기가 좋으나 날씨가 맑은 날이 얼마 없고 건기로 접어드는 11월 이후에는 꽤청한 날이 많은 반면 물살이 거세지 않다고 한다. 





TREKKING POLES

가격과 크기,
성능이 완벽하게
조화된 이상적인
여성용 트레킹 폴

블랙다이아몬드
트레일 우먼 시리즈



Information

옥룡설산 모우평 트레킹

옥룡설산 국가풍경구 안으로 들어가 모우평 곤돌라를 타고 15분 정도 오르면 해발 3,180m에서 곤돌라는 1.2km의 길이로 해발 3,500m 위까지 올라간다. 야크 평원이라는 뜻의 모우평답게 멀리 야크떼가 보이고, 넓은 평원 위로 옥룡설산의 암봉들이 줄지어 서있다. 뒤쪽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광활한 평원 위에 솟아오른 모습이 장관이다. 조금 더 올라가면 곰파다. 헤초여행사 백재호 과장에 의하면 이 코스는 트레킹보다는 등반에 가깝다.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고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모자를 벗거나 옷을 벗으면 금방 고소증을 느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전날부터 다이아몬드(고산증 예방약)를 먹어도 좋으나 약 섭취 전 경험자의 조언을 먼저 듣는 것이 좋다.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전해지는 정인승마장을 지나면 곧 신수 앞이다. 삼나무숲을 지나면 이어 또다시 구름지대인 산야목장이 나온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헤초여행사에서 지어놓은 해발 3,800m의 설산초목이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오르는데, 여기서 각자 컨디션에 맞추어 더 등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가파른 숲길을 따라 올라 여신동(4,060m), 설산아구(4,170), 설련파(4,300m), 설련대협곡(4,550)을 거쳐 대협곡 정상(4,600m)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에서 전날 호도협 트레킹 중 보았던 봉우리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다시 돌아서 모우평으로 내려오면 트레킹이 마무리 된다.



옥룡설산 안내도



GO ONLINE FOR MORE : TREKKING POLES
www.bdel.co.kr > Mountain Gear > 트레킹 폴



Black Diamond™
www.bdel.co.kr 1544-8619

눈 내린 갯가를 보러 갔다

글 | 장보영 기자 사진 | 신준식 기자



물이 빠질 오후녘, 구도항을 지나 갯벌을 걸었다. 호수처럼 잔잔한 가로림만에 겨울 서해의 낭만이 넘실댄다.



제4구간 팔봉산길



서산에서 가장 서쪽에 솟은 산인 팔봉산에 서자 가로림만이 시야 가득 들어찼다. 태안과 서산의 해안이 품은 가로림만은 해양 생태계가 잘 보존된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다. 굽은 물 안에서 바다는 잔속 술처럼 흔들렸다. 아늑한 서해를 관망하기에 이만한 데도 없을 것이다. 문득 이 산을 키운 땅이 실하게 다가왔다.

충남 서산시 팔봉면 일대. 본분을 다한 산에서 내려와 이제 길로 들어설 때다. 산이 높이를 다하는 지점에서 길은 깊고 넓게 열리기 마련이다. 길은 산에서 떨어져 우리가 내다본 그 바다를 향해 멀찍이 터져 있었다. 반나절은 걸어서 그 끝에 설 것 같았다. 저녁 어스름 속에서 양길마을 어귀에 섰다. 요란하던 산객들은 어느새 간 데 없고, 바닷바람에 절여져 담 곁에 소복이 쌓인 겨울배추들만이 노란 속을 흔들며 타향의 객을 맞았다.



1 낙타 허리처럼 솟은 팔봉3봉. 아스팔트 농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바다가 흐른다. 2 대설(大雪)이다. 눈 쌓인 길을 하루 종일 우리만 걸었다.

“눈이 반짝거리며 우연처럼 그렇게 내려요, 지금.” 갯마을 어디 선가 흰 눈을 맞으며 걸으니 서정인의 소설 ‘강’이 떠올랐다. 뽕뽕 얼어붙은 겨울날, 눈이 쏟아질 듯 낮게 내려앉은 하늘 아래 충충히 걸어가는 일행의 뒷모습에 소설 속 김씨, 이씨, 박씨의 하얀 쓸쓸함을 포했다. 유년의 한 시절, 철 지나 아련한 꿈에 대해 말하던 낯색은 이야기는 분명 지금의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것이 있었다.

아침 10시, 팔봉산 입구 양길주차장을 들목으로 걷기 시작했다. 서산시청 문화해설가 김재신(50세)씨와 트레일코리아의 김진학

(46세)씨가 동행했다. 걸출한 입담을 자랑하는 재신씨는 지금부터 2년 전인 2011년 1월에 본지 취재진과 아라메길 제1구간을 함께 걸었던 것이 인연이 돼 다시 만났고, 진학씨는 부러 걱정하고 걸으려고 서울에서 같이 내려왔다. 그는 현재 국내외 여행자를 소개하는 ‘네이버여행’에 트레킹 자료를 제공한다. 그런 까닭에 길 곳곳에서 GPS와 위성지도 등을 능히 활용했다. 시도 때도 없이 무념무상하기 잘하는 나는 출발부터 기가 죽었다.

팔봉산 기슭 지나 바다에 닿으러

양길주차장을 벗어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갈림길에 섰다. 왼쪽의 양길마을을 외면하고 어송리 임도에 섰다. 평담하게 깔린 잔자갈을 밟으며 세속에서 엉긴 호흡을 풀었다. 텅 빈 길 위에는 앙상한 뿔나무만이 홀로 서서 겨울을 버티는 중이었다. 둘레길이 전국적 조명을 받으면서 독특한 수혜를 본 것 중 하나가 바로 임도다. 산정에 서지 않고도, 능선을 넘지 않고도, 산의 허리에서 이만큼 개운하게 차오를 수 있다니. 짜라기눈이 깔깔하게 두 뺨을 때렸다.

“선글라스를 가져올 걸 그랬시유. 시방 눈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시유.” 재신씨가 느리게 주위섬기는 말을 들으며, 문득 우리 네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나란히 걷는 상상을 했다. 실소가 터졌다.

팔봉산 기슭을 빠져나온 일행은 어느덧 아스팔트 농로에 섰다.



사방이 눈밭인 길 위로 강강한 바람이 지나가자 뼈마디가 시렸다. 길의 내용이 바뀌는 지점에서 팔봉면사무소까지 2.5km 남았음을 알리는 나무표지기가 우뚝 서 있었다. 길 곳곳에 파인 구덩이에는 농수가 얼었다. 농촌 서산의 면모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마늘 밭과 양파밭을 구별 못하고 ‘이건 뭐요?’ ‘저건 뭐요?’ 두서없이 물으며 걷기를 40분 쯤,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모르게 등 뒤로 팔봉산 최고봉인 제3봉이 낙타 허리처럼 솟아 있다. “겨우 300고지 구릉인데 한 폭의 병풍 같군요!” 진학씨도 감탄하며 연신 풍경을 잘라 카메라에 가렸다. 솔감저수지를 지나 면사무소, 농협, 마을회관 등이 소읍처럼 모인 어송마을을 에둘러 걸으며 길은 또 한풀 수그러들었다.

설경에 갇힌 포구

눈밭은 점점 세졌다. 화이트아웃. 소설 속 장삼이사들처럼 설경의 운치와 낭만에 젖어 고즈넉이 걷기를 바랐으나 이내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행보가 수월하지 않았다. 하얀 어둠 속에서 간간히 여로를 알려 주는 노란 깃발만이 펄럭였다. 구도항까지 4.4km. 온전한 날씨 속에서 본디 속도로 걷는다면 1시간쯤 걸리겠지만 이리저리 비척거리다만 족히 2시간은 걸릴 것이다. 함구한 모두는 묵묵히 걷기만 했다.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 오는 통에 간혹 뒤돌아 거꾸로 걷는 것이 이 길 위에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였다. 인적이 전무후무한 길을 우리만 걸었다.

그러던 찰라, 길 왼쪽에서 희미하게 찰랑이는 물빛을 본다. “하, 바다예요?” 내가 큰 소리로 물었다. “그러네. 언제부터 흐르고 있었대?” “기수(汽水)네요. 해수와 담수가 섞이는가 봐요.” “내게 강 같은 바다~!” “평화 같은 바다!” 서산은 이제 온전히 어촌으로 돌아서는 중이다. 바다는 멈춘 듯 가만가만 흔들리며 망망한 서해를 향해 내달렸다. 강 같은 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물이 태안이다. 그렇게 놀라며 걷기를 1시간 50분, 마침내 구도항에 들어섰다.

포구답게 슈퍼와 횡집 등 요기할 곳이 몇 군데 보였다. 화장실도 있었다.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탓에 내부가 청결했다. 구도슈퍼와 황해횡집이 길목에 차례대로 보였다. 몸

우럭. 소금에 절였다가 씻어 말리는 중이다. 우럭의 참맛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우럭포에 있다고 서산 사람들은 말한다.





몬테인 「백팩시리즈」 출시

medusa32



FABRIC : RAPTOR TL COLOR : MOROCCAN BLUE SHADOW PRICE : ₩145,000

cobra25



FABRIC : RAPTOR TL COLOR : MOROCCAN BLUE SHADOW PRICE : ₩145,000

anaconda18



FABRIC : RAPTOR TL COLOR : MOROCCAN BLUE SHADOW PRICE : ₩135,000

batpack6



FABRIC : RAPTOR TL COLOR : MOROCCAN BLUE SHADOW PRICE : ₩95,000

Raptor
TOUGH + LIGHT

컴팩트, 가벼워, 언제 어디서든 중요한 것으로 활용되는 등산 또는 장거리 여행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아웃도어 전문 백팩입니다. 초경량 백팩이지만 기능성 면에서는 단 한 치도 밀리지 않는 몬테인 백팩은 백팩 디자인의 역사를 다시금 열었습니다.

【후】크리피크
서울서강문구 경내동 327-2 오디타워 10F
TEL: 2045-7200 FAX: 02-478-8588
WWW.QDIPARK.CO.KR





호리에 들어서자 눈비와 바람이 거세졌다. 농가를 지나는 중 잉겔볼에 몸을 녹였다.

● Mini Interview

서산시청 문화관광과 김정겸 과장

“서산 아라메길은 품의 바닷길입니다!”



“서산 아라메길은 이름에서도 담고 있듯 바다와 산, 갯마을 등 천혜절경이 훌륭하게 어우러진 다분히 ‘서산스러움’ 길입니다. 백제문화유적을 한길에서 만날 수 있는 아라메길 제1구간은 지금도 한 달 평균 3,000여 명이 찾아와 길을 만큼 명성이 자자하지요.

행정안전부 녹색길사업의 일환으로 만들고 닦아 온 서산 아라메길을 이제는 책임 있게 관리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정

여행의 일환으로 바닷물 절임김치와 육쪽마늘 판매, 갯벌체험 등 서산 주민들의 소득사업과도 연계할 방안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가야산 권역에 산재한 백제문화재를 위시해 해미읍성, 삼길포, 황금산, 팔봉산 등을 만날 수 있는 서산 아라메길을 함께 걸어요!”

도 녹이고 목도 축일 겸 슈퍼로 바빠 들어갔다. 온장고에서 병 두유와 캔 커피를 꺼내 계산했다. 점심거리로 싸온 김밥이 있었기에 함께 마실 것이 필요했다. 우리 네 사람은 슈퍼 귀퉁이에 서서 묵묵히 민생고를 해결했다.

신세를 지는 터라 주인에게도 김밥 한 줄을 건넸다. 무뚝뚝하던 충청도 양반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뭐드러 여기까지 오셨시유?” “고행하러 왔소!” “대단들 혀요. 이 눈비에? 어디서부터 출발하셨시유?” “팔봉산 주차장이요. 이렇게 걸어서 호리 지나 다시 팔봉산 주차장으로 돌아갈 거예요. 한 바퀴 깔끔하게 돌기로 했소.” “허허. 뭐담시 그런디유?” “그러게요. 허허.” 번갈아 답하던 일행은 약속이나 한 듯 헛웃음을 짓고 말았다.

눈은 어느새 멎었다. 호리까지 6.7km 남았음을 알리는 이정표 앞에 서서 시간을 가늠했다. “지금이 1시니까 이 곳은 날씨에 이 속도라면 호리는 4시는 넘어 도착하겠는데요?” 진학씨가 말한다. “일단 가보는 데까지 가봅시다. 호리 마을회관 앞으로 버스가 다니니까 상황이 정 안 되면 중도 타고 오죠.” 신 기자가 답한다. “이런 날에 버스가 다닐까나...” 재신씨는 걱정부터 앞섰다.

마침 물이 빠져 뽕로 나갔네

갯마을 사람들이 집마다 걸어 둔 달력을 가만 보면 서울이나 내륙 지방에서 쓰는 것과 다르게 조석표, 이른바 ‘물때’라는 것이 기록돼 있다. 연안이나 내해를 향해하기 위해서다. 나날이 고조와 저조가 적혀 있는데, 각각 만조와 간조 때를 말한다. 한 물, 두 물, ..., 다섯 물, 사리, 여섯 물, 일곱 물, ..., 열세 물, 조금, 무쉬, 한 물, 두 물 순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조금과 무쉬에 가까워질수록 간만의 차가 약해 조류의 흐름이 약하고, 사리에 가까워질수록 간만의 차가 심해 물살이 세다.

아라메길을 걷던 12월 5일은 조금과 무쉬를 하루 앞둔 열세 물때. 마침 하루 중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진 때라 우리는 3km 갯벌을 널찍이 걷기로 했다. 이 바닷길은 썰물시에만 진입할 수 있다. “잘 다녀요. 아직도 뽕이 짙어유.” “바위가 꼭 오늘 아침 해장국으로 먹었던 선지 굵은 것 같네요.”

범 호(虎)에 마을 리(里)를 써서 호리다. 마을의 지형이 입을 크게 벌린 범의 머리 같아 그렇게 부른다고 재신씨는 소개했다. 허나 범도 자연의 풍파를 거스르지는 못했다. 갯벌 체험장에서 호리항으로 굽어드는 지점에서 강풍 속 눈비가 거세게 온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스산에서 겨울맞이 제대로 하구만유.”

반나절을 쉬지 않고 내리 걸었는데도 날이 꺾어 원점회귀지점인 양길주차장까지 8km나 더 남았다. 오갈 데를 고민하는데 흡사 우리 앞에 1시간에 한 대 꼴로 다니는 완행버스가 운명처럼 섰다. “여기부터는 내일 다시 와 걷기로 해요. 이런 눈 속에서는 아무것도 못 봐요.” 오후 3시 30분, 아직 한길이 더 남았거늘 인적 드문 곳을 바닷만 걷고 있다. 🌧

서산 아라메길(제4구간)

소재 충남 서산시 팔봉면

거리 22km

시간 6시간

난이도 ▲▲▲▲△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진정한 ‘아라메’ 길

▶ 서산의 서는 서녘 서(西)가 아니라 상서로울 서(瑞)다. ‘상서로운 산’이라는 뜻의 서산에 솟은 산 팔봉산(362m)은 여덟 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펼쳐진 이 고장의 명산. 그 산을 키운 팔봉면은 청정 농촌과 어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소읍으로 양길리, 덕송리, 호리를 아늑하게 품고 있다. 서산 아라메길은 바다의 고유어인 ‘아라’와 산의 우리말인 ‘메’가 합해 탄생했다. 총 88km로, 지선까지 합해 모두 7개 구간에 이른다. 그중 제4구간인 ‘팔봉산길’은 아라메길의 진면모가 여실히 드러나는 천혜의 길이다. 산길과 논길, 포구와 갯벌 등을 지나는 22km의 야생 탐방로를 지칠 때까지 견노라면 가야산 백제문화권의 위용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서산 서민들의 고박하고 투박한 삶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서산시 문화관광과 041-660-2540.

- 1구간 운산면 유기방가옥~해미읍성 동헌 → 18km
- 1-1구간 용현계곡~보원사지 → 9km
- 2구간 해미 순교성지~한티고개 → 11km
- 3구간 삼길포 관광안내소~황금산 → 18km
- 3-1구간 삼길포~전대대~삼길포 → 3km
- 4구간 팔봉산입구~호리~팔봉산입구 → 22km
- 5구간 대산목 사거리~부춘산~대산목 사거리 → 7km

1 눈 쌓인 갯벌. 만조가 되면 사라질 풍경이다.
2 개심사. 작고 아늑한 사찰이다. 3 마애여래삼존상. 자애로운 미소에 얼어붙은 마음이 녹는다. 4 간장꽃게장. 밥과 함께 감태에 싸 먹는다.



👤 교통

서울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서산행이 하루 4회 다닌다(7:20, 10:25, 14:30, 18:10). 또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서산행이 6시 30분부터 20시까지 40분에 한 대꼴로 다닌다. 모두 3시간쯤 걸리며 요금은 7,600원.

서산 공용버스터미널에서 팔봉면 어송리 양길리행 시내버스를 탄 뒤 팔봉산 입구에서 내린다(6:25, 8:20, 10:05, 10:50, 12:00, 14:35, 15:30, 17:05, 18:30). 20분쯤 걸리며 요금은 1,200원.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665-4809, 서령버스주식회사 669-0555.

서울에서 승용차를 탈 경우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서산 나들목으로 나와 32번 국도와 634번 지방도를 통해 팔봉면으로 향한다.

🏠 잘 데와 먹을 데

제4구간 들목인 팔봉산 양길주차장 부근에 먹을 데가 많다. 코뚜레(662-7798), 팔봉산가든(662-1718), 산아래침터(662-7765) 등이 있다. 구도항 부근에도 먹을 데가 많다. 갯마을횃집(662-6176), 구도횃집(662-6117), 황해횃집(662-6069), 팔봉식당(662-6052) 등이 있다. 항구 유일의 슈퍼인 구도슈퍼(663-0912)에서 물과 간식을 보충할 수 있다. 동문동의 향토(668-0040)는 간장꽃게장과 우렁젓국이 유명한 맛집이다.

잘 데로는 팔봉산 솔바다민박(663-4999), 팔봉산민박(664-4405), 올리브민박(665-4258), 구도항 갯마을민박(663-6175), 유엔아이민박(663-0734) 등이 있다. 단체로 움직일 경우를 위해 펜션도 함께 소개한다. 팔봉면 고파도펜션(662-7990), 해미래펜션(662-1665), 펜션로즈(663-0388) 등이 있다. 팔봉면에서 감자, 옥쪽마늘, 바지락, 감태, 굴, 양파 등의 수산물을 주문판매한다. 팔봉면 홈페이지를 참조한다. www.8bong.kr.

🔍 볼거리

• **마애여래삼존상** 운산면 용현리에 위치한 국보 제84호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마애불 중 가장 뛰어난 백제 후기의 작품이다. 얼굴 가득한 자애로운 미소에서 당시 백제인의 온화하고도 낭만 어린 기질을 엿본다.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웃는 얼굴이 달라지는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

• **개심사** 운산면 신창리 상왕산에 자리한 작은 고찰로, 백제 의자왕 14년(서기 654)에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5월 초까지 희귀한 왕벚꽃이 피어 찾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Topic & News

January 2013

수락산에 **산타** 오셨네!

한양고산악회원들 수락산 하강바위서 산타 퍼포먼스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 둔 작년 12월 21일

수락산 하강바위에서 성탄축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한양고산악부원들.

이들은 독자들에게 동심을 선물하고자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인정 회장 3회 연임하나?

1월 중 대산련 15개 시·도연맹 신입임원 선출



위 2012년도 대산련 신년 하례식. 축하 케이크를 커팅하고 있는 중앙연맹과 시·도연맹 임원들. 아래 이인정 대한산악연맹 회장.

대한산악연맹 산하 시도연맹은 각기 총회가 실시됐거나 준비 중이다. 이 중 임원선출이 끝난 연맹은 16개 시도연맹 중 7곳.

작년 12월 8일 가장 먼저 총회를 마친 전북연맹은 김성수 회장이 선출됐으며, 이후 12월 11일 부산연맹 홍보성, 대전연맹 차명관, 12월 15일 전남연맹 이상현(재임), 12월 18일 울산연맹 박만영(재임), 12월

20일 충북연맹 정동벽(재임), 충남연맹 이흥구(재임), 12월 23일 경남연맹 박준기 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그 외 경기연맹, 경북연맹은 12월 28일, 제주연맹은 12월 29일, 서울연맹은 1월 15일, 대구연맹은 1월 18일, 강원연맹은 1월 22일 총회가 열리며, 인천연맹은 1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광주연맹은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2년 뒤 총회가 열린다. 현재 연임 중인 대한산악연맹 이인정 회장의 4년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1월 22일 정기총회를 통해 회장 선거가 열릴 예정이라 3회 연임을 이룰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맹 이사회측은 후보등록마감일까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이 회장을 재선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제7회 아시아 황금피켈상에 뜨거운 반응

일본 산악전문지 록 앤 스노(Rock & Snow)

일본의 등반 전문 계간지 <록 앤 스노>(편집장 하기와라 히로시)는 최근 발행된 2012년 겨울호에서 토픽에 해당하는 온사이트(OnSite)란을 통해 한국에서 개최된 제7회 아시아 황금피켈상을 집중 보도했다. 기사는 총 2페이지 분량이며, 수상자뿐만 아니라 수상하지 못한 후보팀의 면면까지 자료 사진과 함께 상세히 소개했다.

다른 토픽은 모두 1페이지인 점을 감안한다면 제7회 황금피켈상 아시아에 대한 정보를 2배로 다뤄 이례적인 모습이다. 실제로 하기와라 히로시 편집장은 심사위원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아시아 황금피켈상 행사 전 과정을 지켜보며 취재를 겸했다.

기사는 수상자 단체사진을 시작으로 황금피켈아시아상 공동수상자인 한국 김창호·안치영과 중국 조우펑·리슈양팀, 제3회 황금피켈공로상 수상자 데니스 우르브크, 그리고 제5회 골든클라이밍슈츠상 수상자 민현빈의 사진을 차례대로 실어 그들이 이뤄낸 성과를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시상식 전날 수상후보자와 심사위원이 북한산을 합동으로 등반한 사실을 전하면서 아시아 황금피켈상 시상식이 단순한 시상식이 아닌 축제와 화합의 장으로서 소개했다.

2012년 제7회째를 맞은 아시아 황금피켈상은 지난 6년간 아시아 산악운동을 견인하며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해왔다. 산악인들의 축제

이자 순수하고 진보적인 등반가에 대한 격려의 장인 이 시상식은 각국 등반전문지의 추천을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한국의 경우 본지가 후보자를 추천했고, 일본의 경우 <록 앤 스노>가 추천했다. 중국의 경우는 중국등산협회가 추천했다.

<록 앤 스노>에 게재된 황금피켈상 아시아 기사.



안나푸르나의 전설 모리스 에르조그 타계

향년 93세, 프랑스인으로 인류 최초 8,000m봉 등정

인류 역사상 최초로 8,000m급 고봉을 오른 프랑스 산악인 모리스 에르조그(Maurice Herzog, 1919~2012)가 지난해 12월 14일(현지 시각) 파리 인근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리옹(Lyon) 출신의 엔지니어였던 에르조그는 1950년 6월 동료 루이 라슈날(L. Lachenal) 등과 함께 무산소로 안나푸르나 1봉(Annapurna I, 8,091m)을 초등정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당시 프랑스팀은 프랑스산 약화와 프랑스히말라야위원회의 히말라야 진출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에르조그는 네팔이 등반대에게 문호를 개방한 후 입국한 첫번째 원정대였다. 프랑스팀은 당시 아무런 자료조차 없이 지도의 공백지대나 다름없는 다울라기리(Dhaulagiri, 8,167m)와 안나푸르나 두 산의 지형을 정찰한 후 안나푸르나를 오르기로 결정했다. 등반을 시작한 보름 후인 6월 3일 에르조그와 라슈날은 캠프5를 출발, 오후 2시 인류 최초로 자이언트 고봉의 정상을 섰다.



왼쪽 모리스 엘조그의 안나푸르나 등정 당시 모습. 오른쪽 등정 후 부상으로 후송되는 에르조그.

그러나 등산 도중 복용한 약으로 인해 하산 도중 흥분상태에 빠진 에르조그는 무의식적으로 장갑을 벗었다가 이를 잃어버려 구조될 때까지 맨손으로 버텼다. 이로 인해 동상에 걸린 그는 결국 손가락과 발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했다. 당시 프랑스팀은 사상 최초로 나일론섬유와 두랄루민 등 경량의 장비를 사용하여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되는 8,000m 거봉을 단 18일 만에 초등, 나일론 등반대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안나푸르나 초등은 히말라야의 황금시대를 연 기폭제가 되었으며, 20세기에 실현된 가장 위대한 모험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에르조그는 자신의 기록과 이삭(M. Ichac), 라슈날 등의 개인 일기를 종합하여 병상에서 구술한 <Annapurna Premier 8000>을 1952년에 출간했다. 이후 그는 프랑스국립등산학교(Ecole Nationale d'Alpinisme) 교장, 샤모니 시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자인, '자랑스런 고대 체육인상' 수상

비경기단체 선수론 처음...고려대 고우체육회 '고대체육인의 날' 행사



고려대학교 고우체육회(회장 한영관)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6시30분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고대 체육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48학번 교우부터 일부 재학생 선수들까지 모두 500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축제 행사인 이 자리에서 '자랑스러운 고대 체육인상 시상식'도 거행됐다.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 쾌거를 일군 홍명보

올림픽대표팀 감독, 고우체육회 전임회장인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 국제스포츠클라이밍 세계선수권에서 종합우승한 안백여제 김자인이 이 상을 받았다. 또한 김영복 교수, 양제윤, 이승현, 정재용, 김주한 선수 등도 함께 수상했다. 재학생들에게는 상과 더불어 장학금도 주어졌다. 특히 이번 수상자 중 김자인은 비경기단체 선수로는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986년부터 시상된 이 상은 그동안 주로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국위 선양에 큰 공을 세운 정규 경기단체 선수나 감독들에게 주어졌다.

이번에 산악부문 스포츠클라이밍의 김자인이 수상자로 선정된 데 대

해 심사위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평. 이와 관련해 김지선 사무총장은 "비경기단체 선수라도 국가와 학교의 명예를 빛냈다면 시상하는 게 당연하다는 심사위원들의 생각"이었다고 전언. 이 날 김자인은 수상 직후, "홍명보 감독같은 대선배와 함께 수상하게 돼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한영관 고우체육회장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선배들로부터 이어져온 고대체육인 특유의 강한 정신력과 끈끈한 화합의 의지를 이어가자"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 2012 자랑스런 고대체육인상 수상자

- 공로부문 : 허광수(상학65)-아이스하키
- 지도부문 : 홍명보(체육교육87)-축구
- 특별상 : 김영복(행정64)-럭비
- 경기부문 : 김자인(체육교육07)-산악, 정재용(체육교육09)-축구, 이승현(체육교육11)-농구, 김주한(체육교육12)-야구, 양제윤(사회체육11)-골프

위 수상자 김자인과 한영관 고우체육회장. 아래 2012 자랑스러운 고대체육인상 수상자들.



올해의 산악인으로 김재수씨 선정

한국대학산악연맹, 산악인의 밤 성료



한국대학산악연맹 산악인의 밤 행사에서 올해의 산악인 상을 받는 김재수씨.

한국대학산악연맹(회장 이명규)은 올해의 산악인으로 김재수씨를 선정하고, 지난해 12월6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송년행사로 치른 제

30회 대학산악인의 밤 행사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인정 대한산악연맹 회장을 비롯한 산악계 인사들과 대학 선후배들이 300여 명 참가해서 성황을 이루었다. 진행은 개회사와 인사말, 축하, 그리고 시상식, 산노래공연, 재학생 장기자랑의 순으로 이어졌다.

1986년부터 이인정 명예회장이 지원해온 산악인상과 산악문화상은 코오롱챌린저팀의 김재수씨와 허궁열씨가 각각 수상했고, 박영석 대장의 도전정신을 기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박영석특별상은 한국 배려해협 횡단탐험대가 수상했다. 박영석특별상은 박영석탐험문화재단 성기학 이사장이 지원했다.

대학산악인들의 참여도가 높은 동계아카데미는 계절학기가 끝나는 날짜와 구정 사이인 1월30일부터 2월6일까지 설악산 일원과 판대 인공빙장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오경아씨, 산악구조대 사상 최초 여성대장에 선출

제주산악안전대... “젊은 산악인들 많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

제주도에서 한국 산악구조대 사상 최초 여성대장이 선출됐다. 오경아(43세)씨는 제주도산악연맹 소속의 여성 산악인으로, 1990년부터 제주산악안전대원으로 활동하며 산악 인명구조에 힘써왔다.

1988년에 제주대에 입학해 대통령기 등반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우승을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1992년에 제주시 무수천 코스 개척, 1996년에 북아메리카 최고봉인 매킨리 등정, 2001년과 2003년에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 내 엘캡을 등반했다.

2006년에는 스포츠클라이밍 심판자격을 취득해 심판으로 활동하고



산악구조대 사상 첫 여성대장 오경아씨
(출처: 한라일보).

있다. 오씨는 “최근 등산인구가 증가하며 산악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 등산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미리 지원하고 긴급 상황시 신속히 구조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선출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성능이 좋은 무전기와 GPS 단말기, 심장 제세동기 등 필요한 구조장비가 많은데 현재 예산이 없어 낡은 장비를 쓰고 있다”며 제주도에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국내 등반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데 반해 구조대원이 되려는 산악인은 많지 않다. 오씨는 “구조대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1961년 창단한 제주산악안전대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 산악구조대다. 제주산악안전대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뜻을 살려 전국 산악구조대 가운데 유일하게 ‘구조대’가 아닌 ‘안전대’라는 명칭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산악안전대원은 현재 37명으로, 여성대원은 오경아씨를 포함해 2명이다. 대원들은 교사, 자영업자, 회사원, 농부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한다.

“전 세계 최대 최장수 나무들 죽어가고 있다”

미국 · 호주 대학 연구진 발표

지구상 최대 생명체로 새와 야생동물의 안식처가 되고 있는 최대 최장수 나무들의 고사율이 높아지자 과학자들이 지난해 12월 경고를 올렸다. 미국과 호주 대학 연구진은 이 날 사이언스지에서 최대 최장수 수목 보호를 위한 정책 변화가 없으면 세계 생태계가 이들 나무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집필자인 호주국립대학의 데이비드 린든메이어 교수는 “이는 세계적인 문제며 대부분 유형의 숲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곳곳에서 코끼리나 호랑이, 고래 같은 거대 동물들이 급감하는 것처럼 거대 장수 수목들도 멸종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유럽,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호주 등 세계 모든 지역에서 수명 100~300년의 거대 수목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멸종 위기를 맞고 있는 나무들은 호주의 마운틴 애시, 미국 소나무, 캘리포니아 미국삼나무, 탄자니아의 바오밥나무 등이다. 연구 결과, 나무들은 산불로 인해 집단 사멸하는 것은 물론 산불이 없을 때에도 평년에 비해 10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꺾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최대 최장수 나무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원인으로 가뭄과 고온을 유발하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만연한 벌목, 농토 개간 등을 꼽았다. 수명이 오래된 거대 나무들은 조류의 30% 정도와 일부 동물들에 대해 보금자리나 동지의 터전을 제공하는 등 생태계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최장수 나무 바오밥나무.

New Gear

1월 신 상 품



파타고니아 노매드 2.0 워터프루프
폴리우레탄 방수 안창으로 지지력과 안정성이 탁월하다.
비브람 바닥창이 우수한 접지력을 보장한다.
가격 : 230,000원
문의 : 1544-1876 파타고니아코리아



가벨 카본 라이트
카본 섬유를 사용해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무게 : 186g
길이 : 66~142cm
가격 : 190,000원
문의 : 1544-1576 안나푸르나



페츨 시로코
발포 폴리프로필렌의 역학적 성질로 인해 충격완화가 크고 무게가 가볍다.
무게 : 165g
가격 : 미정
문의 : 1544-1576 안나푸르나



파타고니아 루비콘 다운재킷
700FP 유럽산 거위털 충전. 폴리에스터 립스탑 소재로 방풍, 발수가 탁월하다. 헬멧 착용시 후드 사용 가능.
가격 : 650,000원
문의 : 1544-1876 파타고니아코리아



노스페이스 셸록 다운파카
하이벤트 소재와 발열 안감소재로 방수 방풍 투습성이 뛰어나다. 구스다운 700FP로 보온성을 높였다.
가격 : 420,000원
문의 : 02)940-1301 골드윈코리아



코오롱스포츠 티타늄 재킷
원단에 티타늄을 입혔다. 티타늄 소재가 몸의 열을 잡아주고, 태양열을 흡수해 보온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색상 : 실버
문의 : 1588-7667 코오롱인더스트리



몬테인 노스스타 다운재킷

800FP 거위털 충전. 걸감으로 나일론 립스
타를 사용해 발수력과 통기성이 뛰어나다.
색상 : Electric Blue, Black, Steel
가격 : 390,000원
문의 : 02)477-8586 오디파크



아이더 피트니스 클라이밍 다운재킷

알루미늄 소재로 코팅해 따뜻하다.
색상 : 남-카멜, 카키, 다크네이비, 여-카
멜, 라이트카키, 블랙
가격 : 남-430,000원, 여-400,000원
문의 : 080-468-7782 케이투코리아



아이더 피핀 여성용 다운재킷

고밀도 경량 소재를 사용해 가벼우면서도 무릎
까지 내려오는 기장으로 보온력이 뛰어나다.
색상 : 라이트브라운, 다크네이비
가격 : 450,000원
문의 : 080-468-7782 케이투코리아



머펠 아발론

퍼텍스 소재가 사용된 800FP 헝가리산 남
성용 구스다운 재킷이다. 후드 탈부착이 가
능하다.
색상 : 블랙, 캐러멜 가격 : 590,000원
문의 : 02)320-0600 화승



머펠 화이트아웃

여성용 윈드스토퍼 구스다운 재킷이다.
800FP 헝가리산 구스다운이 보온성을 높
였다.
가격 : 550,000원
문의 : 02)320-0600 화승

블랙야크 히말라얀 다운재킷

고어텍스 2L 퍼포먼스 걸감 구스다운으로
방수 방풍 보온력을 높였다.
색상 : 블루, 네이비, 레드
사이즈 : 95~110 가격 : 598,000원
문의 : 02)2027-0800 블랙야크

몬츄라 히말라야 재킷

이테리 마르디니 다운으로 보온이 뛰어나
다. 고어텍스 소재로 방풍 발수 투습성이
탁월하다.
색상 : 블루, 레드 가격 : 1,550,000원
문의 : 02)352-3107 몬츄라코리아

밀레 익스퍼트 다운재킷

가볍고 질긴 퍼텍스 소재 걸감이 바람과 습
기를 차단한다.
색상 : 그린, 블랙, 오렌지, 블루
가격 : 450,000원
문의 : 02)306-7033 밀레



셰펠 플리스

나일론 12D의 후드 구스다운 제품으로 가
볍다. 800FP를 자랑하며 털 빠짐이 없다.
색상 : 남(청록, 와인) 여(오렌지, 바이올렛)
가격 : 359,000원
문의 : 1644-8848 예슬스포츠

에티 살루트 다운재킷 & 선셋 다운재킷

동유럽 거위털로 만든 크리스털다운을 사
용해 따뜻하고 복원력이 좋다.
색상 : 블랙, 그레이, 다크블루
사이즈 : S~L 가격 : 590,000원
문의 : 02)552-8680 필즈인터내셔널

카리모어 마커스재킷

후드 안쪽 체크 패턴이 포인트로 캐주얼하게
입는 다운재킷.
색상 : 검정, 노랑
사이즈 : 95~105 가격 : 258,000원
문의 : 02)2027-0801 동진레저

마운티아 락토스 다운재킷

나일론 2레이어 소재와 구스다운을 사용해
따뜻하다.
색상 : 카키 사이즈 : 90~110
가격 : 미정
문의 : 02)2027-0801 동진레저



노스랜드 덕다운재킷

솜털과 깃털 비율 9:1로 보온력이 뛰어나다. CWS테크 소재를 사용해 체내의 수분을 신속히 흡수하고 외부로 발산한다.
가격 : 142,000원
문의 : 031)995-6625 이엔에스



터누아 세인트 필드재킷

플라텍 서멀프로 소재로 신축성이 뛰어나다.
색상 : 그린, 레드
사이즈 : M~L
가격 : 250,000원
문의 : 02)2606-8898 라세스포츠



아크테릭스 페이스 AR 후디

몸에 밀착되는 디자인으로 보온력이 우수하고 기본 레이어로 활용하기 좋다.
가격 : 134,000원
문의 : 1644-1708 넬스스포츠



노스케이프 FAFNIR 네오 zip업 티셔츠

폴리스판 소재로 신축성이 우수해 움직임이 편하다. 노르딕 패턴이 돋보인다.
색상 : 와인, 라임
가격 : 119,000원
문의 : 3498-0357 패션그룹 형식



하그로프스 틸타 재킷

고어텍스 액티브 소재를 사용해 통기성이 우수한 방수 재킷이다. 독특한 패턴과 마이크로 테이핑이 무게와 부피를 줄였다.
가격 : 560,000원
문의 : 02)738-7733 하그로프스코리아



마무트 바더즈 재킷 우먼

합성섬유 이너를 따로 분리해서 입을 수 있다. 세련되고 차분한 색상이 돋보인다.
색상 : Dark Oak-Niagara
가격 : 260,000원
문의 : 02)553-3346 마무트코리아



후디니 클라우드 나인 티넥

가볍고 압축 수납 가능하며 레이어링이 용이하다.
색상 : 샌더버드-트루블랙
사이즈 : S~XL 가격 : 352,000원
문의 : 02)747-0622 씨엔케이컴퍼니



스마트울

PHD Smartloft Divide Full Zip 스마트울 로프트 소재로 습기에 강하다.
색상 : 여-Purple, White, Turquoise 남-Green, Blue, Black
가격 : 270,000원
문의 : 02)390-6114 (주)영원무역



마운티아 시보레밴드바지

무릎 부위에 케블라 원단을 사용해 내구성을 높였다.
색상 : Black, Charcoal
가격 : 108,000원
문의 : 02)2027-0801 동진레저



아크테릭스 마코 팬츠

다가능 인슐레이티드 스키 팬츠로 영하의 차가운 기온에서도 보온성과 편안함을 유지해 준다
가격 : 922,000원
문의 : 1644-1708 넬스스포츠



블랙아크 레전드

블랙아크의 새로운 미드솔을 적용해 접지력이 우수한 하이컷 등산화.
색상(사이즈) : 감색(250~300mm), 보라(230~260mm) 가격 : 335,000원
문의 : 02)2027-0800 블랙아크



케이랜드 RIVAL GTX

고어텍스 퍼포먼스 내피를 사용했다. 비브람 토크 아웃솔로 접지력을 높였다.
사이즈 : 3.5~10(UK)
가격 : 249,000원
문의 : 02)2242-1919 에스엔에스컴퍼니



스마트울 PHD Outdoor Heavy Crew
스마트울 소재로 흡습 속건 기능이 뛰어나고 보온성이 탁월하다.
색상 : Black, Dark Brown
가격 : 44,000원
문의 : 02)390-6114 (주)영원무역



카리모어 빈티지 35L
등판에 에어메시 소재를 사용해 통풍성을 높였다.
색상 : 보라, 녹색
사이즈 : 69~84 가격 : 158,000원
문의 : 02)2027-0801 동진레저



미스테리 랜치 그리즐리
전면 롱포켓과 강한 내구성이 특징이다.
가격 : 1,075,000(멀티캠)
문의 : 02)867-3311 유인터내셔널



에크메이드 몽고메리 스트리트 백팩
측면 캐라라 수납공간이 셔터찬스에 빠른 대응을 돕는다.
색상 : 그레이, 올리브 그린
가격 : 121,000원
문의 : 02)752-3304 대광엔터프라이즈



네파 스쿠도
TR90 소재 프레임을 사용해 외부 충격에 강하다. 안티포그 렌즈로 김서림을 최소화시켰다.
가격 : 155,000원
문의 : 02)535-6346 로디프



캠프 엑스드림
특허기술을 적용해 핸들 각도 조절이 가능한 유일한 제품이다. 손잡이에 있는 스크류로 빙벽 모드와 드라이틀링 모드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문의 : 02)749-0480 호상사



스노우라인 체인젠 프로
스테인레스 재질 피크로 녹슬지 않는다. 유선형 밴드 디자인이 탈착이 편리하다.
사이즈 : S~XL 무게 : 370g~440g
가격 : 49,000원
문의 : 031)683-8305 스노우라인



미스테리힐 비트헬
립스탑 원단을 사용해 1.2kg으로 가볍다.
색상 : 레드, 그레이
수용인원 : 8인
가격 : 340,000원
문의 : 070-7656-2313 미스테리힐



밀레 스톤에이지 패딩 글러브
사무드 패치로 그립감을 높이면서도 독특한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여성용 장갑.
색상 : 옐로우, 바이올렛
가격 : 58,000원
문의 : 02)306-7033 밀레



만젤라 마스토돈미트 글러브
신술레이트 단열재가 충전된 하이드로 블록 재질의 방수 방풍 보온 장갑.
색상 : 블랙 사이즈 : M~L
가격 : 116,000원
문의 : 02)956-2895 카라빈캠프



써밋 베짱이글러브
안감은 기모로 따뜻하다. 손바닥 실리콘 프린팅으로 그립감이 뛰어나다.
색상 : 레드, 블랙 사이즈 : M~XL
가격 : 77,000원
문의 : 02)471-8850 써밋



블레부
안쪽 모피 원단이 머리와 귀를 따뜻하게 한다.
색상 : 호피벨벳
사이즈 : Free
가격 : 118,000원
문의 : 02)2248-8799 블레부

Man & Mountain



정기구독을 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 월간 「사람과 산」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기본 1개월치 구독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 별책부록이 포함된 달의 인상된 책값을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 몽벨 솔더백은 핸드폰, 지갑, 여권, 수첩 등을 넣고 다닐 수 있는 소형 여행용 가방입니다.
- 토리오네 선글라스 색상은 블랙, 레드 두 가지입니다. (이 중 한 가지 선택)
- 책 발송은 빠른 배송을 위하여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는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1년 정기구독 신청시

(몽벨 솔더백 or 만화 아웃도어 or 1개월 연장)



108,000원

99,000원



216,000원

190,000원



2년 정기구독 신청시

(토리오네 선글라스 or 후지 인스탁스미니7+필름 or 카라나 방수팩 or 2개월 연장)

지금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www.mountainkorea.com

(02)2082-8833

■ 정기구독을 하시려면

- ① 독자서비스 담당자에게 전화를 주시면 즉시 처리해 드립니다.
- ② 인터넷 신청(신용카드 결제 가능)
- ③ 책 속에 든 주문엽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느 은행에서나 99번 지로 창구에서 저희 지로번호인 5086935로 내시면 됩니다)

■ 결제계좌

우리은행 816-204820-13-101
국민은행 477401-01-075440
농협 033-01-211508
예금주 조만녀(도서출판 사람과 산)

■ 국내 정기구독료

6개월분 52,000원
1년분 99,000원
2년분 190,000원
3년분 273,000원

■ 해외정기구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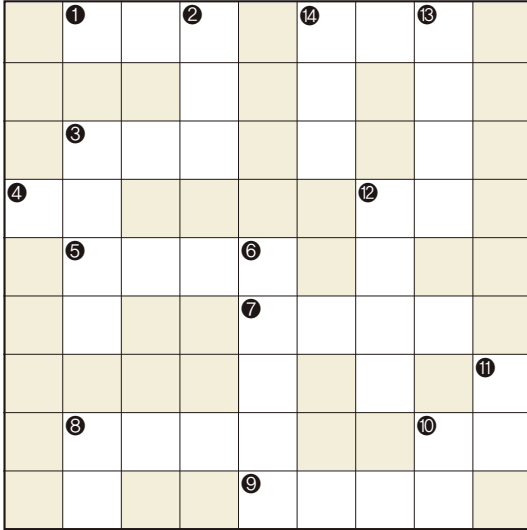
전화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
mountain21@mountain21.co.kr

Puzzle

독자마당 | 퍼즐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주)에이텍에서 **줌 포커스 손전등**, (주)호상사에서 **날진 물통과 보온케이스 (1L)**, 데이타임에서 **무릎보호대**, 산보일에서 **산보일**을 드립니다.
정답은 독자엽서에 적어 매달 15일(도착일 기준)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애독자 설문카드를 충실히 작성하신 분을 우선합니다.



〈가로열쇠〉

- ① 대둔산 정상 이름.
- ③ 선인봉이 있는 산.
- ④ 공립학교의 반대말. oo학교.
- ⑤ 공격과 수비를 교대한다는 말.
- ⑦ 전라도의 북쪽.
- ⑧ 이번 달 철도산행에서 봉두산을 갈 수 있는 역.
- ⑨ 히말라야 14개 고봉 중 가장 낮은 봉우리. 중국 티베트에 위치해 있다.
- ⑩ 새로운 영화를 처음 상영하는 것.
- ⑫ 여성의 반대말.
- ⑭ 스포츠클라이밍 여제. 이번 달 피플 참고.

〈세로열쇠〉

- ② 전북 완주와 논산, 금산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 ③ 각 도(道)에서 지정한 공원.
- ⑥ 전국의 철도와 도로가 통하는 도시. 과학도시로 유명하다.
- ⑧ 박정희 전대통령의 고향 도시.
- ⑩ 한국의 지붕. oo고원.
- ⑪ 묘하게 생긴 봉. 속리산의 한 봉우리다.
- ⑫ 남쪽은 남자. 북쪽은 여자.
- ⑬ 정신을 잃고 의식을 모름.
- ⑭ 제7회 아시아 황금피켈상을 수상한 한국 선수.

〈12월호 정답〉

북		석		풍	기	온	천	
한	북	정	맥		억			
산		온			의			
국		천			저			
립					편	백	나	무
공		고					로	
원	정	대						
		산	노	래	퀴	트	로	
						리		

■ 12월호 상품 받으실 분

날진 물통, 물통커버

김미경(대전시 대덕구 범동), 정미내(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윤희(서울시 송파구 잠실3동)

줌 포커스 손전등

김정은(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이강원(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무릎보호대

김명애(경북 김천시 감문면 삼성리), 김동욱(광주시 동구 산수동)

이귀정(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산보일

김영기(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박길홍(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기억의 저편 · 〈하〉

이동천



“여기 아산병원 장례식장이다. 오 대장이 행려병자로 돼 있어서 좀 복잡하네. 아무 말 말고 빨리 와.”

전화를 끊고도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도대체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나는 무작정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해 최 선배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대신 분향소 앞에 앉아 있는 북한산 산악구조대 김오곤 대장이 눈에 들어왔다.

“형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김 대장의 격양된 목소리를 듣고 나니 비로소 현실 앞에 내동댕이쳐지는 느낌이 들었다.

화를 낼 만도 했다. 김 대장은 오 대장의 수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다. 김 대장이 처음 등반을 하게 된 것도 오 대장의 권유에서였고, 구조대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오 대장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들었다. 그런 인연으로 두 사람은 지금까지 막역지우로 지내 온 터였다. 오 대장이 산속에 텐트를 치고 살 수 있었던 것도 김 대장의 배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나를 향한 김 대장의 화는 오 대장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무언의 질책이었다. 자꾸만 눈물이 앞을 가려 나는 김 대장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언제 왔는지 최 선배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그런 말해서 뭐 하겠나?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앞으로 일을 의논하세. 우선 김 대장은 오 대장의 연고자를 찾아봐 줘. 내가 알기로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 봐야지. 그리고 연락할 만한 사람들 명단을 만호에게 줘. 만호, 넌 김 대장이 주는 연락처대로 부고를 알려. 오 대장이 사망했다고 하면 올 사람은 올 거야. 나는 장례절차를 알아볼 테니. 슬픔은 나중에 표하자고.”

전화기 너머에서 울먹이던 최 선배의 모습이 아니었다. 내가 오기 전에 이미 한바탕 곡을 했는지, 최 선배의 눈은 별절게 충혈돼 있었다. 최 선배는 오 대장보다 한 살 아래로, 내 주변에서 오 대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내가 오 대장과 알고 지낸 지는 겨우 1년 남짓이다. 오 대장이 알고 지낸 사람이 있다면 고작 최 선배와 김 대장이 전부였다. 두 사람은 오 대장의 텐트를 찾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오 대장과 개인사나 타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전혀 없다. 유일한 화제가 바뀌었다.

나는 김 대장이 준 리스트를 들고 부지런히 전화를 돌렸다. 전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문자로 소식을 알렸다. 전화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내 설명을 조용히 듣다가 전화를 끊었다. 특이했던 것은, 리스트에 여자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암벽등반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즐기는 운동이 됐는데 말이다.

각자 맡은 역할을 마무리하고 다시 모인 시각은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최 선배가 조촐하게 술상을 마련해 왔다.

“오늘이 10일이니까 12일에 발인하도록 하자고. 문상객이 얼마나 올지 몰라 일단 가장 작은 9호실을 빈소로 했다. 음식은 최소 단위로 주문했어. 문상객 인원수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니까 내일 상황 봐 가며 조정하자고. 장례경비는 내가 처리하려고. 오 대장 보내는데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괜히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그리고 상주문제 말인데, 아무래도 상주는 우리 셋이서 맡아야 할 것 같다. 의견들 있으면 말해 봐.”

“장례비용 문제는 저도 있고 만호도 있으니까 셋이서 분담하죠.”

“나도 나름 생각해서 정한 거니까 서운하더라도 이해해 주고, 경비문제는 여기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만호 너도.”

최 선배의 표정이 너무나 무겁고 완고해 보여 김 대장도, 나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만호야, 분향 아직 안 했지? 분향하고 대장께 술 올려라. 그리고 영정사진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해 놔다.”

‘영정’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일시에 쏟아졌다. 아무도 내가 우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나는 소리 내어 영영 울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자 속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만큼 울었으면 됐다. 와서 절하고 술 한 잔 올려 드려라.”

내가 분향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마자 최 선배가 나를 앞서 입을 열었다.

“어떻게 된 거야, 김 대장?”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구조대원 태곤이 전화를 받고 출동했는데, 이미 사망하셨더라고요. 태곤이 말에 의하면 설우길에서 실수로 떨어지셨다고 하는데…”

“뭐? 설우길은 오 대장이 안전장치 없이도 원숭이 나무 타듯 오르락내리락하는 곳 아니야? 그런 데서 실수로 떨어지다니, 그게 말이 돼?”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고 태곤이한테 확인했습니다. 태곤이는 마침 근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태곤이 말로는 설우길 2피치에서 오 대장과 인사까지 건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5분도 지나지 않아 학생 중 누가 설우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고 하기에 뛰어가 확인해 보니 오 대장이었다는 겁니다.”

설우길은 나도 잘 아는 루트다. 내가 오 대장한테 등반을 배운 후 첫머리를 올린 길이다. 초보자에게는 어려운 코스지만 오 대장에게는 옆집 드나들듯 자유롭게 오르는 길이었다.

“왜 설우길에 가셨을까. 만호 님 아는 거 없나?”

“수락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서 그곳에 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소처럼 텐트로 들어가는 거 보고 집으로 왔는데…, 그게 다예요.”

“혼자서 위험한 행동을 할 양반이 아닌데 이상하단 말이야. 만호야, 혹시 요새 무슨 일 있었어?”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요.”

“시신은 어땠나?”

“추락사치고는 아주 깨끗했습니다. 얼굴표정도 편안해 보였고요. 그런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4

최 선배와 김 대장이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오 대장의 삶은 생생히 살아났다. 특히 김 대장은 오 대장에 대해 누구보다 훤히 알고 있었다. 김 대장과 최 선배는 오 대장을 추억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오 대장은 암벽과 결혼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바위를 사랑했다고 두 사람은 입을 모았다. 특히 김 대장은 오 대장을 북한산 산악구조대원들의 인명구조 실력과 등반력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도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오 대장은 자연바위의 독보적 존재야. 국보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실력만큼은 우리나라 산악인 중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흥건히 취한 최 선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왜소한 체격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암벽은 힘도 있어야 하는데 오 대장은 힘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특히 손가락 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했지요!”

김 대장이 최 선배의 말을 받았다. 오 대장은 암벽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다. 그러고는 완등할 때까지 무수한 연습을 했다. 오 대장은 난이도를 쫓지는 않았지만 처음 해 보는 암벽에 대해서는 유난히 집착했다. 나는 두 사람이 말하는 암벽루트들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귀에 익은 곳이라고는 고창 선운산이나 원주 간현암 정도였다.

“한국 스포츠클라이밍의 최고수 허길수, 전수완도 오 대장에게 슬랩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가르칠 정도의 실력을 오 대장은 대체 어디서 배운 겁니까, 선배님?”



추락사치고는 아주 깨끗했습니다.
얼굴표정도 편안해 보였고요. 그런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 대장이 북한산에서 암벽을 시작한 것은 스물일곱 살 때부터야. 오 대장은 북한산 토박이라고. 양가 부모님은 오 대장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던가? 그래서 정 붙일 곳이 없어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노인네 한 분이 암벽을 가르쳐 줬대. 그 후로 매일같이 종일 바위에서만 놀았다더라고. 내가 오 대장을 만난 것은 서른네 살 때였어. 그때 내가 문방구를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돼 팔려고 내놓았더니 사겠다고 온 사람이 바로 오 대장이었어. 바로 넘겼지. 그런데 웃기더군. 넘긴 문방구가 잘 되나 안 되나 보고 싶은 거야. 몇 번 가 보았는데 글썽, 갈 때마다 문방구 문이 닫혀 있지 않겠나. 솔직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오 대장을 기다렸지. 참, 오 대장 본명이 오중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오중희 씨를 붙잡고 문을 닫아 두는 이유를 물었더니 암벽등반 때문이라는 거야. 암벽등반! 그걸 하지 않으면 무병(巫病)을 앓는 것처럼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단나.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심 쓰듯 도로 문방구를 인수했지. 그게 인연이 돼 지금까지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된 거지.”

최 선배는 목이 타는지 상기된 얼굴로 소주 한 잔을 단숨에 털어 넣었다. 그러고는 끊어졌던 이야기를 마저 했다.

“오 대장은 내게 문방구를 넘긴 다음 본격적으로 암벽만 했어. 그러다가 크게 다쳐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았지. 그런데 그 인간이 재활한다며 아예 선인봉과 인수봉으로 거처를 옮기더라니까. 텐트생활은 그때부터 했으니 참 오래 됐네. 오 대장은 암벽기술을 혼자 배웠다고 봐야 해.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니야. 스스로 깨우쳤다고 봐야 할 거야.”

오 대장은 텐트생활을 하면서 많이 여유로워졌다고 했다. 그는 암벽등반만 마음껏 할 뿐 세상일에는 일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점심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다 주는 것으로 때웠고, 저녁은 산 아래 식당에서 암벽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해결했다. 그리고 암벽하는 사람들이 남기고 간 음식으로 아침식사를 했다. 오 대장을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사람들은 그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도시락을 두 개씩 준비해 오곤 했다. 그때가 오 대장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었겠느냐고 최 선배는 회고했다.

오 대장의 텐트에는 버너와 빨랫줄, 등산장비와 라디오가 전부였다. 언젠가 최 선배가 지나가는 말로 농담처럼 ‘여자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물으니 ‘운동을 한 후에는 성욕이 사라지고 바위가 여자로 보여 바위와 성교한다!’며 웃더라고 했다. 그의 삶은 수도승이나 진배없었다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두 시간 동안 요가와

참선을 하는 것이 그의 또 다른 취미였다.

암벽등반은 터럭만큼의 잡념도 끼어서는 안 된다고 오 대장은 항상 강조했다. 한순간 긴장의 끈을 놓아 버리면 바로 추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암벽등반이었다. 오 대장은 ‘대차다’라는 말을 항상 입에 물고 다니라고 했다. 뒤편 대차게 하라고, 추락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추락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포기하지 말고 대차게 일어나야만 암벽의 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오 대장은 중졸이었지만 다방면에서 박학다식했다. 특히 바위에 대한 지식은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술이나 담배도 하지 않고 요가와 참선, 암벽등반만 가까이하며 살았던 이 시대의 진정한 바위고수가 바로 오 대장이었다며 최 선배는 끝내 오열했다.

5

“등반은 몸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만호 씨.”

오 대장이 15m 암벽을 오른 그날 이후, 우리는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됐다. 오 대장은 나보다 다섯 살 위였지만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나 또한 오 대장을 형님처럼 대했다.

“노력한 만큼 실력이 느는 겁니다. 대붕이 되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는 곤이라는 물고기 이야기 알고요? 노력한 다음에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바위실력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아요. 만호 씨는 성격이 너무 급해요. 생각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합니다. 빨리 서두른다고 오를 수 있는 바위는 이 세상에 없어요.”

암벽등반을 배우면서 오 대장한테 들은 첫 말이었다. 등반을 가르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위적이었다. 자일은 항상 배우는 쪽에서 준비해야 했다. 행동식도 선등하는 사람 몫까지 챙겨 와야 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이 끝나면 산 아래에서 저녁대접을 하는 것이 기본 중 기본이었다. 불암산에 가는 산악회를 따라다니며 그런 모습을 보아 왔던 터였다. 하지만 오 대장은 그런 것을 일체 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권위적이지 않았다. 초보자든 중급자든 동료로 보았고, 한참 후배라 해도 말을 놓지 않았다.

교육에 있어서도 ‘저기를 디더라, 왼쪽 홀드를 찾아라’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냥 오르든 못 오르든 확보를 봐주는 것으로 대신했다. 바위를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가는 전적으로 바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는 주의였다.

‘삶을 긍정하고 자신감을 가져라. 암벽등반을 하다 멈추었을 때는 어떻게 오를지 먼저 생각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하라. 행동함에 있어서는 눈곱만큼도 회의하거나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교육관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대장은 암벽등반 시 당황하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당황하는 순간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본다 해도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오 대장은 내게 암벽등반 기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등반가의 마음가짐을 가르쳐 줬다. 바위를 잘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원칙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고 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한 동작을 금기시키고, 잡초의 부드러움과 몸의 균형을 유지하라고 강조했다.

명예퇴직으로 인해 한껏 위축돼 있던 나는 오 대장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세상을 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나 이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암벽에 올랐을 때
막막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갈팡질팡하면 바로 추락이라는
거 알지요? 이제 그런 막막한 순간이 사라졌어요.

오 대장은 사회생활의 경험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대붕의 그것처럼 넓었다. 내가 짧은 안목으로 허우적거릴 때 오 대장은 구만 리를 보고 있는 듯했다. 퇴직 후 나는 세상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나를 해고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기도 했다. 그런 내 모습을 눈치 채고 오 대장이 말했다.

“마음의 화부터 먼저 다스리세요. 마음의 화는 내 몸을 공격합니다. 암벽등반은 철저한 버림의 운동입니다.”

오 대장은 암벽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과 암벽을 구분하는 사람들을 싫어했다. 암벽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암벽이 숨 쉬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암벽과 한 몸이 될 때 진정한 등반가가 된다고 했다.

“바위와 대결하려고 하면 바위는 등반가를 패대기칩니다. 바위를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할 때 암벽등반은 힘겨운 운동이 아니라 안식처가 되지요. 목적을 가지고 바위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칩니다.”

오 대장의 말이 귓가에 생생히 맴도는 듯했다. 지금도 바로 옆에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고 있는 듯했다.

“암벽등반은 힘으로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발을 잘 써야 바위를 잘해요. 암벽에 올라 봐서 알겠지만, 등반에서 이론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있는 아이들이 암벽등반을 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세요. 군더더기가 없지요? 자연 그대로의 오름짓이 있을 뿐! 그게 바로 진정한 암벽등반의 모습이에요.”

오 대장은 철저한 야전 스타일이었다. 절실함만큼 바위를 잘할 수는 있는 동기는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잡초의 생명력과 야생의 거센 생리적으로 터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암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이라고 했다.

암벽등반을 스승 없이 독학으로 배워서 그런지 오 대장의 바위는 본능의 오름짓이었다. 오 대장이 등반하는 모습을 보면 화려함보다는 실전적 기풍이 느껴졌다고 최 선배는 말했다.

“오 대장은 동물적 감각과 끈질긴 생존본능을 바탕으로 ‘진정한 야인’으로 살다 간 이 시대의 등반가야. 바위의 묘리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터득한 사람이지.”

최 선배는 뉘드리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김 대장은 피곤했던지 구석에서 졸고 있었다. 날이 밝아 오는 것이 느껴졌다. 취기가 올라왔다. 술 때문인지,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흘 전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만호 씨, 나 이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암벽에 올랐을 때 막막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갈팡질팡하면 바로 추락이라는 거 알지요? 이제 그런 막막한 순간이 사라졌어요. 두렵고 무서워야 암벽을 하는데,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다면 암벽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느낄 나이가 됐나 봐요. 죽음이 두렵지 않네요. 내 삶이 약간은 수고스러웠지만, 나름 괜찮은 인생이었다고 생각해요.”

“도인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하.”

“나는 세상 이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세상에 절대적 자유는 없을 거라는... 그런데 그런 자유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어려운 말씀만 하시네요. 대장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방에 갔다 온다고 했지요? 만호 씨처럼 나도 나만의 공간을 찾아갔었어요. 전북 고창에 선운산이 있어요. 그 선운산 속살바위 근처에 일반인이 개척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암벽을 발견한 것은 3년 전이었어요. 높이 30m쯤, 난이도는 5.13c쯤 됩니다. 제 눈이 정확하다면 말이에요. 그곳을 며칠 전에 온사이트로 올랐어요.”

“그러셨군요. 축하합니다. 대장님, 선등을 서면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선등 서는 사람들은 무서움도 모르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들이 강심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암벽에서 떨어질까 봐 더욱더 열심히 하는 거랍니다. 선등을 서 본 사람들은 후등을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음가짐 때문이지요. 난이도 5.12 정도의 루트를 선등 섰던 사람이 후등으로 5.10 구간에서 헤매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나눈 것이 마지막이었다. 언제나 산 이야기여서 그때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최 선배에게 오 대장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들려줄까 하다가 그만뒀다.



오 대장의 빈소에는 의외로 문상객이 줄을 이었다. 여러 산악회에 연락을 취했는지 삼삼오오 몰려들기 시작해 9호실이 비좁아졌다. 근조화도 영정 앞을 채우고 복도까지 넘칠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 밤을 새우는 문상객도 많았고, 일손도 많이 필요했다. 문상객들 스스로 자신들이 상주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해결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것으로도 여의치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뒤처리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이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최 선배와 김 대장은 오 대장이 추락한 설우길에 유골을 뿌려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립공원에 유골을 뿌리는 것은 원래 불법이지만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최 선배의 지시로 병원 측과 장례비용을 정산했다. 부조금은 장례비를 치르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모였다. 그래서 최 선배가 부담하기로 했던 병원비도 부조금으로 대신했다. 문상객이 많았던 것은 그만큼 오 대장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증거였다.

“산악회에 적을 두지 않고 홀로 활동했던 오 대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러 오는 것은 그의 인품을 아쉬워하는 것일 테지.”

최 선배가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다. 오 대장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굳은 일에 솔선수범했으며, 말을



세상에 절대적 자유는 없을 거라는...
그런데 그런 자유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웁기지 않았고, 누구든 친절하게 가르쳤다. 자신의 기량을 뽐내거나 과신하지 않고 중용으로 살았다. 하지만 그런 오 대장에게도 흠은 있었다. 바로 여성 등반가를 가르치지 않은 것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여자를 가르치다 보니 좋지 않은 소문들이 났고, 그것을 질색해서 이후로는 여자 등반가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이 그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최 선배는 말했다.

잔도 차면 넘치고,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날카로운 부분이 많이 무뎈지는가 보다. 음으로 양으로 많이 기뻐던 오 대장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뜨인 느낌이었다. 오 대장과의 만남은 짧았지만 그가 남기고 간 풍성한 그림자는 내 가슴에 문신처럼 고스란히 남았다. 상주 노릇으로 몸은 녹초가 됐지만 마음은 더없이 편했다. 장사를 치르는 내내 나는 오 대장이 헛살지 않았음을 보았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억하기 위해 찾아와 줬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가도 그 정신은 남아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오 대장의 사망으로 나는 끈 떨어진 신세가 됐다. 나는 여전히 나만의 공간에서 암벽등반을 했지만 솔직히 재미나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나사가 빠진 듯한 이 허전함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15m 높이의 암벽을 이제 혼자 올라야 했다. 오 대장이 옆에 있을 때 10m까지 올랐었다. 이제 남은 5m는 내 힘으로 올라야 한다. 어쩌면 5m는 내 힘으로 오르라는 오 대장의 배려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나는 벌레라도 쏘인 듯 벌떡 일어섰다. 오 대장의 텐트가 생각났다. 나는 주섬주섬 등반장비를 챙겨 오 대장이 생활했던 텐트로 갔다. 텐트는 평소 그대로였다. 불쑥 오 대장이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올 것만 같았다.

찬찬히 텐트 안을 둘러보다가 나는 뭔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다. 텐트의 안팎이 지나치게 깨끗이 정돈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한 후 집을 나선 것이 분명했다. 최 선배와 김 대장이 나누던 말이 떠올랐다.

“혹시 죽음을 준비했던 거 아냐?”

나도 그때 얼핏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다. 그렇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고 도리질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가 말한 ‘이제 죽어도 좋다’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건 내게 하는 말이기보다는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던 것이다.〈끝〉